

2010. 12

정책연구 2010-12(기본)

#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2010. 12

이승우 · 박상우

####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이 승 우 : 제1장, 제6장, 제7장

- 연구진

- 박 상 우 :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 외부 집필진

- 피플리서치 : 제4장

####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김 현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 김 광 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 병 옥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사무관)

- 정 동 기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 ◆ 연구감리자

- 신 영 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머 리 말

국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삶의 질의 측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단일화된 '삶의 질'에 관한 지표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개인의 삶의 질은 주관적인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옮겨지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문제에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200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정책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농어촌 서비스의 운영·추진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경우에 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어업인의 생산공간인 어장과 농업인의 생산공간인 농경지의 특성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생산방법도 다르다. 또한 어촌과 농촌의 생활 중심지의 접근성도 상이하다. 따라서 어촌주민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농어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과 다른 어촌의 생활여건과 생산여건 등을 고려한 어촌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 어촌주민은 연안 어촌주민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어촌은 국토의 보전과 보안 등의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촌의 과소화, 노령화 등으로 어촌공공서비스의 투자효과가 국토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

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어촌의 여건을 고려한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설정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도서 어촌은 물론 연안 어촌 또한 국토의 4.5배인 해양영토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이다. 해양영토가 동북아시아에서 국제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촌, 나아가 도서는 국토의 중요한 공간이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열도 영유권 주장,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국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어촌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예증이다.

따라서 국토의 중요한 공간인 어촌의 자원과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어촌이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으로서 조건을 갖추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서비스 정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농어촌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였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의거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가 이러한 서비스 기준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경우에 농촌 공공서비스와 함께 어촌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농촌과 다른 특성을 갖는 어촌의 경우에 이러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촌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이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어촌 생활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하고, 농촌과 상이한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설정 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산정책과 어촌정책 사업의 연계를 통한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어

촌 공공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수산연구부 이승우 연구위원과 박상우 책임 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연구한 결과로서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한 정책보고서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지역발전연구실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광선 부연구위원, 농림수산식품부 김병욱 사무관 등이 바쁘신 가운데도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토론과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주셨다.

본 연구는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향후 각 방안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어촌 공공서비스가 개선되어 어촌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0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학 소



# 차 례

Executive Summary	i
-------------------	---

제1장 서 론	1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2)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4
3.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9
----------------------------	---

1.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논의	9
1) 삶의 질의 개념	9
2) 삶의 질의 개념의 시대적 변화	9
2. 공공서비스의 개념적 논의	12
3.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간의 관계 정립	13

제3장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관련 현행 정책의 검토	14
------------------------------	----

1. 삶의 질 향상계획	14
1) 계획 개요	14
2) 기본계획의 1차년 평가	26

3) 2차 기본계획의 추진 .....	26
2. 농어촌 서비스 기준 .....	27
1) 도입 배경 .....	27
2)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구성 .....	28
<b>제4장 어촌 공공서비스 실태조사 및 분야별 사례 분석</b> .....	<b>33</b>
1. 어촌 서비스기준 실태조사 .....	33
1) 조사의 개요 .....	33
2) 조사결과 .....	36
2. 어촌 공공서비스 실태의 분야별 사례 분석 .....	106
1) 개요 .....	106
2) 어촌 공공서비스 분야별 실태 .....	106
<b>제5장 외국의 공공서비스 사례 조사</b> .....	<b>110</b>
1. 일본 : 어촌 생활환경 고도화 .....	110
1) 개요 .....	110
2) 어촌 리프레쉬 운동의 목표 .....	110
3) 개별 공공서비스 기준별 목표 .....	112
4) 미야기현 시오가마시 사례 .....	114
5) 시사점 .....	116
2. 영국의 농촌 서비스기준 .....	117
1) 개요 .....	117
2) 주요 서비스기준 .....	120
3) 시사점 .....	121
<b>제6장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b> .....	<b>123</b>

1. 어촌 공공서비스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123
1) 목표 .....	123
2) 기본방향 .....	124
2.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의 내용 및 고려사항 .....	126
1)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의 추진배경 및 내용 .....	126
2)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	129
3)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	132
3. 어촌 공공서비스의 정책방향 .....	135
1) 수산정책 사업과 어촌 공공서비스와 연계 .....	135
2) 어촌 공공서비스 공간의 통합적 운영 .....	136
3) 바다 환경보전과 어촌 공공서비스의 연계 .....	137
4) 투자형 공공서비스로의 인식 전환 .....	138
5)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한 어촌 공공서비스의 개선 .....	139
6) 어촌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계획수립 및 추진 ....	140
4. 어촌 공공서비스 제고 방안 .....	141
1)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어촌 공공서비스 제고 .....	141
2) 어촌 관광산업을 통한 어촌 공공서비스 제고 .....	143
3)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	144
<b>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b> .....	147
1. 결론 .....	147
2. 정책 제언 .....	148
1) 정책방향 .....	149
2) 정책대안 .....	150
<b>참 고 문 헌</b> .....	152
<b>부 록</b> .....	154

**표 차례**

표 3-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관련 세부정책 ..... 14

표 3-2. 제1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투융자 계획 ..... 17

표 3-3.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현황 ..... 17

표 3-4.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분야 세부사업 ..... 19

표 3-5.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 ..... 20

표 3-6.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 23

표 3-7.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 ..... 25

표 3-8. 포괄보조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사업 변화 ..... 27

표 3-9.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구성 ..... 28

표 3-10. 주거 부문 서비스기준 ..... 28

표 3-11. 교통 부문 서비스기준 ..... 29

표 3-12. 교육 부문 서비스기준 ..... 30

표 3-13.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기준 ..... 30

표 3-14. 사회복지 부문 서비스기준 ..... 31

표 3-15. 응급 부문 서비스기준 ..... 31

표 3-16. 문화여가 부문 서비스기준 ..... 32

표 3-17. 정보통신 부문 서비스기준 ..... 32

표 4-1. 조사설계 ..... 33

표 4-2. 응답자 특성 ..... 34

표 4-3. 지역별 어촌유형 분포 ..... 35

표 4-4.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육지와와의 거리 ..... 35

표 4-5. 어촌유형별 취약 공공서비스 (복수응답, N=358, 단위 : %) ..... 37

표 4-6. 취약 공공서비스의 문제점 (N=343, 단위 : %) ..... 38

표 4-7. 어촌유형별 사용 식수 (N=358, 단위 : %) ..... 40

표 4-8. 각 지역 어촌별 사용 식수 (N=358, 단위 : %) ..... 40

표 4-9. 어촌유형별 식수유형별 상수도 미설치 이유 (상수도 이외의 식수 사용자, N=193, 단위 : %) .....	42
표 4-10. 사용식수 유형별 식수 안전에 대한 의견 (상수도 이외의 식수 사용자, N=193, 단위 : %) .....	43
표 4-11. 어촌유형별 폐기물별 처리방법 (복수응답, N=358, 단위 : %) .....	44
표 4-12. 어촌유형별 오수분뇨별 처리방법 (복수응답, N=358, 단위 : %) .....	46
표 4-13. 어촌유형별 전력공급 방법 (N=358, 단위 : %) .....	47
표 4-14.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거주 주민의 육지에서의 거리별 전력공급 방법 (N=358, 단위 : %) .....	47
표 4-15.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	48
표 4-16. 어민들이 느끼는 거주지역의 체감 안전수준 (N=358, 단위 : %) .....	50
표 4-17. 마을 공동시설별 이용 빈도 (N=346, 단위 : %) .....	51
표 4-18. 마을 공동시설의 어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여부 (N=346, 단위 : %) ·	52
표 4-19. 어촌유형별 마을 공동시설에 필요한 지원 (복수응답, N=358, 단위 : %) ·	54
표 4-20. 시·군청 소재지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N=358, 단위 : %) ·	56
표 4-21. 시·군청 소재지 외출 시 이용 교통수단 (복수응답, N=358, 단위 : %) ····	57
표 4-22. 시·군청 소재지 외출 시 향후 더 많이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교통수단 (N=358, 단위 : %) .....	58
표 4-23.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의 버스 주행 빈도 (N=358, 단위 : %) .....	61
표 4-24. 희망 버스 운행 시간 간격 (N=358, 단위 : %) .....	62
표 4-25. 읍면(시군) 소재지까지 1일 배 운항 빈도 (N=358, 단위 : %) .....	63
표 4-26. 희망 1일 배 운항 빈도 (N=358, 단위 : %) .....	64
표 4-27. 유아, 초등학생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 위치 (N=358, 단위 : %) .....	66
표 4-28.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통학 시 문제점 (복수응답, N=358, 단위 : %) ····	70
표 4-29. 교육기관 · 시설의 적정 위치 (N=358, 단위 : %) .....	74
표 4-30.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시급히 확충 · 개선해야 할 사항 (N=358, 단위 : %) .....	77
표 4-31. 어촌유형별 의약품 구입처 (N=358, 단위 : %) .....	78

표 4-32. 어촌유형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 (N=358, 단위 : %)	79
표 4-33. 어촌유형, 연령별 의료시설 사용 빈도 (N=358, 단위 : %)	81
표 4-34.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별 사용 빈도 (N=358, 단위 : %)	81
표 4-35. 의료시설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의 위치 (N=358, 단위 : %)	82
표 4-36.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별 이동 방법 (복수응답, N=358, 단위 : %)	83
표 4-37. 어촌유형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까지 이동 방법 (복수응답, N=358, 단위 : %)	84
표 4-38. 어촌유형별 의료시설까지 배로 이동 시 소요시간 (복수응답, N=64, 단위 : %)	84
표 4-39. 어촌유형별 적정 의료시설의 위치 (N=358, 단위 : %)	86
표 4-40. 어촌유형별 시급한 의료시설 관련 개선사항 (복수응답, N=358, 단위 : %)	88
표 4-41. 응급 서비스별 이용 소요시간 (사용경험자, 단위 : %)	89
표 4-42. 응급 서비스별 만족도 (사용경험자, 단위 : 점)	90
표 4-43. 경찰 응급 서비스 개선사항 (복수응답, N=11, 단위 : %)	91
표 4-44. 소방 응급 서비스 개선사항 (복수응답, N=12, 단위 : %)	91
표 4-45. 구급·구조 응급 서비스 개선사항 (복수응답, N=52, 단위 : %)	92
표 4-46. 복지 서비스 시설별 이용 빈도 (N=358, 단위 : %)	92
표 4-47. 복지 서비스 시설별 이동방법 (단위 : %)	93
표 4-48. 복지 서비스 시설별 소요시간 (단위 : %)	93
표 4-49. 복지 서비스 시설별 위치 (단위 : %)	94
표 4-50. 문화·여가 시설 이용 빈도 (N=358, 단위 : %)	96
표 4-51. 어촌유형별 문화·여가 시설 이용 빈도 (N=358, 단위 : %)	96
표 4-52. 필요 문화·여가 시설 (복수응답, N=358, 단위 : %)	99
표 4-53. 문화·여가 시설별 만족도 (N=125, 단위 : %)	101
표 4-54. 어촌유형별 문화·여가 시설의 적정 위치 (N=358, 단위 : %)	103
표 4-55. 어촌유형별 희망 찾아오는 문화서비스 (N=358, 단위 : %)	104
표 4-56. 실태조사 결과 요약	105
표 4-57. 울릉군, 신안군의 의료시설 실태	107

표 4-58. 울릉군, 신안군의 문화·체육시설 실태 .....	108
표 4-59. 울릉군, 신안군의 교육시설 실태 .....	109
표 5-1. 어촌 리프레쉬 운동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효과 .....	111
표 5-2. 영국의 농촌 서비스기준 .....	118
표 6-1.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의 고려사항 .....	130
표 6-2.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	133
표 6-3. 어촌 공공서비스 정책대안 .....	145

##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	5
그림 3-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4대 중점과제 .....	16
그림 4-1. 어촌지역의 취약 공공서비스 .....	36
그림 4-2. 취약 공공서비스의 문제점 (N=358, 단위 : %) .....	37
그림 4-3. 사용 식수 (N=358, 단위 : %) .....	39
그림 4-4. 식수유형별 상수도 미설치 이유 (상수도 이외의 식수 사용자, N=193, 단위 : %) .....	41
그림 4-5. 식수 안전에 대한 의견 (상수도 이외의 식수 사용자, N=193, 단위 : %) ·	42
그림 4-6. 폐기물별 처리방법 (복수응답, N=358, 단위 : %) .....	44
그림 4-7. 오수분뇨 처리방법 (복수응답, N=358, 단위 : %) .....	45
그림 4-8. 어촌의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 (N=358, 단위 : %) .....	49
그림 4-9. 마을 공동시설 유형 (복수응답, N=358, 단위 : %) .....	51
그림 4-10. 마을 공동시설별 어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여부 (N=346, 단위 : %) ·	52
그림 4-11. 마을 공동시설에 필요한 지원 (복수응답, N=358, 단위 : %) .....	53
그림 4-12. 마을 공동시설에서 정기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정 운영 빈도 (N=358, 단위 : %) .....	54
그림 4-13. 시군청 소재지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N=358, 단위 : %) ·	55
그림 4-14. 시군청 소재지 외출 시 이용 교통수단 및 이용의향 교통수단 (복수응답, N=358, 단위 : %) .....	56
그림 4-15. 자택에서 정류장, 선착장까지 소요시간 (N=358, 단위 : 분) .....	59
그림 4-16.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의 버스 주행 빈도 (N=358, 단위 : %) .....	60
그림 4-17. 희망 버스 운행 시간 간격 (N=358, 단위 : %) .....	61
그림 4-18. 읍면(시군) 소재지까지 1일 배 운항 빈도 (N=358, 단위 : %) .....	63
그림 4-19. 희망 배 운항 빈도 (N=358, 단위 : %) .....	64
그림 4-20. 유아, 초등 자녀학생 유무 및 교육기관 위치 .....	65

그림 4-21. 유아, 초등 자녀의 통학 교육기관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	66
그림 4-22. 중학생 자녀 유무 및 교육 기관 위치 .....	67
그림 4-23. 중학생 자녀의 통학 교육기관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	67
그림 4-24. 고등학생 자녀 유무 및 교육 기관 위치 .....	68
그림 4-25. 고등학생 자녀의 통학 교육기관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	68
그림 4-26.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통학 시 문제점 (복수응답, N=358, 단위 : %) .....	69
그림 4-27.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성인교육 경험 (N=358, 단위 : %) .....	70
그림 4-28. 수강 평생교육, 성인교육 프로그램 (복수응답, N=38, 단위 : %) .....	71
그림 4-29. 평생교육, 성인교육 프로그램 진행 기관 (복수응답, N=38, 단위 : %) ..	71
그림 4-30. 평생교육, 성인교육기관 위치 (N=38, 단위 : %) .....	72
그림 4-31. 평생 교육기관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복수응답, N=38, 단위 : %) .....	72
그림 4-32. 교육기관 · 시설의 적정 위치 (N=358, 단위 : %) .....	73
그림 4-33. 폐교 활용방안 (N=358, 단위 : %) .....	75
그림 4-3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시급히 확충 · 개선해야 할 사항 (N=358, 단위 : %) .....	76
그림 4-35. 의약품 구입처 (N=358, 단위 : %) .....	77
그림 4-36.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 (N=358, 단위 : %) .....	78
그림 4-37.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 이용 빈도 (N=358, 단위 : %) .....	80
그림 4-38.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 위치 (N=358, 단위 : %) .....	82
그림 4-39. 의료시설까지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	83
그림 4-40. 적정 의료시설의 위치 (N=358, 단위 : %) .....	85
그림 4-41. 가장 시급한 의료시설 관련 개선사항 (복수응답, N=358, 단위 : %) .....	87
그림 4-42. 사회 복지 시설 및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 (N=18, 단위 : %) .....	94
그림 4-43. 희망 사회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복수응답, N=358, 단위 : %) .....	95
그림 4-44. 필요 문화 · 여가 시설 (복수응답, N=358, 단위 : %) .....	98
그림 4-45. 필요 문화 · 여가 시설까지 도달 소요시간 (N=275개 응답, 단위 : 분) .....	100
그림 4-46. 문화 · 예술 시설까지 소요시간 (N=275개 응답, 단위 : 분) .....	101
그림 4-47. 문화 · 여가 시설의 적정 위치 (N=358, 단위 : %) .....	102

그림 4-48. 희망 찾아오는 문화서비스 (N=385, 단위 : %) .....	104
그림 5-1. 시오가마시 어촌 리프레쉬 운동 사례지역 .....	115
그림 5-2. 사례지역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 추진내용 .....	115

## Executive Summary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Service for Better Quality of Life in Fishing Villages**

#### ■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 Public service can be categoriz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service providers or service types.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public service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others with public responsibility for public interest.
- For an in-depth analysis of survey results, domestic cases were reviewed according to the types of fishing villages. Interviews with ‘hands-on workers’ and surveys with villagers were conducted.
- The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direction for better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based on the Farming/ Fishing Village Service Standards (tentative) by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 The Survey on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 The study conducted a telephone survey with 358 members of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those in suburbs (24), coastal villages (37) and island fishing villages (64)), based on the Suhyup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Classification.
- The survey was conducted on public service, such as housing, transportation, education, health service, emergency and cultural and leisure service.

	Item		Current Status	Note
Housing service	Waterworks		Average 46.1% Island fishing villages 13.5%	
	Waste	Food	Landfill (Island) 61.2%	
		Waste	Incineration (Island) 44.4%	
		Construction	Incineration (coastal villages) 17.2%	
	Sewage treatment	Dishwater	Discharge (Island) 44.9%	
		Feces and urine	Discharge (Island) 16.3%	
Public facilities		Insufficient operation of programs	Regardless of location types	
Transportation service	Provincial or city capital		Less than 1 hr (Island) 90.4%	
	Bus run frequency		Non-existent service (Island) 59.6%	
	Passenger ship frequency		Less than two times per day (Island) 50.0%	Hope for 3~5 times per day (Island) 56.2%
Education service	Educational Institutions	Preschool/elementary	Nearby residence 52.6% Island 46.8%	School shut-down > commute distance > education quality
		Middle school	Nearby residence 31.3%	
		High school	Nearby residence 6.7%	
	Lifelong/adult education		Without experience 89.4%	
Health care service	Time required to reach health care facilities		Average 93min. (Island)	By ship
	Transportation to medical facilities		On foot (Island) 50% Ship (Island) 34.8%	

	Item	Current Status	Note
Health care service	Urgent improvements of health care facilities	Hospitals with emergency treatment 42.2% Improvement in medical equipment 31.3% Transportation to medical facilities 22.9% Expansion of traveling clinic 21.5%	
Emergency service	The time required to reach facilities	Police Island 43 min. (average 28 min.)	
		Firefighting Island 51 min. (average 31 min.)	
		First aid Island 55 min. (average 36 min.)	
Cultural and recreational service	Cultural and leisure facilities	Non-existent 40% Island 47 min. (average 21 min.)	Theaters and concert halls 48 min.

■ Lessons from Japan and the UK

- The Fisheries Ministry (Agency) prepares indices for 6 areas of improvement for the livelihood of fishing villages. It supports municipalities' programs after evaluating them with these indices.
- Japan's programs were linked to living environment, fishing grounds and ports, which contributed to creating added value of the fisheries industry.
- Agricultural service standards in the UK have been revised every year, based on changing circumstances or gathered opinions.
- For more effective service, post offices, churches, charity organizations are actively used or fostered.

- The results are used to evaluate each ministry, which encourage ministries' participation.

■ Measures for better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 Goal of the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 To create added value for fishing villages through effective operation of public service
- Policy direction for public service
  - To link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to fisheries policies
  - To comprehensively operate public services in fishing policies
  - To link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to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 To raise awareness about public service as an investment
  - To improve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according to social and economic demand
  - To prepare and implement integrated plans for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by municipalities)
- Measures for better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 Public service which links fishing villages, fishing ports and fishing grounds
  - Public service linked to fishing village tourism
  - Action plans for better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Item		Current Status	Policy Measures
Housing service	Waterworks		Average 46.1% Island fishing villages 13.5%	Expanded implementation of the Fishing Villag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Waste	Food	Landfill (Island) 61.2%	
		Waste	Incineration (Island) 44.4%	
		Construction	Incineration (coastal villages) 17.2%	
	Sewage treatment	Dishwater	Discharge (Island) 44.9%	
		Feces and urine	Discharge (Island) 16.3%	
Public facilities		Insufficient operation of programs (regardless of location types)		
Transportation service	Travel within 1 day to nearby small cities		most islands	Additional support from the Isl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Education service	Dormitory		Going to other provinces/high school (43.3%) Going to other provinces /middle school (25.0%)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tudent dorm in islands (part of the Isl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Commute distance		Long distance (37.6%)	
Health Care service	Medical office		In neighborhood (62.9%) Nearby Myun or Ri (35.0%)	Support for long distance medical treatment equipment
Social Welfare service	Program and location		Inadequate service (33.3%), Poor access (27.8%)	Projects to support the Fishing Village Community Program (new)

	Item	Current Status	Policy Measures
Emergency service	First aid and emergency transportation	Support for first aid and emergency transportation (69.5%)	Landing ground for flying ambulance (additional project of the Island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Cultural/recreational service	Demand for cultural or recreational activities	Non-existent/ unfamiliar (46.6%)	Part of the Fishing Village Community Program

○ Policy Suggestions

- To establish database on public service distribution in fishing villages
- To build the integrated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of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 To link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to demand for fishing village tourism, leisure activities and health care
- To provide service by linking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to fisheries facilities
- To build the integrated mobile public service system for better public service of island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어촌은 국토의 끝자락에 위치한 어촌주민의 주거공간이자 이들이 주로 바다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얻는 생산공간이다. 육지영토의 4.5배인 해양 영토의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 어촌은 국토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정부는 어촌과 바다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산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가와 도시가구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도시와 어촌 사이의 삶의 질 수준 격차는 여전하다. 그 결과 어촌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활용할 인적자원의 유지 및 유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어촌 삶의 질 수준이 도시와 격차가 큰 것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주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05년에 제정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어촌 삶의 질 수준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관계 중앙부처 사이 통합적 노력에 의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 부처 간, 서비스 공급주체들 간 역할 분담과 협조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와 형평성 차원에서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부처의 통합적 정

책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서 2009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를 통하여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농어촌 서비스의 운영·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어촌과 농촌은 1차 산업의 생산주체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어업인의 생산공간인 어장과 농업인의 생산공간인 농경지의 특성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생산방법도 다르다. 또한 어촌과 농촌의 생활 중심지의 접근성도 상이하다. 따라서 어촌주민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농어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 간 공공서비스 공급 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수요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어촌은 도시근교형, 연안복합형, 도서형 등 어촌유형에 따라 공공서비스 공급 격차가 있을 수 있으며, 농촌과 다른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검토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에 대하여 어촌의 특성을 토대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농촌과 상이한 어촌 특성을 반영한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어촌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어촌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사업의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장 및 어항과 연계되어 있는 어촌 생활환경을 반

영한 생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촌 유형에 따라 생활 서비스 공급 실태와 수요를 분석하여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위 연구목표를 가진다.

첫째, 어촌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이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어촌 생활 서비스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어촌 생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여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 사업의 효과 제고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농촌과 상이한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설정 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넷째, 수산정책과 어촌정책 사업의 연계를 통한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을 보완하여야 할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을 제시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내수면 어업을 하고 있는 어촌계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연안의 어촌이다. 그리고 어촌의 유형은 수협중앙회의 「어촌분류평정표」에 의거하여 어촌을 도시근교형, 연안복합형, 도서형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어촌 유형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실태분석은 어촌이 위치한 곳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기준의 개선에 유효할 것이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활 서비스는 서비스의 공급주체,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 혹은 공공적 책임하에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선행연구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삶의 질 향상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의 개념, 삶의 질 개념의 시대적 변화,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계획의 1차 계획의 평가와 2차 계획의 추진,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등 공공서비스 관련 현행 정책을 제3장에서 검토하였다.

제4장은 우리나라 어촌을 도시근교형, 연안복합형, 도서형 등으로 분류하여 어촌 공공서비스 실태 조사결과와 분야별 사례 조사의 결과를, 그리고 제5장에서는 일본과 영국의 사례 조사의 결과와 시사점으로 구성하였다. 제6장에서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의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어촌 공공서비스의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결론과 함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어촌 공공서비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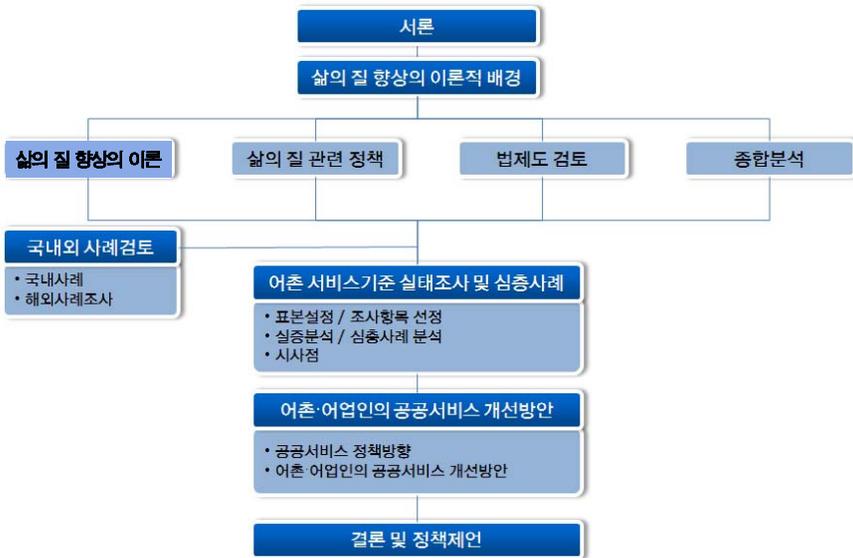
## 2)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지 조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하여 생활 서비스 관련 기존 연구, 부처별 정책방향, 선진국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어촌의 생활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어촌 유형별로 생활 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사례 조사는 국내와 국외사례 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국내 사례 지역은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조사를 위하여 어촌유형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현장 실무자 대면조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일본과 영국 등의 서비스 정책과 추진 체계 등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체계는 <그림 1>과 같다.



| 그림 1-1 | 연구 추진 체계

### 3.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상태와 향후 어촌이 정주환경으로서 국가적 최소단위(National Minimum) 차원에서 갖추어야 할 공공서비스 기준과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어촌·어업인을 한정하여 공공서비스 실태와 개선 관련해서는 최초로 수행되는 연구로서,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농촌의 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촌의 특성과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더 열악한 실태와 내용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박대식 외의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2005)는 2004년 삶의 질 지표체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문제점으로 삶의 질 만족도 지표 부족, 지수화가 어려운 단순 범주형 문항 상당수 포함, 기존통계 활용 지표를 개인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지표와 연계 곤란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2005년 삶의 질 지표 체계도 2004년의 지표체계와 기본적인 틀이 동일하고, 여성복지 및 관련 지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삶의 질 지표의 중장기 생산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는 삶의 질 지수 측정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고 농촌 삶의 질 개선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

김창현 외의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2007)은 농촌지역의 상황을 조사하여 다른 지역의 수준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농촌 지역 간 격차해소와 관련한 농촌문제를 토대로 농촌지역의 진단부문을 인구사회, 산업경제, 공간입지, 생활여건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농촌 관련 사업의 진단지표체계 적합성을 분석하고, 지역진단 지표체계와 농촌 활성화 방안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용방안을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농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윤경숙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2008)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직 및 인력구조, 내용, 민관협력 등을 기준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개편 의의를 검토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였다. 즉 서비스 수행에 대한 정보의 종합적 취합과 행정조직 간의 사회복지 업무의 합리적 배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업무 연계와 역할 조정, 민관협력체계의 효율적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동 연구는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 개편과 함께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에 의의가 있다.

송미령 외의 “기초생활권 생활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2009)는 163개 시·군 기초생활권을 중심으로 생활 서비스 공급실태와 수요 등을 분석하여 국가적 최소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는 농어촌의 공공서비스 실태와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매우 비슷한 맥락에서 검토되었던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 방안 연구”(2009)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기초에 따라 농어촌 정책의 대상, 목표와 내용, 추진체계 및 계획제도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 지 여부와 기초생활권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여건이 미흡한 농어촌을 대상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데 필요한 국내외 사례를 충실히 다루고 있다.

박대식 외(2005), 김창현 외(2007)의 연구대상은 농촌이다. 전자는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의 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지만, 개선한 지수를 사용하여 종전의 지수에 비하여 개선된 것을 비교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후자는 농촌 지역간 격차해소와 관련한 농촌문제를 토대로 농촌지역의 진단부문을 인구사회, 산업경제, 공간입지, 생활여건으로 구성하였지만, 농촌과 상이한 어촌 지역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아 농어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 활성화 정책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송미령 외(2009)의 연구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농어촌 공공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어촌여건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동 연구의 결과가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설정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은 의의가 있지만, 어촌여건이 기준설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쉽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촌의 공공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여 농촌과 다른 어촌의 여건을 조사하여 농촌과 다른 서비스 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것을 도출하여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을 수정·보완할 때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동시에 수산정책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수산·어

촌의 공공투자와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어촌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연계함으로써 공공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장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 1.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논의

#### 1) 삶의 질의 개념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대되어 오고 있다. 삶의 질은 특정 사회, 계층, 집단을 불문하고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국가와 모든 사회의 활동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비도시지역의 농림어업인으로 옮겨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되기 시작하였다.

삶의 질은 '잘 사는 것', 혹은 '좋은 삶(Good Life)'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고,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삶의 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물론 삶의 질에 대한 상세한 의미는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철학적·관념적 개념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개념적으로 물질적·정신적 복지(well-being)를 추구한다는 점으로 귀결시킬 수 있다.

#### 2) 삶의 질의 개념의 시대적 변화

삶의 질이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서다. 물론, 2차 세계대전 이전

에도 삶의 질과 관련하여 민주적 정치주의(Democratic politicism), 경제주의(Economism), 윤리주의(Ethicism)적 관점에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민주, 윤리 등의 관점이 삶의 질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부족하여 큰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삶의 질’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1960년대에는 경제적 공리주의가 1인당 GNP를 사회복지의 지표로 설정되는 등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지표들에 의해 큰 성과가 있기는 하였으나 경제적 지표만으로 갖는 한계성이 노출되는 시기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성장지향의 발전전략이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시키지 못함에 따라 발전전략의 목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기초욕구가 국가발전의 중요한 목표로 대두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GNP 중심의 성장일변도의 시각에서 벗어나 소득분배의 문제,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의식주, 건강, 교육, 사회복지, 근로조건 등과 같은 표준적 삶의 수준이 중요한 지표로 대두되었다.

1990년대에는 UNDP<sup>1)</sup>(국제연합개발계획)에서 ‘인간개발’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경제적 표준생활, 사회적·생태적·물리적 환경, 공리주의적 행복감, 인간개발의 인본주의적 표준들이 삶의 질을 대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삶의 질은 시대가 변하면서 요구되어지는 것 역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질을 통해 사회의 발전정도를 측정하려는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크게 기초욕구 이론(Basic Needs Approach), 인간개발 이론(Human

---

1) 국제연합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계획을 조정·통일하는 기구.

Development Approach), 생활세계역량 이론(Capability Approach) 등의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 (1) 기초욕구 이론

기초욕구 이론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상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삶의 목표가 다른 목표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도덕적 명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이론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가정할 경우 더 높은 삶의 질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들어낸 이론이다.

### (2) 인간개발 이론

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의 복지가 발전의 핵심이며, 인간이 주된 경제적 자원을 이룬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시각은 UNDP가 1990년대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즉, 국가발전의 기본적인 목표는 구성원들이 장수하며, 건강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외 더 필요한 선택기회들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간개발 이론은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개발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이 지수는 국제적으로 복지의 측정치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그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 (3) 생활세계역량 이론

이 이론은 바람직한 생활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향유하거나 실현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삶의 질에 접근한다. 즉, 개인의 삶의 상태를, 생활세계의 다양하고도 가치 있는 생활

요소를 향유하여 누리거나 또는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평가한다. 생활요소는 삶과 경험의 총체로서의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단위요소로 질병이나 기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 신체적인 적절한 영양공급, 이동성을 갖는 것 등과 같이 아주 단순한 것부터 행복한 상태, 자기존중의 실현, 공동체 생활에의 참여, 수치심 없이 공중 앞에 설 수 있는 것 등 복잡한 것까지 포함한다.

생활세계역량 이론은 개인이 실현하여 누리고 있거나 누릴 수 있는 생활요소 및 생활요소군들이 개인에게 얼마나 주어져 있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삶의 질의 개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복잡해지고 다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질은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면적 가치를 포함한 객관적이고 개인적 생활세계의 다양한 요소들을 사회적 통용의 시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인간의 보편적 욕구와 객관적 생활환경이 결합되어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수 있는 상태로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 2. 공공서비스의 개념적 논의

공공서비스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된다. 삶의 질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개념이나 인식 정도도 달라져 왔다. 공공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재(Private goods)와는 구별되면서 공익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공공서비스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여 상하수도, 전기, 도로, 교통, 쓰레기처리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것, 또, 경제적

관점에서 정부가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모든 서비스로 규정할 수 있다.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더라도 결국 공공서비스는 사회공동체의 편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최근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라도 비경합적 소비와 비배제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공서비스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부분에 의해 공급되거나 공급주체와 상관없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면 공공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 역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변화를 거쳐 오고 있다. 1970년대 이전에는 교육, 1970년대 교육·의료, 1980년대 문화예술·의료, 1990년대 교육·문화예술, 2000년대는 수자원·의료서비스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공공서비스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 3.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간의 관계 정립

공공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반이며,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교육, 의료, 문화, 주거환경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 그 주요소를 찾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삶의 질은 건강, 사회적·경제적 웰빙, 교육의 질, 안전의 보장, 교통 등 삶의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다차원(multi-dimensional)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공공서비스는 공공 또는 민간의 영역에서 재화와 용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제 3 장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관련 현행 정책의 검토

## 1. 삶의 질 향상계획

### 1) 계획 개요

어촌·어업인과 관련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으로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림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꼽을 수 있다. 이 계획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중점과제와 세부시행계획을 담고 있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차 계획이 완료되었고, 2010년부터 2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관련 세부정책

구 분	정 책	세부정책
소득 기반 확보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강화</li> <li>· 비정규직 보호의 제도적 기반 마련</li> <li>·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대책 마련</li> <li>· 근로시간의 단축 및 최저임금 보장의 강화</li> </ul>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서비스 등 일자리 창출</li> <li>· 저 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의 추진</li> <li>· 선진화된 고용지원서비스의 확산·발전</li> <li>· 지역밀착형 고용정책의 기반 강화</li> <li>·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착</li> </ul>

| 표 3-1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관련 세부정책(계속)

구 분	정 책	세부정책
소득 기반 확보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에 특화된 능력개발의 지원</li> <li>· 지역 및 산업수요 밀착형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li> <li>·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의 혁신</li> </ul>
사회 안전망	사회안전망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 및 복지서비스 확충</li> <li>· 산재·고용보험체계의 혁신</li> <li>· 퇴직연금제의 정착</li> </ul>
	사회안전망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대</li> <li>·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li> <li>·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li> <li>·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li> <li>· 사회정책의 총괄·평가기능 강화</li> </ul>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전략 수립</li> <li>·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아동양육 기반 조성</li> <li>·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등 치매·중풍대책 추진</li> <li>·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li> </ul>
균형 발전	기초생활환경 및 정주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의 질 기본계획</li> <li>·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li> <li>·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li> </ul>
	지역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복합공간 조성</li> <li>· 생활복합공간 조성</li> <li>· 산업복합공간 조성</li> </ul>
교육 여건 개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도시 저소득지역 아동에게 교육·문화·복지 종합서비스 제공
	농어촌교육 종합발전방안 수립	농어촌출신 학생 대입특별전형 확대 실시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 수립	-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청소년을 포용하는 대안학교 활성화</li> <li>·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li> </ul>



[ 그림 3-1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4대 중점과제

계획기간('05~'05)중 총투자규모는 20조 2,731억 원으로 연평균 15.3% 증가하였고, 이 중 국비는 11조 5,527억 원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하고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9.3% 증가하였다. 반면 지방비는 8조 1,659억 원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하고, 민자 등 기타는 5,545억 원으로 2.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계획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복지분야는 3조 4,226억 원(16.9%)이며, 계획기간 중 연평균 투자규모는 6,845억 원으로 2004년 3,098억 원 대비 220% 가량 증가하였다.

교육분야는 3조 1,473억 원(15.5%)이며, 연평균 투자규모는 6,295억 원으로 2004년 2,752억 원 대비 300% 증가하였다.

지역개발 분야는 11조 3,760억 원(56.1%)이며, 연평균 투자규모는 2조 2,752억 원으로 2004년 1조 7,844억 원에 대비하여 27.5% 증가하였다.

복합산업 분야는 2조 3,272억 원(11.5%)이며, 연평균 투자규모는 4,654억 원으로 2004년 2,769억 원 대비 168% 증가하였다.

| 표 3-2 | 제1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투융자 계획

단위 : 억 원

구분	2004	제1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투융자 계획					'05-'09 합계	'05-'09 증가율 (%)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25,846 (14,703)	28,436 (15,101)	36,150 (18,981)	42,256 (23,938)	46,177 (27,117)	49,712 (30,390)	202,731 (115,527)	15.3 (19.3)
복지증진	3,098 (2,562)	4,151 (3,237)	6,535 (4,746)	7,123 (5,210)	7,664 (5,588)	34,226 (25,357)	34,226 (25,357)	22.1 (20.4)
교육여건개선	2,135 (164)	3,676 (704)	6,658 (2,180)	7,367 (2,562)	7,374 (2,572)	31,473 (10,032)	31,473 (10,032)	19.7 (51.5)
지역개발	17,844 (10,122)	17,090 (8,886)	19,144 (9,520)	22,823 (12,709)	25,726 (15,158)	113,760 (64,194)	113,760 (64,194)	14.1 (19.5)
복합산업	2,769 (1,855)	3,519 (2,274)	3,813 (2,534)	4,943 (3,457)	5,413 (3,799)	23,272 (15,944)	23,272 (15,944)	12.7 (15.9)

주 : 1) 투융자 규모는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상의 수치임.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투융자규모가 변경되었음  
2) ( )은 국비임

자료 : 농림수산물부,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9

4대 중점 과제별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분야 24개 사업,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 22개 사업,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35개 사업 그리고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25개 사업 등 총 106개 세부사업 가운데 농업인의 수혜범위는 100개 사업(94.3%), 어업인의 수혜범위는 68개 사업(64.2%)으로 그 수혜범위에서 어업인이 농업인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표 3-3> 참조). 특히 복지기반 분야와 복합산업 분야에서 농업인에 비해 어업인의 수혜대상 사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3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현황

추진과제	세부사업 (개)	수혜범위	
		농업인	어업인
소 계	106	100	68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분야	24	23	1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	22	22	20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35	32	25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25	23	1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4대 중점과제별로 세부과제의 사업현황과 사업 수혜여부 및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농어촌 복지기반 확충 분야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분야는 총 24개 과제 및 사업으로 크게 사회 안전망 확충(4개 과제), 의료기반 확충(7개 과제), 영유아 및 여성복지(9개 과제), 노인복지(4개 과제) 등이 포함된다(<표 3-4> 참조).

첫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는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농작업재해보상지원, 어선원재해보상지원의 4개 사업이 있다.

둘째, 의료기반 확충으로는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등 7개 사업이 있다. 의료기반 확충 관련 사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의 건강관리, 농작업 재해 등 농업·농촌과 관련된 특화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건강증진이나 작업재해와 관련하여 특화된 사업은 아직 정책적으로 발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영유아 및 여성복지는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보건복지부),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의 2개 사업,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 사업, 농촌진흥청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등 3개 사업이다. 영유아 및 여성복지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농산어촌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충 사업이 있으며, 노인 봉사원활동 프로그램 개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경영이양직불제 등 3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 표 3-4 |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분야 세부사업

추진과제		담당부처	수혜범위	
			농업인	어업인
소 계		24개	23	12
사회안전망 확충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
	○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농림수산식품부	○	○
	○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
의료기반 확충	○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	○
	○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	○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	○	○
	○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농촌진흥청	○	×
	○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환경개선	"	○	×
	○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	×
영유아 및 여성복지	○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	○	×
	○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보건복지부	○	○
	○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	○	○
	○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
	○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	○	○
	○ 농어가 도우미 지원확대	"	○	○
	○ 취약농가 인력지원(사고농업인 영농지원)	"	○	×
	○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농촌진흥청	○	×
노인복지	○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	○	×
	○ 전자상거래 우면팜 유지관리	"	○	×
	○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보건복지부	○	○
	○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농촌진흥청	○	×
	○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	○	×
	○ 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	×

자료 : 최성애 외, 「어촌사회 양극화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22개 사업으로 크게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비 경감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교육기회제공은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학교군 구성·운영,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11개 사업이

고 교육비 경감은 주로 교육비, 학자금 용자지원, 급식비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다(<표 3-5> 참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수혜범위를 살펴보면, 농업인 22개 사업, 어업인 20개 사업으로 타 분야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의 한국농업전문학교 운영과 농림부의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등 2개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는 별개의 정책사업으로서 독자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은 향후 수산부문에 도 도입 가능한 사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3-5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분야

추진과제		담당부처	수혜범위	
			농업인	어업인
소 계		22개	22	20
교육기회제공	○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교육과학기술부	○	○
	○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교육과학기술부	○	○
	○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농진청	○	×
	○ 학교군 구성·운영	교육과학기술부	○	○
	○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	○	○
	○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	○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	○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	○	○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	○
	○ 방학캠프 운영지원	"	○	○
	○ 농산어촌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	○	○
교육비 경감	○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	○	○
	○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
	○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	"	○	○
	○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	○	×
	○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
	○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농림수산식품부	○	○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
	○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수당 신설	"	○	○
	○ 교원 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	○	○
	○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지원	"	○	○
	○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	○	○

자료 : 전계서

### (3)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마을개발, 중심지 개발, 주거환경정비,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교통여건 개선, 면단위개발, 문화복지, 정보화기반, 정보활용도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으며, 세부사업은 총 35개 사업이다(<표 3-6> 참조).

첫째, 마을개발은 농림수산식품부(어촌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림청(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개발사업이다. 이 중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25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어촌의 생산기반,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 소득증대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중심지개발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읍단위 중심지역에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도시와 농어촌을 연결하는 거점기능에 투자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셋째, 주거환경정비는 행정안전부 농산어촌 주거환경개선(주택개량, 마을정비, 빈집정비)과 농촌진흥청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이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은 민박농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주택내부 개선, 텃밭, 담장, 정원, 건물외벽 녹화 등),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매우 유용한 정책사업이 될 수 있는 반면 어촌지역은 정책발굴이 미흡한 상황이다.

넷째,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는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환경부),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농림수산식품부), 면단위 하수도 사업(환경부), 소하천 정비(소방방재청), 폐기물 처리시

설 지원(환경부),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있다. 도서 어촌지역의 경우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무단 매립이나 방류가 빈번하여 어촌의 주거환경 조건을 고려한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교통여건 개선은 행정안전부의 농어촌도로정비, 국토해양부의 교통서비스 강화, 국고 여객선 보조 등이 있고, 이들 3개 사업에 대해 어업인은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면단위개발은 행정안전부 도서개발촉진사업이 있고 이들 사업은 어촌지역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면단위 농촌의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환경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과 중복성이 있기는 하지만 면별로 30억 원(국비 100%)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곱째, 문화복지는 문화체육관광부 4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산림청 각각 1개 사업이 있으나 어촌 주민이 실제로 이용 또는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덟째, 정보화기반은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 조성,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등의 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여건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 활용도는 모두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용 등 하드웨어 지원뿐만 아니라 정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인적자원 등을 지원하고 있어 정책 발굴에 있어 벤치마킹 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총 35개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들의 농어업인 수혜범위는 농업인 32개 사업(91.4%), 어업인 25개 사업(71.4%)으로 나타났다.

| 표 3-6 |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사 업 명		주관부처	수혜범위	
			농업인	어업인
소 계		35개	32	25
마을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	×
	어촌종합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	○
	산촌종합개발사업	산림청	○	×
중심지개발	소도읍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	○
주거환경 정비	농산어촌 주거환경개선 - 농어촌 주택개량(농특세 10%) - 농어촌 마을정비(마을하수도 정비) - 농어촌 빈집정비	행정안전부	○ ○ ○	○ ○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개발·보급	농촌진흥청	○	×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환경부	○	○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	○
	면단위 하수도 사업	환경부	○	○
	소하천 정비	소방방재청	○	○
	폐기물 처리시설지원	환경부	○	○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농림수산식품부	○	×
교통여건 개선	농어촌도로정비	행정안전부	○	○
	교통서비스 강화 - 농산어촌 버스운행노선 운영비 지원 - 농산어촌 공영버스 구입 및 폐차비 지원	국토해양부	○ ○	○ ○
	국고여객선 건조	농림수산식품부	×	○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농림수산식품부	○	×
면단위개발	오지개발촉진사업	행정안전부	○	○
	도서개발촉진사업	행정안전부	○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복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
	지방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과학기술부	○	○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청	○	×
정보화기반	정보화마을 조성	행정안전부	○	○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지식경제부	○	○
	정보화 인프라 구축	농림수산식품부	○	×
정보활용도	디지털어촌 구축사업(어촌정보화사업)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인 정보화 교육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용	농림수산식품부	○	×
	농어업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	○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및 저변확대	농림수산식품부	○	×

자료 : 전계서

#### (4)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크게 지역산업, 체험관광, 경관보전, 소득보전, 도농교류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으며, 세부사업은 총 25개 사업이 있다(<표 3-7> 참조).

첫째, 지역산업은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 구축(농촌진흥청),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노동부)의 3개 사업이 있으며, 특히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진흥청의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구축은 어촌에도 신속하게 도입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험관광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문화역사마을 조성(문화체육관광부), 어촌체험마을 및 어촌관광활성화 사업(농림수산식품부),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 농산어촌 체험박람회와 체험관광 홍보(농림수산식품부),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있다.

셋째, 경관보전은 경관보전 직불제,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등 최근 농촌에서만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 향후 어촌경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어촌에도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할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소득보전과 관련해서 농촌에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어촌의 경우는 조건불리지역 수산보전제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도농교류는 농림수산식품부 중심으로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 갖기 활성화,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1사 1촌 운동 이후 도농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을 시도하

고 있다.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는 25개 사업 가운데 농업인 대상 23개 사업 92.0%, 어업인 대상 11개 사업 44.0%로 농촌과 비교하여 어촌이 가장 뒤쳐진 분야라 할 수 있다.

| 표 3-7 | 농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

사 업 명		주관부처	수혜범위	
			농업인	어업인
소 계		25개	23	11
지역산업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농촌진흥청	○	×
	지역부존 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농림수산식품부	○	×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	○
체험관광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림수산식품부	○	×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농촌진흥청	○	×
	문화역사마을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
	어촌체험마을 조성	농림수산식품부	×	○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	○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산림청	○	×
	- 산림휴양공간 조성			
	- 수목원 조성			
	문화 및 생태, 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문화관광자원개발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	○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농림수산식품부	○	○
중앙, 지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 관리체계 구축	농림수산식품부	○	×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	○	
경관보전	경관보전 직불제	농림수산식품부	○	×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진흥청	○	×
	농산어촌 경관주택 발굴, 보급	농림수산식품부	○	○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산림청	○	×
- 자생식물 식재				
- 생태숲 조성				
소득보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농림수산식품부	○	×
도농교류	도시민 농산어촌 주택 갖기 활성화	농림수산식품부	○	○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농림수산식품부	○	×
	도농교류센터 운영	농촌진흥청	○	×

자료 : 전계서

## 2) 기본계획의 1차년 평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지난 5년간 사업의 평가는 농산어촌과의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농산어촌 보건·복지 등 삶의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한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부처별 사업을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의 전체적인 농산어촌 지원의 틀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계획으로서 민간과 지자체의 역할이 미흡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 간에 협력과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

## 3) 2차 기본계획의 추진

삶의 질 향상 2차 기본계획은 2010년~2014년까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틀 속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권, 포괄보조금, 농특세 폐지, 농어촌서비스 기준,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운용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정책적인 틀이 바뀌어 추진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2차 기본계획은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삶의 질 향상 정책 4대 분야(복지·교육·지역개발·복합산업) 중 ‘지역개발<sup>2)</sup>’과 ‘복합산업<sup>3)</sup>’의 두 분야의 일부 사업은 포괄보조로 전환되었다.

---

2) 지역개발 포괄보조금(5개) : 기초생활권 기반 구축,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농어업 기반 정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3) 복합산업 포괄보조금(5개) : 기초생활권 기반 구축,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해양 및 수자원 관리

| 표 3-8 | 포괄보조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 사업 변화

구분	2009년 사업 수	2010년 이후 사업 수		
		소계	기존단위사업 유지	포괄보조화군화 (기존 사업 수)
지역개발	34	26	21	5 (13)
복합산업	27	21	16	5 (11)

## 2. 농어촌 서비스 기준

### 1) 도입 배경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항목과 수준을 의미한다. 사실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영국에서 광우병 파동으로 농민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정책으로 국내에서도 삶의 질 향상 2차 계획에 맞춰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도입배경은 첫째, 농어촌 서비스 수준이 도시 및 선진국의 농어촌과 비교하여 여전히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데 있다. 둘째, 주민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체감이 어려운 하드웨어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셋째, 정책여건의 변화로 정부, 지자체 등이 준거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목표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 2)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구성

농어촌 서비스기준은 i) 개인과 가족의 삶의 공간, 마을공동체(주거 부문), ii) 개인·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응급 부문), iii) 이동과 소통(교통 부문, 정보통신 부문), iv)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여가 부문) 등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로 서비스기준의 기준연도와 이행목표 달성연도는 각각 2009년과 2014년이다.

| 표 3-9 |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구성

구분	서비스 부문
개인과 가족의 삶의 공간, 마을공동체	주거부문
개인·가족과 공동체의 안전	응급부문
이동과 소통	교통부문, 정보통신 부문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문화여가 부문

### (1) 주거 부문

주거 부문은 거주가능주택, 난방, 공동시설 프로그램, 안전한 음용수, 오폐수처리 등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4개의 서비스기준이 제시되었다.

| 표 3-10 | 주거 부문 서비스기준

구분	서비스기준	비고
거주가능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	77.9%(08년)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 우선 추진	32.9%(09년)
공동시설 프로그램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
안전한 마실물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75% 이상으로 증대,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함	47.7%(08년)
오폐수처리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증대	57.1%(08년) 군지역 45.5%

## (2) 교통 부문

교통 부문은 대중교통 운행, 여객선 운행, 인도 설치 등 3개 서비스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여객선운행은 도서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기준으로 모든 본섬에 1일 왕복 1회 이상 여객선이 운행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미 모든 본섬에서는 여객선이 1일 1회 이상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본섬과 그 부속 섬에 대한 서비스기준이 제시되지 못해 어촌지역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표 3-11 | 교통 부문 서비스기준

구분	서비스기준	비고
대중교통 운행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 대중교통 하루 3회 이상 이용가능. 이의 충족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도입	88.6%(05년)
여객선 운행	도서지역은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 여객선 운행. 도서주민에 여객선 운임 일부 지원	100%(09년)
인도 설치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 확보	-

## (3) 교육 부문

교육 부문은 유치원·초·중학교, 고등학교, 폐교요건, 방과후 프로그램, 교육발전위원회, 평생교육 등 6개 서비스기준을 제시하였다.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지역여건에 맞는 규모와 통학수단의 제공, 고등학교는 시군별 1개소 이상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늘어남에 따라 폐교시설을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표 3-12 | 교육 부문 서비스기준

구분	서비스기준	비고
유치원·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고등학교 육성	기숙형고교
폐교요건	폐교시 학생들의 통합 및 폐교시설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교과과목, 특기적성 등 방과후 학교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증대	52.8%(08년)
교육발전 위원회	시군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 위원회 설치	-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서비스 거점시설 1개 이상 운영	-

#### (4) 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 부문은 1차 진료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구입 등 3개 서비스가 제시되었다. 어촌지역의 공공서비스 중 매우 취약한 부문으로 보건의료에 대한 불만과 개선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서비스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어촌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근무를 회피하고 또한 의료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기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나 현 서비스 기준에서는 그 구체성이 마련되지는 못하고 있다.

표 3-13 |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기준

구분	서비스기준	비고
1차 진료서비스	도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진료 가능	-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	-
의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 가능	92.8%(05년) 15km이내

### (5) 사회복지 부문

사회복지 부문은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가족이 복지시설의 이용빈도와 접근 소요시간 등 5개를 서비스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표 3-14 | 사회복지 부문 서비스기준

구분	서비스기준	비고
노인	도움 필요한 노인은 주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79.5%(05년)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음	-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교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음	-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제공시설에 접근 가능.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 어려울 시 방문서비스 가능	-

### (6) 응급 부문

응급 부문은 응급서비스, 도서벽지 서비스, 소방서비스, 도난방지, 경찰 서비스 등 긴급서비스에 대한 기준으로 5개를 제시하였다. 특히 어촌지역과 관련성이 높은 헬기·선박을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의미가 있다.

| 표 3-15 | 응급 부문 서비스기준

구분	서비스기준	비고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시 기본 응급장비 구비 구급차 30분 내 도착, 응급처치	-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구축	-
소방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접수 후 5분 내 소방차 현장도착 비율 55% 이상	53.1%(09년)
도난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를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	-
경찰서비스	112 신고시 90% 이상 5분 내 현장 도착	-

### (7) 문화여가 부문

문화여가 부문은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아동 등 3개 서비스기준을 제시하였다. 문화여가에 대해 취약한 농어촌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기준 제시도 필요하다.

| 표 3-16 | 문화여가 부문 서비스기준

구분	서비스기준	비고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 가능	93개소(09년)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 도달 가능.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공연 프로그램 관람 가능	-
아동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향유 가능	연 1회(08년)

### (8) 정보통신 부문

정보통신 부문은 인터넷 초고속망 접속과 IPTV 시청 등이 가능토록 제시하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 정보화사업 등을 통해 정보통신에 대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며, 이를 보다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기준이 제시되었다.

| 표 3-17 | 정보통신 부문 서비스기준

구분	서비스기준	비고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에서 IPTV 시청 가능	26.1%(09년)

# 제 4 장 어촌 공공서비스 실태조사 및 분야별 사례 분석

## 1. 어촌 서비스기준 실태조사

### 1) 조사의 개요

####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어촌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이용실태, 만족도 측정, 향후 서비스별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어촌·어업인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조사설계

본 조사는 수협중앙회 어촌계분류평정 자료를 토대로 각 유형별 어촌계를 도출하고 그 중 도시근교 24개소, 연안촌락 37개소, 도서어촌 64개소, 총 35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서형 어촌의 경우 육지와와의 이격거리에 따라 서비스실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거리별로 임의 추출하였으며, 그 외 어촌은 지역별로 고려하여 임의 추출하였다.

| 표 4-1 |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모 집 단	도시근교 337개, 연안촌락 1,239개, 도서어촌(취약지구) 402개 어촌계
조사대상	도서64개, 연륙도서11개, 도시근교 25개, 연안촌락 37개 지역 거주민
조사시점	2010. 4. 12 ~ 2010. 4. 30
표본크기	358명
표본추출	도서형 어촌은 육지와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임의추출 그 외 어촌은 지역을 고려한 임의 추출
조사방법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 ±5.18%p

### (3) 자료처리 및 분석

#### ① 자료처리

조사된 결과는 검증, 에디팅, 코딩과정을 통하여 정리된 데이터를 개인용 컴퓨터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3.0, MS-Excel 등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4) 표본의 특성

조사표본은 거주기간별로 고르게 할당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전남(44.7%), 경기/인천(17.6%), 부산/경남/울산(15.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표 4-2 |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358	100
어촌거주기간	1~20년미만	95	26.5
	20~40년미만	96	26.8
	40~60년미만	90	25.1
	60년 이상	77	21.5
어촌유형	도서형(조건불리)	178	49.7
	도시근교	63	17.6
	연륙도서	24	6.7
	연안촌락	93	26.0
지역	강원	7	2.0
	경기/인천	63	17.6
	부산/경남/울산	54	15.1
	경북	14	3.9
	전남	160	44.7
	전북	21	5.9
	제주	16	4.5
	충남	23	6.4
육지와외의 거리	0~30km미만	49	27.5
	30~100km미만	108	60.7
	100km 이상	21	11.8

경기/인천(68.3%), 전남(60.6%), 전북(57.1%)은 도서형(조건불리) 어촌의 비중이 높았고, 부산/경남/울산과 제주 지역은 도시근교와 연안촌락의 비중이 높았다.

| 표 4-3 | 지역별 어촌유형 분포

구분	사례 수	비율(%)			
		도서형(조건불리)	도시근교	연륙도서	연안촌락
전체	(358)	49.7	17.6	6.7	26.0
경기/인천	(63)	68.3	6.3	22.2	3.2
부산/경남/울산	(54)	24.1	37.0	0.0	38.9
경북	(14)	14.3	21.4	0.0	64.3
전남	(160)	60.6	14.4	3.8	21.3
전북	(21)	57.1	4.8	9.5	28.6
제주	(16)	18.8	31.3	0.0	50.0
충남	(23)	34.8	13.0	8.7	43.5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육지와와의 거리는 평균 58.2km이었고, 경북(217km), 경기/인천(70.6km), 전남(63km)은 육지로부터 더 멀리 위치해 있었다.

| 표 4-4 |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육지와와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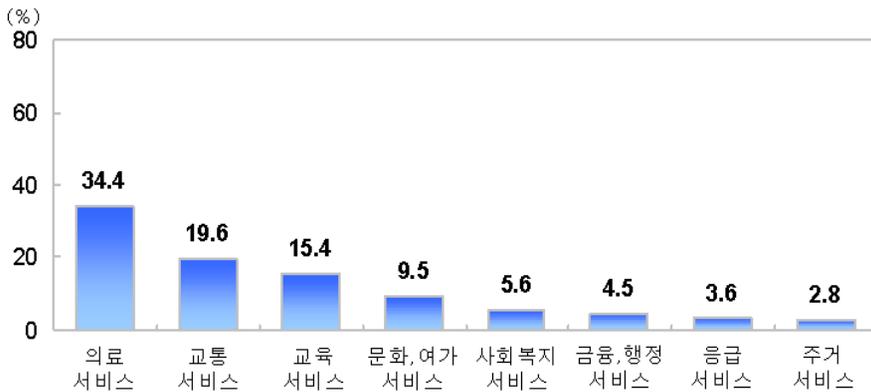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비율(%)			평균(km)
		0~30km미만	30~100km미만	100km 이상	
전체	(178)	27.5	60.7	11.8	58.2
경기/인천	(43)	14.0	72.1	14.0	70.6
부산/경남/울산	(13)	100.0	0.0	0.0	14.4
경북	(2)	0.0	0.0	100.0	217.0
전남	(97)	14.4	72.2	13.4	63.0
전북	(12)	66.7	33.3	0.0	30.1
제주	(3)	0.0	100.0	0.0	50.2
충남	(8)	100.0	0.0	0.0	8.8

## 2) 조사결과

### (1)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여건

#### ① 취약 공공서비스

어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어촌에서 가장 취약한 공공서비스로 의료서비스(34.4%)를 꼽았고, 그 외 교통서비스(19.6%)와 교육서비스(15.4%)가 취약하다는 응답도 10% 대로 나타났다.



주 : 2% 미만 잘 모름 미제시

| 그림 4-1 | 어촌지역의 취약 공공서비스

도서어촌의 어민들은 문화·여가, 사회복지서비스보다는 좀 더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가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절반 이상이 의료서비스(52.2%)의 취약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다. 반면에 도시근교, 연륙도서, 연안촌락 어민들은 의료 서비스보다는 그 외 교통, 교육, 문화·여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취약하다는 응답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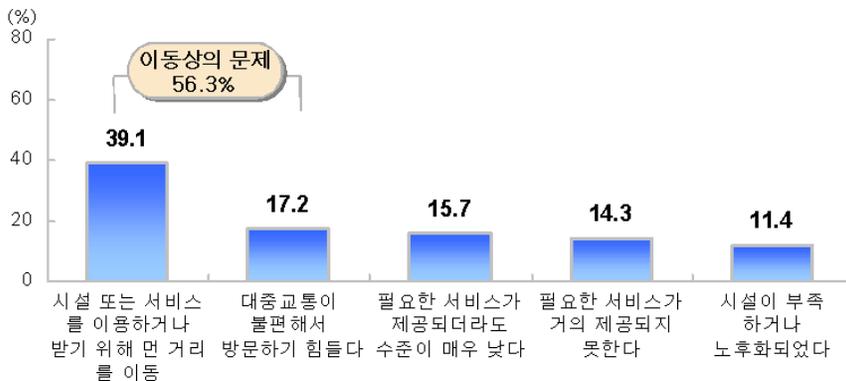
도시근교 어촌은 교통 서비스(22.2%)와 문화, 여가 서비스(19%)가 취약하다고 응답했고, 연륙도서는 교육(25%)과 사회복지 서비스(20.8%), 연안촌락은 의료(21.5%) 및 교육서비스(21.5%) 외에 문화, 여가서비스(15.1%)가 각각 취약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4-5 | 어촌유형별 취약 공공서비스 (복수응답,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의료 서비스	교통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전체	(358)	34.4	19.6	15.4	9.5	5.6
도서형(조건불리)	(178)	52.2	19.1	11.8	2.8	1.1
도시근교	(63)	15.9	22.2	12.7	19.0	7.9
연륙도서	(24)	0.0	16.7	25.0	12.5	20.8
연안촌락	(93)	21.5	19.4	21.5	15.1	8.6

## ② 취약한 공공서비스별 문제점

취약한 공공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39.1%)해야 하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하다(17.2%)처럼 이동상의 문제(56.3%)가 절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하며(14.3%),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고(15.7%)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었다(11.4%)는 문제점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 기타 미제시, 1% 미만 미제시

| 그림 4-2 | 취약 공공서비스의 문제점 (N=358, 단위 : %)

의료, 교육, 문화, 여가, 금융·행정, 응급 서비스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45%)는 의견이 높았다.

【 표 4-6 】 취약 공공서비스의 문제점 (N=343,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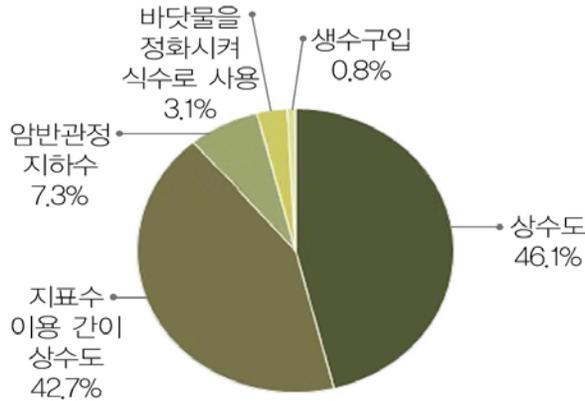
구분	의료 서비스	교통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사례 수	(122)	(70)	(55)	(34)
1순위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 (46.7%)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방문하기 힘들다 (54.3%)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 (45.5%)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 (58.8%)
2순위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었다 (14.8%)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 (17.1%)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수준이 매우 낮다 (20%)	필요한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한다 (23.5%)
3순위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수준이 매우 낮다 (14.8%)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수준이 매우 낮다 (11.4%)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었다 (14.5%)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수준이 매우 낮다 (14.7%)
구분	사회복지 서비스	금융·행정 서비스	응급 서비스	주거 서비스
사례 수	(20)	(16)	(13)	(10)
1순위	필요한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한다 (45%)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 (75%)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 (69.2%)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었다 (50%)
2순위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수준이 매우 낮다 (25%)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수준이 매우 낮다 (12.5%)	필요한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한다 (15.4%)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수준이 매우 낮다 (30%)
3순위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 (15%)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방문하기 힘들다 (12.5%)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었다 (7.7%)	필요한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한다 (10%)

주 : 무응답 미제시

## (2) 주거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 조사

### ① 사용 식수

어민들은 주로 상수도(46.1%)와 지표수를 이용한 간이 상수도(42.7%)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 암반관정 지하수(7.3%), 바닷물을 정화시켜 식수로 사용(3.1%), 수돗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생수구입(0.8%)을 통해 식수문제를 해결한다는 응답도 소수 있었다.



| 그림 4-3 | 사용 식수(N=358, 단위 : %)

도시근교(100%), 연륙도서(66.7%), 연안촌락(66.7%)의 경우 상수도를 사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도서형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비율이 13.5%에 그치고 지표수를 사용한 간이 상수도(66.9%)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표 4-7 | 어촌유형별 사용 식수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상수도	지표수 이용 간이 상수도	암반관정 지하수	바닷물을 정화하여 식수로 사용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생수구입
전체	(358)	46.1	42.7	7.3	3.1	0.8
도서형(조건불리)	(178)	13.5	66.9	11.8	6.2	1.7
도시근교	(63)	100.0	0.0	0.0	0.0	0.0
연륙도서	(24)	66.7	29.2	4.2	0.0	0.0
연안촌락	(93)	66.7	29.0	4.3	0.0	0.0

도시근교와 연안촌락의 비율이 높았던 강원(100%), 경북(85.7%), 제주(81.3%) 지역은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특히 높았고, 도서형(조건불리) 어촌의 비율이 높은 경기/인천(68.3%), 전남(45.6%)과 충남(52.2%)은 지표수를 시용한 간이 상수도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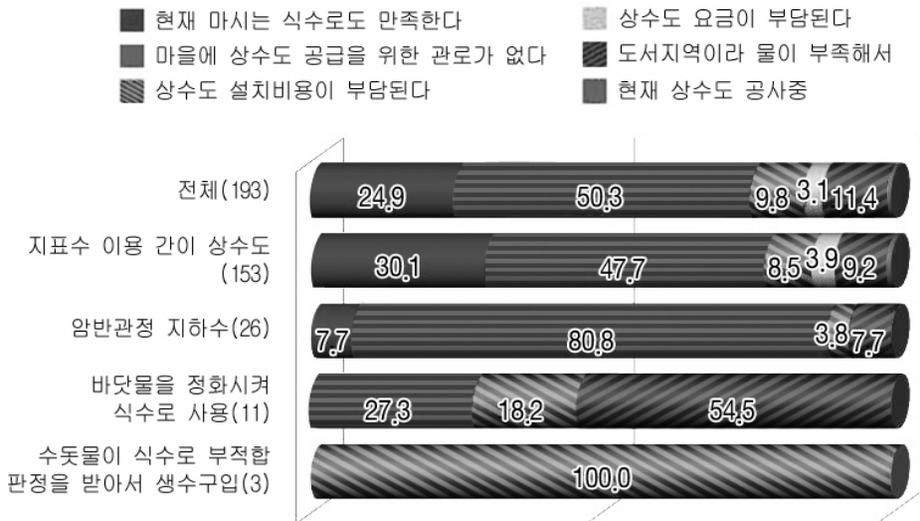
| 표 4-8 | 각 지역 어촌별 사용 식수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상수도	지표수 이용 간이 상수도	암반관정 지하수	바닷물을 정화하여 식수로 사용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생수구입
전체	(358)	46.1	42.7	7.3	3.1	0.8
강원	(7)	100.0	0.0	0.0	0.0	0.0
경기/인천	(63)	20.6	68.3	11.1	0.0	0.0
부산/경남/울산	(54)	64.8	29.6	0.0	5.6	0.0
경북	(14)	85.7	14.3	0.0	0.0	0.0
전남	(160)	38.1	45.6	11.3	5.0	0.0
전북	(21)	61.9	33.3	4.8	0.0	0.0
제주	(16)	81.3	0.0	0.0	0.0	18.8
충남	(23)	47.8	52.2	0.0	0.0	0.0

## ② 상수도 미설치 이유

대부분 어촌의 마을에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가 없거나 설치하는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50.3%로 나타났으며, 현재 마시는 식수로도 만족한다(24.9%)와 도서지역이라 물이 부족해서(11.4%)란 응답도 각각 10% 이상 나타났다.

암반관정 지하수를 이용하는 어촌은 상수도 공급관로가 없다는 비율이 80.8%로 높게 나타났고, 바닷물을 정화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이유는 도서지역 특성상 물이 부족(54.5%)하기 때문이었다.



| 그림 4-4 | 식수유형별 상수도 미설치 이유  
(상수도 이외의 식수 사용자, N=193, 단위 : %)

반면, 연륙도서와 연안촌락에는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가 없기 때문에 상수도가 아직 설치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육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도서 지역의 경우 상수도 관로가 없을(38.9%) 뿐만 아니라 도서지역이라 물이 부족(27.8%)해서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았다.

표 4-9 | 어촌유형별 식수유형별 상수도 미설치 이유  
(상수도 이외의 식수 사용자, N=193, 단위 : %)

구분	사례 수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료가 없다	현재 마시는 식수로도 만족한다	도서지역이라 물이 부족해서	상수도 설치비용이 부담된다	상수도 요금이 부담된다	현재 상수도 공사중
전체(193)	(193)	50.3	24.9	11.4	9.8	3.1	0.5
도서형(조건불리)	(154)	46.1	24.7	14.3	11.0	3.9	0.0
연륙도서	(8)	75.0	0.0	0.0	12.5	0.0	12.5
연안촌락	(31)	64.5	32.3	0.0	3.2	0.0	0.0

### ③ 식수 안전에 대한 의견

상수도 이외의 식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은 현재 마시는 식수에 대해 우려한다(62.2%)는 의견이 안전하다(37.8%)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아 식수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질오염(염분기 포함)이 항상 걱정된다는 경우가 28%, 상수도에 비해 안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신다는 의견이 19.2%, 가끔 불안할 때가 있다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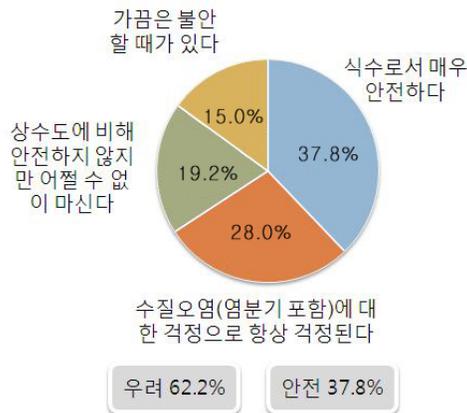


그림 4-5 | 식수 안전에 대한 의견 (상수도 이외의 식수 사용자, N=193, 단위 : %)

지표수를 이용한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식수 사용 유형보다 안전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암반관정 지하수(42.3%)와 수돗물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은 모두 수질오염(염분기 포함)에 대한 걱정으로 항상 걱정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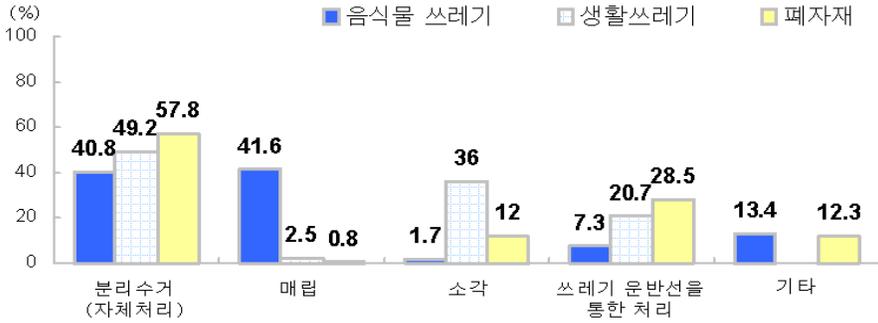
| 표 4-10 | 사용식수 유형별 식수 안전에 대한 의견  
(상수도 이외의 식수 사용자, N=193, 단위 : %)

사용식수 유형	사례 수	식수로서 매우 안전하다	수질오염(염분기 포함)에 대한 걱정으로 항상 걱정된다	상수도에 비해 안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신다	가끔은 불안할 때가 있다
지표수 이용 간이 상수도	(153)	41.8	24.2	19.0	15.0
암반관정 지하수	(26)	19.2	42.3	26.9	11.5
바닷물을 정화시켜 식수로 사용	(11)	36.4	27.3	9.1	27.3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생수구입	(3)	0.0	100.0	0.0	0.0

#### ④ 폐기물 처리방법

어촌지역에서는 대체로 분리수거(자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폐기물의 유형에 따라 처리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분리수거(자체처리)(40.8%)와 매립(41.6%)을 한다는 의견이 40%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자체처리)(49.2%), 소각(36%), 쓰레기 운반선을 통한 처리(2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폐자재는 분리수거(자체처리)(57.8%) 비율이 특히 높았고, 이어 쓰레기 운반선을 통한 처리(28.5%)가 높게 나타났다.



| 그림 4-6 | 폐기물별 처리방법 (복수응답, N=35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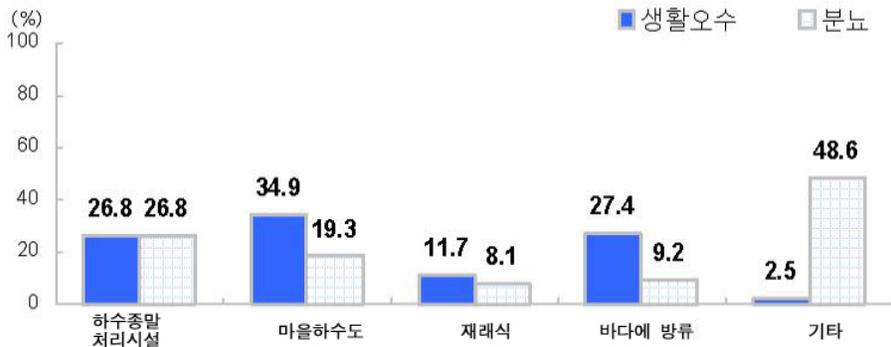
도시근교, 연륙도서, 연안촌락은 비중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분리수거(자체처리)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61.2%)을, 생활쓰레기는 소각(44.4%)과 쓰레기 운반선(41.6%)을 통해 처리하는 비율이 높았고, 폐자재는 쓰레기 운반선(56.7%)을 통해 처리하는 비율이 높았다.

| 표 4-11 | 어촌유형별 폐기물별 처리방법 (복수응답, N=358, 단위 : %)

구분	유형	사례 수	분리수거 (자체처리)	매립	소각	쓰레기 운반선을 통해 처리	기타
음식물쓰레기	전체	(358)	40.8	41.6	1.7	7.3	13.4
	도서형(조건불리)	(178)	11.8	61.2	2.8	14.6	13.5
	도시근교	(63)	90.5	7.9	0.0	0.0	9.5
	연륙도서	(24)	62.5	12.5	0.0	0.0	25.0
	연안촌락	(93)	57.0	34.4	1.1	0.0	12.9
생활쓰레기	전체	(358)	49.2	2.5	36.0	20.7	0.0
	도서형(조건불리)	(178)	19.7	2.8	44.4	41.6	0.0
	도시근교	(63)	92.1	0.0	11.1	0.0	0.0
	연륙도서	(24)	75.0	4.2	33.3	0.0	0.0
	연안촌락	(93)	69.9	3.2	37.6	0.0	0.0
폐자재	전체	(358)	57.8	0.8	12.0	28.5	12.3
	도서형(조건불리)	(178)	28.1	1.1	13.5	56.7	15.2
	도시근교	(63)	96.8	0.0	1.6	0.0	7.9
	연륙도서	(24)	87.5	0.0	8.3	0.0	12.5
	연안촌락	(93)	80.6	1.1	17.2	1.1	9.7

### ⑤ 오수분뇨 처리방법

생활오수는 마을하수도(34.9%)를 이용하여 처리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바다에 방류(27.4%)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26.8%)을 이용하여 처리한다는 응답도 20%대로 높게 나타났다. 분뇨의 경우에는 분뇨차 등을 이용한다는 기타 응답이 절반에 가까운 48.6%로 나타났고, 그 외 하수종말처리시설(26.8%), 마을하수도(19.3%)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 그림 4-7 | 오수분뇨 처리방법 (복수응답, N=358, 단위 : %)

어촌유형별로 생활오수와 분뇨 처리 방법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오수의 경우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은 바다에 방류하는 비율이 높고, 도시근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연륙도서는 마을하수도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비율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뇨의 경우에는 도시근교와 연안촌락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서형(조건불리) 지역과 연안촌락처럼 섬 지역은 분뇨차 등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도시근교는 생활오수와 분뇨 모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안에 위치한 연안촌락은 생활오수는 하수종말처리시설(40.9%) 또는 마을하수도(43%)를 통해 처리하였고,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시설(40.9%), 분뇨차 등 이용(38.7%), 마을하수도(25.8%) 등 다양한 처리방법을 이용하였다.

연륙도서는 생활오수는 마을하수도(62.5%)에 배출하는 비율이 높았고, 분뇨는 분뇨차 등을 이용하는 비율(79.2%)이 높았음. 그러나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경우 생활오수는 바다에 방류(44.9%)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고, 분뇨는 분뇨차 등을 이용(61.8%)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4-12 | 어촌유형별 오수분뇨별 처리방법 (복수응답, N=358, 단위 : %)

구분	유형	사례 수	하수종말 처리시설	마을 하수도	재래식	바다에 방류	기타
생활오수	전체	(358)	26.8	34.9	11.7	27.4	2.5
	도서형(조건불리)	(178)	6.2	30.3	19.1	44.9	2.2
	도시근교	(63)	69.8	25.4	3.2	0.0	1.6
	연륙도서	(24)	12.5	62.5	8.3	16.7	8.3
	연안촌락	(93)	40.9	43.0	4.3	15.1	2.2
분뇨	전체	(358)	26.8	19.3	8.1	9.2	48.6
	도서형(조건불리)	(178)	6.2	19.7	11.8	16.3	61.8
	도시근교	(63)	69.8	12.7	3.2	0.0	14.3
	연륙도서	(24)	12.5	8.3	8.3	0.0	79.2
	연안촌락	(93)	40.9	25.8	4.3	4.3	38.7

### ⑥ 전력공급 방법

어촌지역은 한전을 통한 전력공급(65.6%)이 가장 높았지만, 자가발전(디젤)(34.1%)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력, 조력 등)를 사용하는 경우는 0.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이 일반화되지 않고 시설 건립비용도 상당히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력공급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근교, 연륙도서, 연안촌락은 100% 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고 있었다. 그러나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주민은 30.9%만이 한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았고, 나머지 68.5%는 자가발전(디젤)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고 있었다.

| 표 4-13 | 어촌유형별 전력공급 방법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한전을 통한 전력공급	자가발전(디젤)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력, 조력 등)
전체	(358)	65.6	34.1	0.3
도서형(조건불리)	(178)	30.9	68.5	0.6
도시근교	(63)	100.0	0.0	0.0
연륙도서	(24)	100.0	0.0	0.0
연안촌락	(93)	100.0	0.0	0.0

도서형(조건불리) 어촌의 경우 육지에서 가까울수록 한전을 통한 전력 공급 비율이 높아지고,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가발전(디젤)을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육지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어촌은 한전을 통한 전력공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4 |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거주 주민의 육지에서의 거리별 전력공급 방법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한전을 통한 전력공급	자가발전(디젤)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력, 조력 등)
전체	(358)	65.6	34.1	0.3
0~30km미만	(49)	61.2	38.8	0.0
30~100km미만	(108)	23.1	75.9	0.9
100km 이상	(21)	0.0	100.0	0.0

### ⑦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어촌지역의 피해빈도는 평균 0.42회였으며, 이로 인한 어가의 피해규모는 평균 1,676만원으로 나타났다. 어촌유형별로는 연륙도서의 피해빈도가 가장 높았지만 피해규모는 오히려 연륙도서가 842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소규모 피해가 다른 입지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에 위치한

어촌의 경우 피해빈도는 0.42회로 평균 수준이었지만 피해금액은 2,305만원으로 피해규모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가까울수록 피해빈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금액도 육지에서 가까운 0~30km 사이에 위치한 어촌이 2,845만원으로 가장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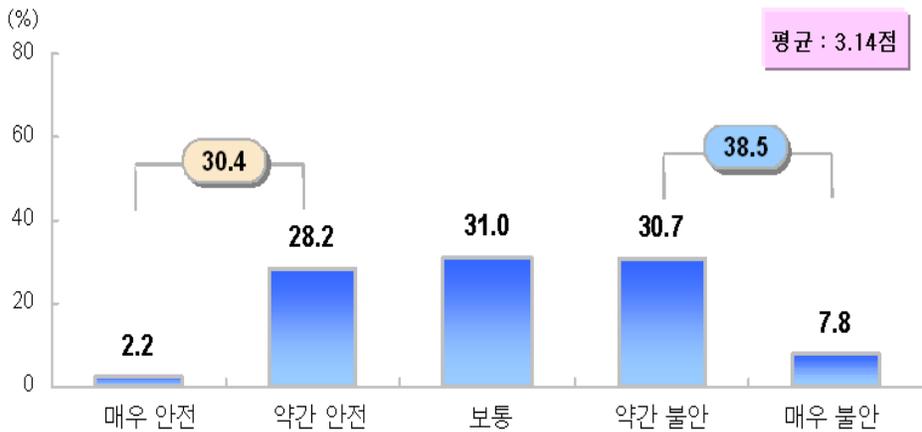
지역적으로는 전북(1.24회)과 충남(0.91회)의 피해빈도가 높았지만, 피해규모는 오히려 부산/경남/울산 지역이 평균 2,867만원으로 높았다.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경우 도시근교와 연안촌락의 비율이 높지만 굴 양식 등이 태풍, 적조, 수온상승에 따라 큰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4-15 |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구분		피해빈도		피해금액	
		사례 수	단위 : 회	사례 수	단위 : 만 원
전체		(358)	0.42	(66)	1,676
어촌유형	도서형(조건불리)	(178)	0.42	(29)	2,305
	도시근교	(63)	0.24	(9)	956
	연륙도서	(24)	0.96	(12)	842
	연안촌락	(93)	0.43	(16)	1,565
육지와와의 거리	0~30km미만	(49)	0.69	(10)	2,845
	30~100km미만	(108)	0.33	(18)	2,022
	100km 이상	(21)	0.19	(1)	2,000
지역	강원	(7)	0.14	(1)	1,000
	경기/인천	(63)	0.48	(11)	809
	부산/경남/울산	(54)	0.19	(6)	2,867
	경북	(14)	0.07	(1)	1,000
	전남	(160)	0.35	(30)	1,852
	전북	(21)	1.24	(5)	1,280
	제주	(16)	0.44	(4)	810
	충남	(23)	0.91	(8)	2,163

### ⑧ 어촌의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

어민들은 어촌의 안전 수준에 대해 안전하다는 의견과 보통 수준이라는 의견, 그리고 불안하다는 의견이 모두 30%대로 나타나 지역별, 입지유형별 특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3.14점의 보통 수준의 안전 만족도를 보인 가운데 불안하다는 의견이 38.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안전하다는 의견도 30.4%로 나타났다.



| 그림 4-8 | 어촌의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N=358, 단위 : %)

자연재해의 빈도와 피해규모가 큰 어촌에 거주하는 어민들은 안전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피해빈도가 가장 잦은 것으로 드러난 연륙도서 지역 어민들은 잦은 자연재해로 안전수준에 더욱 불안함(54.2%)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들도 불안함(44.4%)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피해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전남(45%)과 충남(65.2%) 지역 어민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 표 4-16 | 어민들이 느끼는 거주지역의 체감 안전수준 (N=35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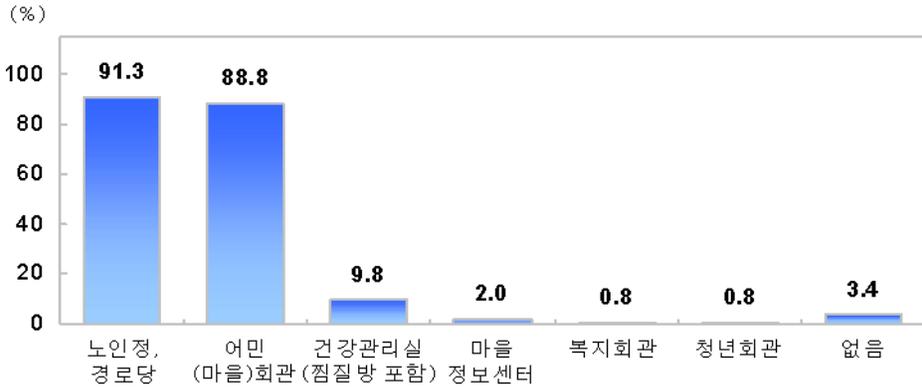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종합평가(3점)			체감 안전 수준					평균 (점)	
		안전	보통	불안	매우 안전	약간 안전	보통	약간 불안	매우 불안		
전체	(358)	30.4	31.0	38.5	2.2	28.2	31.0	30.7	7.8	3.14	
어촌유형	도서형 (조건불리)	(178)	29.2	26.4	44.4	2.8	26.4	26.4	33.1	11.2	3.24
	도시근교	(63)	39.7	39.7	20.6	1.6	38.1	39.7	19.0	1.6	2.81
	연륙도서	(24)	16.7	29.2	54.2	4.2	12.5	29.2	41.7	12.5	3.46
	연안촌락	(93)	30.1	34.4	35.5	1.1	29.0	34.4	31.2	4.3	3.09
지역	강원	(7)	57.1	42.9	0.0	14.3	42.9	42.9	0.0	0.0	2.29
	경기/인천	(63)	31.7	38.1	30.2	4.8	27.0	38.1	20.6	9.5	3.03
	부산/경남/울산	(54)	31.5	37.0	31.5	1.9	29.6	37.0	25.9	5.6	3.04
	경북	(14)	50.0	28.6	21.4	0.0	50.0	28.6	21.4	0.0	2.71
	전남	(160)	29.4	25.6	45.0	1.9	27.5	25.6	36.3	8.8	3.23
	전북	(21)	28.6	28.6	42.9	0.0	28.6	28.6	23.8	19.0	3.33
	제주	(16)	37.5	43.8	18.8	0.0	37.5	43.8	18.8	0.0	2.81
	충남	(23)	8.7	26.1	65.2	0.0	8.7	26.1	60.9	4.3	3.61

### ⑨ 마을 공동시설 유형

#### 가. 마을 공동시설 유무

대부분 어촌에는 마을 공동시설로 노인정(91.3%)과 어민(마을)회관(88.8%)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정,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 공동시설이 마을회관 내에 있는 경우는 37.2%였다.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은 어민(마을)회관이 있다는 비율(82%)이 다른 어촌의 입지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고, 강원(71.4%), 경기/인천(79.4%), 경북(78.6%)도 어민(마을)회관이 있다는 비율이 타 어촌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연륙도서는 건강관리실(41.7%)과 마을 정보센터(12.5%)가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 4-9 | 마을 공동시설 유형 (복수응답, N=358, 단위 : %)

나. 사용 공동시설 유무사용 마을 공동시설 이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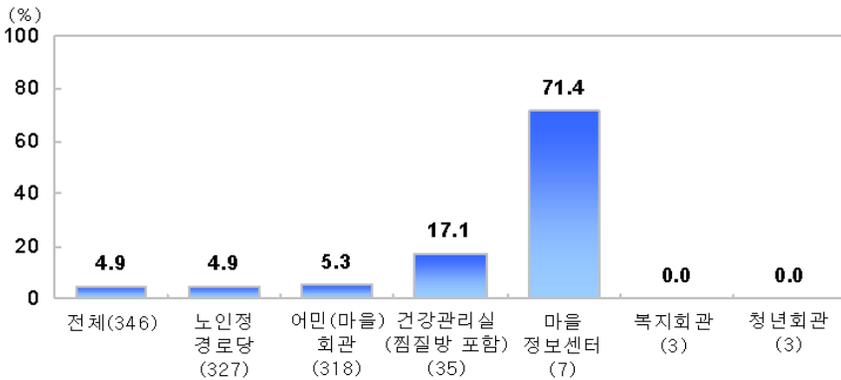
어민들의 절반 이상인 56.1%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마을 공동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33.2%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실이 있는 어촌에 거주하는 어민은 전체의 9.8%에 그쳤지만, 어민의 사용 빈도는 다른 공동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7 | 마을 공동시설별 이용 빈도 (N=346, 단위 : %)

구분	사례 수	거의 매일 이용한다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이용한다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1주일에 1회
전체	(346)	9.2	56.1	33.2	1.4
어민(마을)회관	(318)	9.1	57.5	31.8	1.6
노인정, 경로당	(327)	8.6	56.3	33.6	1.5
건강관리실 (찜질방 포함)	(35)	11.4	65.7	17.1	5.7
마을 정보센터	(7)	0.0	57.1	28.6	14.3
복지회관	(3)	0.0	66.7	33.3	0.0
청년회관	(3)	33.3	33.3	0.0	33.3

다. 사용 공동시설의 어민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여부

마을 공동시설에서 어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는 4.9%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건강관리실(17.1%)과 마을정보센터(71.4%)에서는 어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그림 4-10 | 마을 공동시설별 어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여부 (N=346, 단위 : %)

도시형(조건불리) 지역의 경우 마을 공동시설에 어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이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18 | 마을 공동시설의 어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여부 (N=346, 단위 : %)

구분		사례 수	그렇다	아니다
어촌유형	전체	(346)	4.9	95.1
	도시형(조건불리)	(166)	0.0	100.0
	도시근교	(63)	6.3	93.7
	연륙도서	(24)	20.8	79.2
	연안촌락	(93)	8.6	91.4
지역	강원	(7)	0.0	100.0
	경기/인천	(57)	10.5	89.5
	부산/경남/울산	(54)	0.0	100.0
	경북	(14)	0.0	100.0
	전남	(154)	5.2	94.8
	전북	(21)	0.0	100.0
	제주	(16)	18.8	81.3
	충남	(23)	0.0	100.0

### ⑩ 지원 필요 마을 공동시설

주민들은 마을 공동시설 운영이나 시설,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과 인프라 운영비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였으며, 마을 공동시설에 운영비, 연료비 등 지원(33.8%), 필요로 하는 시설의 증설이나 현대화(27.3%), 주민 스스로 취미,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비(26.3%)의 세가지 유형의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11 | 마을 공동시설에 필요한 지원 (복수응답, N=358, 단위 : %)

어촌의 마을 공동시설이 갖춰진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타 어촌 대비 마을 공동시설이 있는 비율이 약간 낮았던 도서어촌의 어민들은 운영비, 연료비 등 지원(34.3%) 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의 증설이나 현대화(33.1%)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타 어촌유형보다 마을 공동시설이 있는 비율이 높았던 연륙도서의 경우 시설 증대나 현대화보다는 운영비, 연료비 등의 지원(58.3%)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인프라 구축이 도서형과 연륙도서의 중간 수준에 있는 도시근교(30.2%)와 연안촌락(34.4%)은 주민들 스스로 취미, 여가활동이 가능한 장비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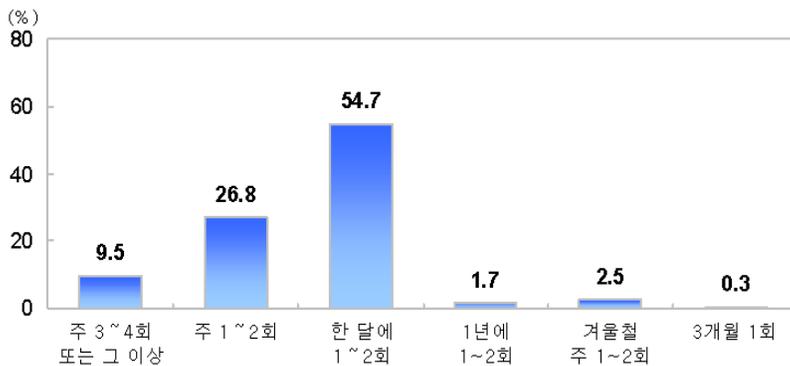
【 표 4-19 】 어촌유형별 마을 공동시설에 필요한 지원 (복수응답,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운영비, 연료비 등 지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의 증설이나 현대화	주민들 스스로 취미·여가 활동이 가능한 장비를 지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주민대상 교육, 학습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진행	젊은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 서비스 지원
전체	(358)	33.8	27.4	26.3	8.7	5.6	0.3	0.3
도서형 (조건불리)	(178)	34.3	33.1	21.9	9.0	3.4	0.6	0.6
도시근교	(63)	25.4	23.8	30.2	7.9	12.7	0.0	0.0
연륙도서	(24)	58.3	16.7	16.7	0.0	8.3	0.0	0.0
연안촌락	(93)	32.3	21.5	34.4	10.8	4.3	0.0	0.0

주 : 없음/잘모름 미제시

### ㉑ 정기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정 운영 빈도

주민들은 마을 공동시설에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한 달에 1~2회 정도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54.7%로 높게 나타났고, 보통 도시의 백화점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대비 약간 낮은 빈도이지만 어촌 주민의 생업에 투입하는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를 생각한다면 어민들에게 오히려 적절한 빈도로 보인다.



【 그림 4-12 】 마을 공동시설에서 정기 프로그램 운영 시 적정 운영 빈도 (N=358, 단위 : %)

### (3) 교통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 조사

#### ① 시·군청 소재지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어민들의 자택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소요되는 시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분에서 1~2시간까지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2시간에서 3시간 이상까지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48.6%)와 1시간 이상(51.4%)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서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 시 사람들이 1시간 이상 소요되면 멀다고 느낀다고 본다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51.4%는 시·군청 소재지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길다고 볼 수 있다.



| 그림 4-13 | 시·군청 소재지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N=358, 단위 : %)

도시형(조건불리) 지역의 어민들은 자택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 시 대부분 1시간 이상(90.4%)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 근처에 있는 도시근교(96.8%), 연안촌락(83.9%)은 대부분 1시간 이내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다리를 건너서 이동해야 하는 연륙도서(75%)도 1시간 이내로 소요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4-20 | 사군청 소재지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 시 소요시간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2 시간	2~3 시간	3시간 이상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전체		(358)	2.8	13.4	16.5	15.9	27.1	12.0	12.3	48.6	51.4
어촌 유형	도서형(조건불리)	(178)	0.6	2.2	2.2	4.5	42.7	23.0	24.7	9.6	90.4
	도시근교	(63)	12.7	34.9	20.6	28.6	3.2	0.0	0.0	96.8	3.2
	연륙도서	(24)	4.2	4.2	8.3	58.3	25.0	0.0	0.0	75.0	25.0
	연안촌락	(93)	0.0	22.6	43.0	18.3	14.0	2.2	0.0	83.9	16.1
지역	강원	(7)	28.6	42.9	28.6	0.0	0.0	0.0	0.0	100.0	0.0
	경기/인천	(63)	0.0	3.2	4.8	27.0	23.8	12.7	28.6	34.9	65.1
	부산/경남/울산	(54)	1.9	25.9	37.0	20.4	14.8	0.0	0.0	85.2	14.8
	경북	(14)	7.1	35.7	21.4	14.3	21.4	0.0	0.0	78.6	21.4
	전남	(160)	3.1	9.4	13.1	8.1	31.9	18.8	15.6	33.8	66.3
	전북	(21)	4.8	9.5	9.5	9.5	42.9	19.0	4.8	33.3	66.7
	제주	(16)	0.0	12.5	6.3	43.8	31.3	6.3	0.0	62.5	37.5
	충남	(23)	0.0	21.7	30.4	21.7	26.1	0.0	0.0	73.9	26.1

### ② 사군청 소재지 외출 시 사용 교통수단

어민들은 자택에서 시·군청 소재지까지 외출 시 주로 배와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12%에 그쳤다. 향후 승용차, 승합차 등의 자가용을 지금보다 더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배(30.2%)와 버스(14.8%)도 지금보다는 더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4 | 사군청 소재지 외출 시 이용 교통수단 및 이용의향 교통수단 (복수응답, N=358, 단위 : %)

도서(조건불리) 지역 어민들은 대부분 배(97.8%)를 이용하여 시·군청 소재지까지 외출 시 이용하였고, 나머지 지역 어촌은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상대적으로 젊은 20~39세 어민들은 자가용(57.4%)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60세 이상은 버스(19.5%)를 이용하는 비율이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경기/인천, 전남, 전북은 배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은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 표 4-21 | 시·군청 소재지 외출 시 이용 교통수단 (복수응답,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배(어선, 도선, 차도선, 여객선 등)	자가용 (승용차, 승합차 등)	버스(일반 대중교통)	도보	오토바이	택시	공공기관 제공 순환버스, 차량	
전체	(358)	51.4	43.0	12.0	0.8	0.6	0.6	0.6	
어촌유형	도서형 (조건불리)	(178)	97.8	6.2	5.6	1.7	0.6	0.0	0.6
	도시근교	(63)	0.0	76.2	23.8	0.0	0.0	0.0	0.0
	연륙도서	(24)	0.0	87.5	12.5	0.0	0.0	0.0	0.0
	연안촌락	(93)	10.8	79.6	16.1	0.0	1.1	2.2	1.1
연령	20~39세	(101)	47.5	57.4	5.9	0.0	0.0	1.0	0.0
	40~59세	(139)	52.5	43.9	10.1	1.4	0.7	0.0	0.0
	60세 이상	(118)	53.4	29.7	19.5	0.8	0.8	0.8	1.7
지역	강원	(7)	0.0	100.0	0.0	0.0	0.0	0.0	0.0
	경기/인천	(63)	68.3	34.9	7.9	1.6	0.0	0.0	0.0
	부산/경남 /울산	(54)	20.4	55.6	20.4	0.0	1.9	1.9	0.0
	경북	(14)	0.0	57.1	35.7	0.0	7.1	7.1	0.0
	전남	(160)	66.9	33.8	10.6	1.3	0.0	0.0	1.3
	전북	(21)	57.1	42.9	4.8	0.0	0.0	0.0	0.0
	제주	(16)	18.8	75.0	6.3	0.0	0.0	0.0	0.0
	충남	(23)	34.8	52.2	13.0	0.0	0.0	0.0	0.0

도서(조건불리) 지역 어민들은 대부분 배(60.1%)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 어촌은 자가용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연령대별로 상대적으로 젊은 20~39세 어민들은 자가용(68.3%)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60세 이상은 배(35.6%)와 버스(26.3%)를 더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경기/인천, 전남, 전북은 배를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었고, 나머지 지역은 자가용을 더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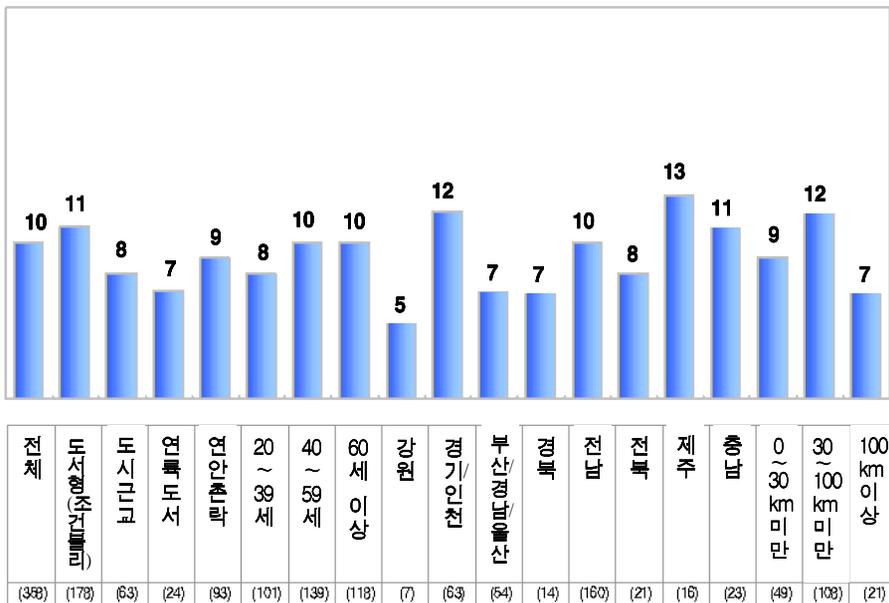
표 4-22 | 사군청 소재지 외출 시 향후 더 많이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교통수단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배(어선, 도선, 차도선, 여객선 등)	자가용(승용차, 승합차 등)	버스(일반 대중교통)	도보	오토바이	택시	공공기관 제공 순환버스, 차량	
전체	(358)	30.2	53.1	14.8	0.3	0.3	0.3	1.1	
어촌유형	도서형(조건불리)	(178)	60.1	23.0	14.0	0.6	0.6	0.0	1.7
	도시근교	(63)	0.0	82.5	17.5	0.0	0.0	0.0	0.0
	연륙도서	(24)	0.0	83.3	16.7	0.0	0.0	0.0	0.0
	연안촌락	(93)	1.1	82.8	14.0	0.0	0.0	1.1	1.1
연령	20~39세	(101)	25.7	68.3	5.0	0.0	0.0	0.0	1.0
	40~59세	(139)	28.8	55.4	12.2	0.7	0.0	0.7	2.2
	60세 이상	(118)	35.6	37.3	26.3	0.0	0.8	0.0	0.0
지역	강원	(7)	0.0	100.0	0.0	0.0	0.0	0.0	0.0
	경기/인천	(63)	36.5	44.4	17.5	0.0	0.0	0.0	1.6
	부산/경남/울산	(54)	11.1	66.7	18.5	0.0	0.0	1.9	1.9
	경북	(14)	0.0	64.3	28.6	0.0	7.1	0.0	0.0
	전남	(160)	38.1	46.9	13.8	0.6	0.0	0.0	0.6
	전북	(21)	52.4	38.1	9.5	0.0	0.0	0.0	0.0
	제주	(16)	6.3	87.5	6.3	0.0	0.0	0.0	0.0
	충남	(23)	26.1	56.5	13.0	0.0	0.0	0.0	4.3

### ③ 자택에서 정류장, 선착장까지 소요시간

어민들이 자택에서 버스나 배를 타기 위해 정류장 또는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평균 1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주민들은 육지나 시·군청소재지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타 어촌유형보다 멀지만 정류장 또는 선착장까지의 접근성도 타 어촌유형 대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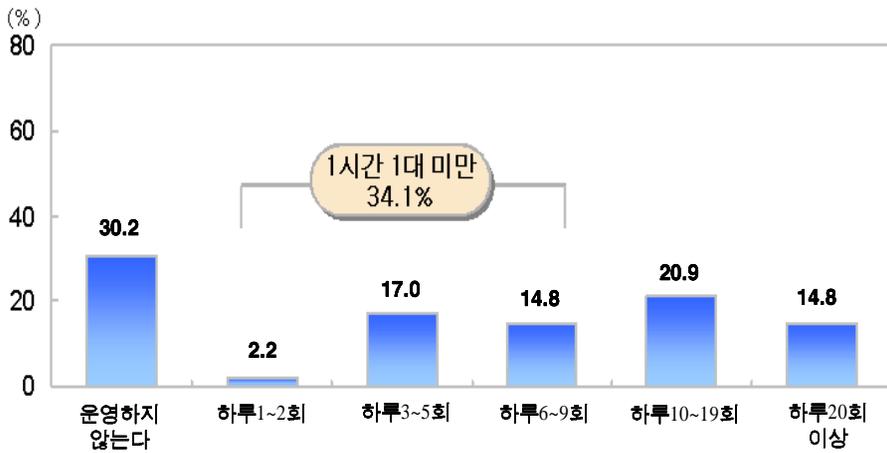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주민들은 정류장 또는 선착장까지 이동시간이 평균 11분이 소요된 반면, 도시근교, 연륙도서, 연안촌락은 10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및 경상지역 어민의 정류장 및 선착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경기/인천과 전남 지역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15 | 자택에서 정류장, 선착장까지 소요시간 (N=358, 단위 : 분)

#### ④ 버스 주행 빈도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2%로 나타났으며,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는 1일 평균 10~19회 정도 버스가 운행한다는 비율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루 20회 이상의 비율도 14.8%로 나타났으나, 1시간에 1대 미만으로 버스가 운행된다는 응답도 34.1%로 어민들이 여전히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16 ]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의 버스 주행 빈도 (N=358, 단위 : %)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에는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6%로 높게 나타났고, 도시근교에는 버스가 가장 자주 운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안촌락, 연륙도서, 조건불리 지역 순으로 버스 운행 빈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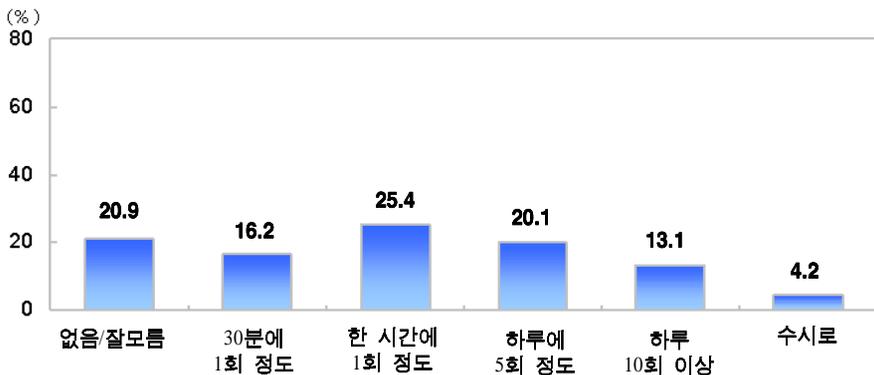
강원, 부산/경남/울산, 경북, 제주 지역은 1일 10회 이상 버스가 운행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버스 이용이 편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남 지역은 버스 운행 빈도가 가장 낮아 타 지역보다 주민이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표 4-23 |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의 버스 주행 빈도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하루 1~2회	하루 3~5회	하루 6~9회	하루 10~19회	하루 20회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1일 10회 미만	1일 10회 이상	
전체	(358)	2.2	17.0	14.8	20.9	14.8	30.2	34.1	35.8	
어촌유형	도서형 (조건불리)	(178)	3.4	21.9	8.4	6.7	0.0	59.6	33.7	6.7
	도시근교	(63)	0.0	6.3	0.0	39.7	54.0	0.0	6.3	93.7
	연륙도서	(24)	0.0	8.3	37.5	41.7	4.2	8.3	45.8	45.8
	연안촌락	(93)	2.2	17.2	31.2	30.1	19.4	0.0	50.5	49.5
지역	강원	(7)	0.0	0.0	0.0	85.7	14.3	0.0	0.0	100.0
	경기/인천	(63)	0.0	4.8	14.3	30.2	3.2	47.6	19.0	33.3
	부산/경남/울산	(54)	3.7	5.6	14.8	27.8	31.5	16.7	24.1	59.3
	경북	(14)	0.0	21.4	14.3	35.7	28.6	0.0	35.7	64.3
	전남	(160)	3.8	26.3	16.3	10.6	9.4	33.8	46.3	20.0
	전북	(21)	0.0	19.0	9.5	23.8	0.0	47.6	28.6	23.8
	제주	(16)	0.0	0.0	18.8	31.3	50.0	0.0	18.8	81.3
	충남	(23)	0.0	26.1	13.0	13.0	26.1	21.7	39.1	39.1

### ⑤ 희망 버스 운행 시간 간격

어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이 없으려면 최소한 버스가 한 시간에 1회 정도(25.4%)는 운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그 외 하루에 5회 정도(20.1%), 30분에 1회 정도(16.2%), 하루 10회 이상(13.1%)의 버스 운행이 적당하다는 의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그림 4-17 | 희망 버스 운행 시간 간격 (N=35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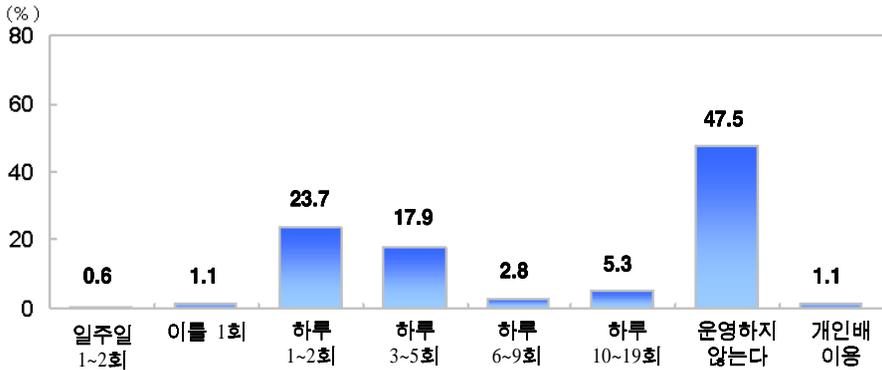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들(32.6%)과 전남 지역 어민들(30.6%)의 30% 이상은 하루 5회 정도라도 버스를 운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여 특히 버스 운행 상황이 열악함을 엿볼 수 있었다.

【 표 4-24 】 희망 버스 운행 시간 간격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30분에 1회 정도	한 시간에 1회 정도	하루에 5회 정도	하루 10회 이상	수시로	없음 /잘모름
전체		(358)	16.2	25.4	20.1	13.1	4.2	20.9
어촌 유형	도서형(조건불리)	(178)	5.1	18.5	32.6	0.0	1.7	42.1
	도시근교	(63)	31.7	7.9	4.8	42.9	12.7	0.0
	연륙도서	(24)	33.3	62.5	0.0	4.2	0.0	0.0
	연안촌락	(93)	22.6	40.9	11.8	20.4	4.3	0.0
지역	강원	(7)	28.6	0.0	0.0	57.1	14.3	0.0
	경기/인천	(63)	14.3	27.0	19.0	1.6	4.8	33.3
	부산/경남/울산	(54)	25.9	20.4	5.6	33.3	1.9	13.0
	경북	(14)	28.6	28.6	7.1	21.4	14.3	0.0
	전남	(160)	12.5	23.1	30.6	7.5	3.1	23.1
	전북	(21)	0.0	42.9	9.5	4.8	9.5	33.3
	제주	(16)	37.5	31.3	6.3	25.0	0.0	0.0
	충남	(23)	13.0	34.8	17.4	17.4	4.3	13.0

### ⑥ 배 운항 빈도

어촌지역에서 배가 운항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47.5%로 나타났으며, 거주하는 도서에서 읍면(시군) 소재지까지 하루 1~2회 배가 운항한다는 비율이 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하루 3~5회(17.3%), 하루 10~19회(5.3%), 하루 6~9회(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그림 4-18 | 읍면(시군) 소재지까지 1일 배 운항 빈도(N=35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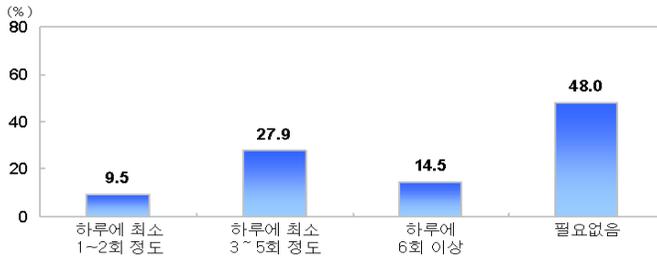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경우 1일 배 운항 횟수가 2회 이하인 비율이 응답자의 절반인 50%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육지와 이격된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운항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도서형(조건불리) 어촌의 비율이 높은 경기/인천과 전북의 운항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5 | 읍면(시군) 소재지까지 1일 배 운항 빈도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일주일 1~2회	이틀 1회	하루 1~2회	하루 3~5회	하루 6~9회	하루 10회~19회	운영하지 않는다	개인배 이용	1일 2회 이하	
전체	(358)	0.6	1.1	23.7	17.9	2.8	5.3	47.5	1.1	25.4	
어촌 유형	도서형 (조건불리)	(178)	1.1	2.2	46.6	36.0	5.6	5.1	1.1	2.2	50.0
	도시근교	(63)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연륙도서	(24)	0.0	0.0	8.3	0.0	0.0	0.0	91.7	0.0	8.3
	연안촌락	(93)	0.0	0.0	0.0	0.0	0.0	10.8	89.2	0.0	0.0
지역	강원	(7)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경기/인천	(63)	0.0	0.0	50.8	12.7	0.0	4.8	31.7	0.0	50.8
	부산/경남/울산	(54)	0.0	0.0	0.0	16.7	0.0	3.7	79.6	0.0	0.0
	경북	(14)	0.0	0.0	0.0	0.0	0.0	14.3	85.7	0.0	0.0
	전남	(160)	0.6	2.5	25.6	25.6	3.8	7.5	33.1	1.3	28.8
	전북	(21)	4.8	0.0	42.9	0.0	19.0	0.0	33.3	0.0	47.6
	제주	(16)	0.0	0.0	18.8	0.0	0.0	0.0	81.3	0.0	18.8
	충남	(23)	0.0	0.0	0.0	26.1	0.0	0.0	65.2	8.7	0.0
육지와 의 거리	0~30km 미만	(49)	0.0	0.0	18.4	38.8	20.4	14.3	4.1	4.1	18.4
	30~100km 미만	(108)	1.9	3.7	60.2	32.4	0.0	0.0	0.0	1.9	65.7
	100km 이상	(21)	0.0	0.0	42.9	47.6	0.0	9.5	0.0	0.0	42.9

### ⑦ 희망 배 운항 빈도

어민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이 없으려면 최소한 배가 하루 최소 3~5회는 운항되길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하루 최소 1~2회라도 배가 운항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9.5%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19 | 희망 배 운항 빈도 (N=358, 단위 : %)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들은 하루에 최소 1~2회 정도라도 배가 운항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9.1%로 나타났고, 특히 육지와 이격된 거리가 30km 이상인 도서형 지역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비율이 높은 경기/인천(23.8%) 지역도 1일 배 운항 빈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26 | 희망 1일 배 운항 빈도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하루에 최소 1~2회 정도	하루에 최소 3~5회 정도	하루에 6회 이상	필요 없음
전체		(358)	9.5	27.9	14.5	48.0
어촌 유형	도서형(조건불리)	(178)	19.1	56.2	23.6	1.1
	도시근교	(63)	0.0	0.0	0.0	100.0
	연륙도서	(24)	0.0	0.0	0.0	100.0
	연안촌락	(93)	0.0	0.0	10.8	89.2
지역	강원	(7)	0.0	0.0	0.0	100.0
	경기/인천	(63)	23.8	38.1	6.3	31.7
	부산/경남/울산	(54)	0.0	11.1	9.3	79.6
	경북	(14)	0.0	14.3	0.0	85.7

【 표 4-26 】 희망 1일 배 운항 빈도 (N=358, 단위 : %)(계속)

구분		사례 수	하루에 최소 1~2회 정도	하루에 최소 3~5회 정도	하루에 6회 이상	필요 없음
지역	전남	(160)	8.8	36.3	21.9	33.1
	전북	(21)	9.5	19.0	28.6	42.9
	제주	(16)	6.3	12.5	0.0	81.3
	충남	(23)	8.7	17.4	8.7	65.2
육지 와의 거리	0~30km미만	(49)	6.1	36.7	53.1	4.1
	30~100km미만	(108)	24.1	62.0	13.9	0.0
	100km 이상	(21)	23.8	71.4	4.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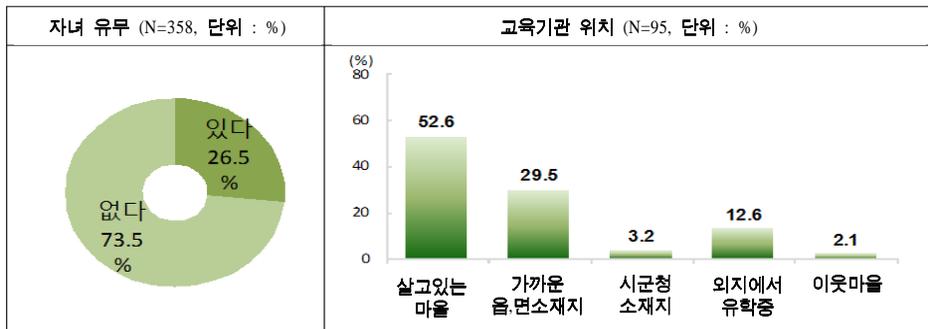
#### (4) 교육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 조사

##### ① 자녀의 교육 기관 이용실태

###### 가. 유아, 초등학교 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26.5%였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살고 있는 마을에 있는 비율과 마을 이외 지역에 있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아, 초등학교의 소재가 살고 있는 마을(52.6%)에 위치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까운 읍면소재지(29.5%), 외지에서 유학중(12.6%)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4-20 】 유아, 초등 자녀학생 유무 및 교육기관 위치

도시근교(76.5%)와 연륙도서(83.3%)는 살고 있는 마을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비율이 특히 높은 반면,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의 자녀는 살고 있는 마을(46.8%) 이외에 가까운 읍·면 소재지(27.7%)와 타 시군에서 유학중(23.4%)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안촌락에 거주하는 어민의 유아, 초등학생 자녀는 가까운 읍·면 소재지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비율이 높았다.

표 4-27 | 유아, 초등학생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 위치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읍·면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외지에서 유학중	이웃 마을
전체	(95)	52.6	29.5	3.2	12.6	2.1
도서형(조건불리)	(47)	46.8	27.7	2.1	23.4	0.0
도시근교	(17)	76.5	17.6	0.0	0.0	5.9
연륙도서	(6)	83.3	16.7	0.0	0.0	0.0
연안촌락	(25)	40.0	44.0	8.0	4.0	4.0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보육 및 교육기관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자동차(50.5%)와 도보(49.5%)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교육기관까지의 소요시간은 이동방법에 상관없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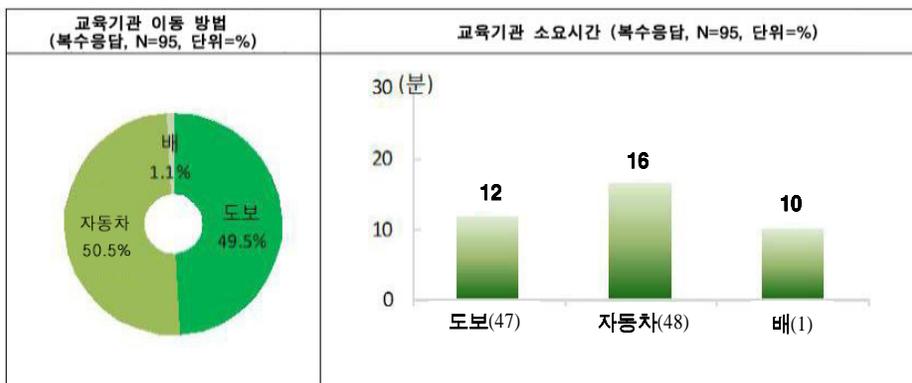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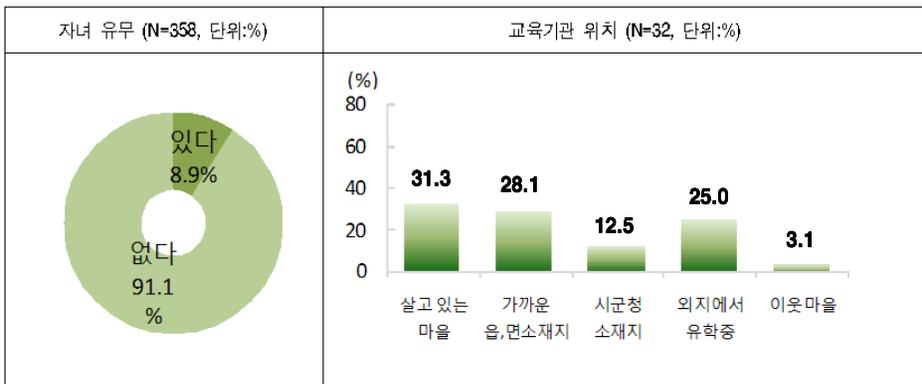


그림 4-21 | 유아, 초등 자녀의 통학 교육기관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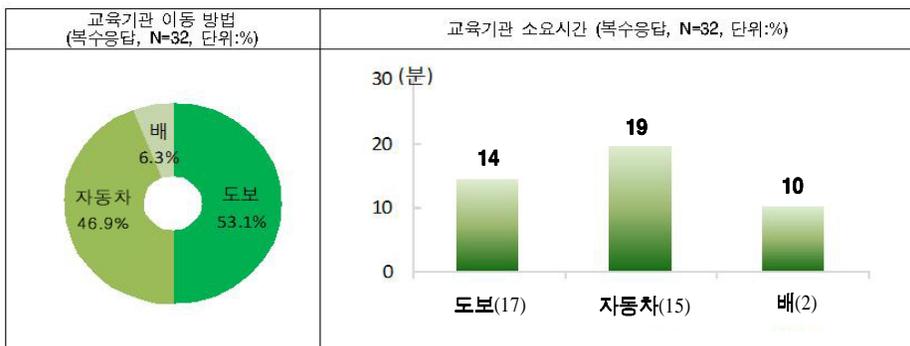
### 나. 중학생 자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8.9%였고,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는 마을 이외 지역(68.8%)에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의 위치는 살고 있는 마을(31.3%), 가까운 읍면 소재지(28.1%), 외지에서 유학 중(25.0%)이라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그림 4-22 | 중학생 자녀 유무 및 교육 기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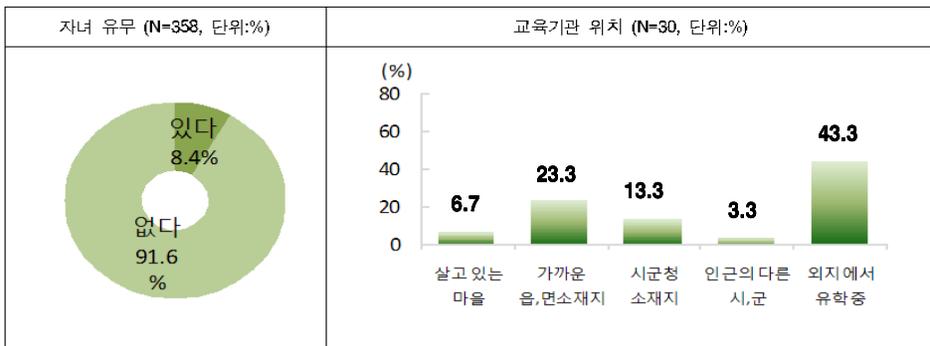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교육기관까지 이동하는 방법은 자동차(53.1%), 도보(46.9%)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기관까지의 소요시간은 이동방법에 상관없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23 | 중학생 자녀의 통학 교육기관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다.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8.4%였고,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대부분 마을 이외 지역(93.3%)에 위치하여 고등학생 자녀는 외지에서 유학 중(43.3%)인 비율이 높았으며, 고등학교의 위치는 외지에서 유학 중(43.3%), 가까운 읍면 소재지(23.3%), 시군청 소재지(1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그림 4-24 | 고등학생 자녀 유무 및 교육 기관 위치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기관까지 이동수단은 자동차(70%)가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가 약 30분, 배로 이동할 경우는 약 35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25 | 고등학생 자녀의 통학 교육기관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 ②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통학 시 문제점

어민들은 어촌지역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다닐 때 학생 수가 적어 폐교나 폐원(36.9%) 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통학거리가 너무 먼 점(31.6%)에 대해서도 30% 이상의 어민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교육의 질이 낮다(21.8%)는 점에 대한 우려도 20%대로 높게 나타났다.



| 그림 4-26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통학 시 문제점 (복수응답, N=358, 단위 : %)

어촌의 입지유형에 따라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다닐 때의 문제점으로 여기는 의견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경우 학생 수가 적어 폐교나 폐원(46.1%)되는 것과 통학 거리가 멀다(37.6%)는 아주 기초적인 사항을 가장 문제시하는 데 비해 그 외 어촌 지역은 폐교, 통학거리 외에도 다른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에 대한 어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서형과 기타 어촌유형에 대한 해결방안이 달라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도시근교와 연안촌락은 시설, 교육자재와 특성화교육 부족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연륙도서의 경우 통학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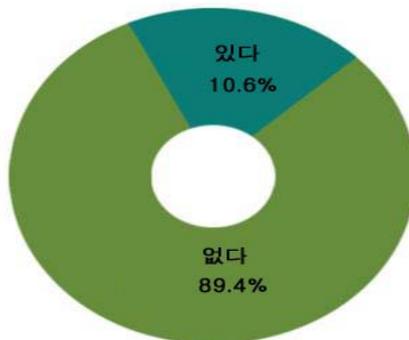
【 표 4-28 】 유지원, 어린이집, 학교 통학 시 문제점 (복수응답,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학생 수가 적어 폐교(원)	통학 거리가 너무 멀다	교육의 질이 낮다	시설이나 교육자재가 좋지 않거나 부족하다	특성화 교육이 부족하다	통학을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이 없다	교사가 부족하다
전체	(358)	36.9	31.6	21.8	16.2	15.4	15.6	3.4
도서형 (조건불리)	(178)	46.1	37.6	20.8	11.8	7.3	18.5	4.5
도시근교	(63)	19.0	17.5	22.2	22.2	30.2	7.9	1.6
연륙도서	(24)	20.8	33.3	8.3	12.5	12.5	20.8	4.2
연안촌락	(93)	35.5	29.0	26.9	21.5	21.5	14.0	2.2

### ③ 평생교육, 성인교육

#### 가.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성인교육 경험

어민 중 10.6%만이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성인교육 등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인 89.4%는 평생교육, 성인교육의 경험이 없었다. 도시근교와 연안촌락 어민의 평생교육, 성인교육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륙도서(8.3%)와 도서형(조건불리)(2.8%) 지역 어민의 평생교육, 성인교육 경험은 10%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지와 30km 이상 먼 곳에 위치한 도서형 어민의 경우 99% 이상이 평생교육 경험이 없었다.



【 그림 4-27 】 지난 1년간 평생교육, 성인교육 경험(N=358, 단위 : %)

### 나. 수강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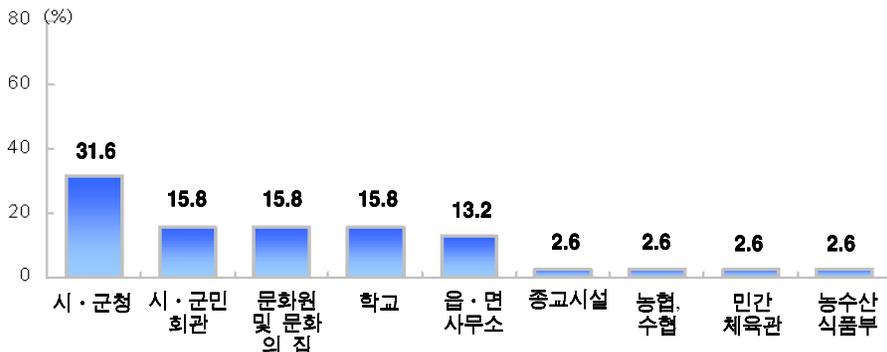
평생교육, 성인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어민들은 그 외 강사 초빙 강의, 교육(39.5%)과 춤, 요가, 건강관리 프로그램(28.9%)을 주로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28 | 수강 평생교육, 성인교육 프로그램(복수응답, N=38, 단위 : %)

### 다. 평생교육, 성인교육 프로그램 진행 기관

어민들은 시·군청(31.6%)에서 진행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시·군민 회관, 문화원 및 문화의 집, 학교, 읍·면 사무소에서도 어민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29 | 평생교육, 성인교육 프로그램 진행 기관(복수응답, N=38, 단위 : %)

라. 수강 평생교육, 성인교육 프로그램 진행 기관의 위치

평생교육,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던 어민들은 상당수가 살고 있는 마을 이외의 지역까지 가서 교육을 수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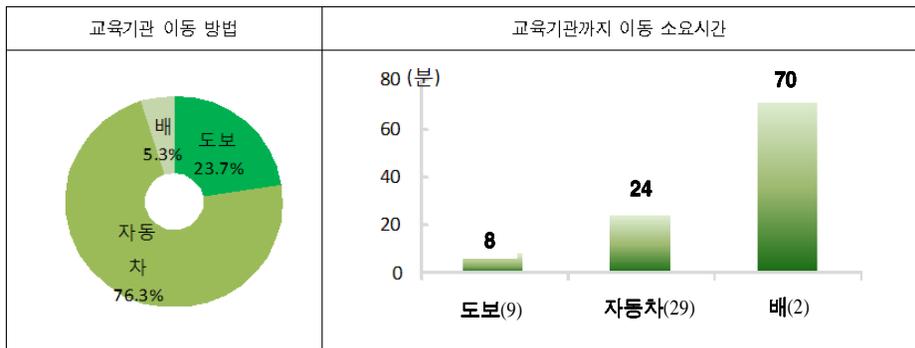
어민들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기 위해 가까운 읍·면 소재지 (34.2%)나 시군청 소재지(34.2%)까지 왕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살고 있는 마을 내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비율은 23.7%로 나타났다.



[그림 4-30] 평생교육, 성인교육기관 위치 (N=38, 단위 : %)

마. 평생교육, 성인교육 프로그램 진행 기관까지의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평생교육, 성인교육 프로그램 수강했던 어민들의 대부분 자동차(76.3%)로 교육기관까지 이동했으며, 교육기관까지는 자동차로는 24분, 배로는 70분까지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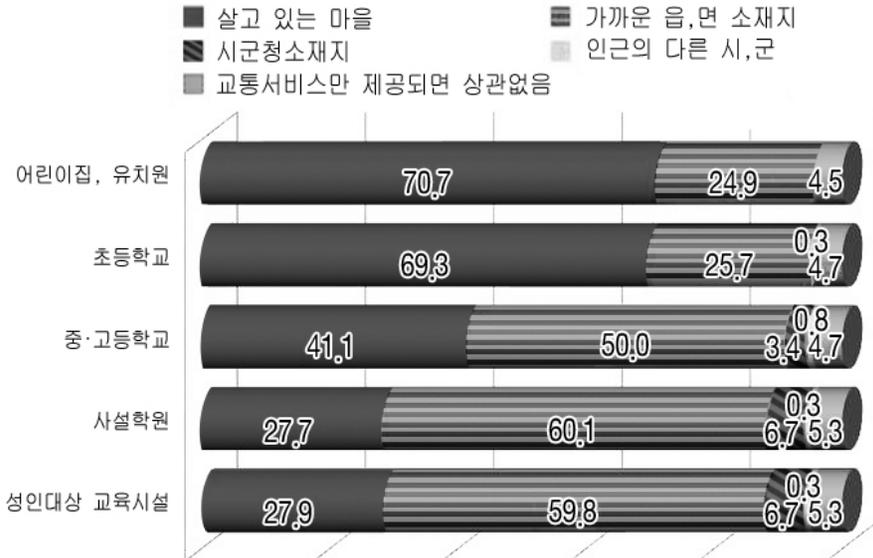
[그림 4-31] 평생 교육기관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복수응답, N=38, 단위 : %)

#### ④ 교육기관시설의 적정 범위

어민들은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은 가급적 살고 있는 마을 내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겼으며, 중·고등학교, 사설학원, 성인대상 교육기관은 가까운 읍면소재지 내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민들은 다른 시·군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 교육기관이 위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70.7%)과 초등학교(69.3%)는 살고 있는 마을에 위치하는 것을 적당하다고 생각하였고, 가까운 읍·면 소재지로 적정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생각하는 비율도 20% 대로 나타났다.

중고등 교육기관의 위치는 살고 있는 마을(41.1%)을 벗어나 가까운 읍·면 소재지(50%)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사설학원과 성인대상 교육시설의 위치도 가까운 읍·면 소재지까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4-32] | 교육기관·시설의 적정 위치 (N=358, 단위 : %)

도시근교와 연륙도서 어민들은 정규교육과정은 살고 있는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고, 사설학원과 성인교육시설은 가까운 읍·면소재지 내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들은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은 살고 있는 마을에 위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했으며, 중고등학교는 마을 내와 가까운 읍면소재지도 적정하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설학원, 성인교육 기관은 가까운 읍면소재지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촌락 어민들은 초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은 살고 있는 마을 내에 위치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중고등학교, 사설학원, 성인대상 교육시설은 가까운 읍·면소재지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연안촌락은 읍·면소재지가 상대적으로 가깝고, 교통편도 편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4-29 | 교육기관·시설의 적정 위치 (N=35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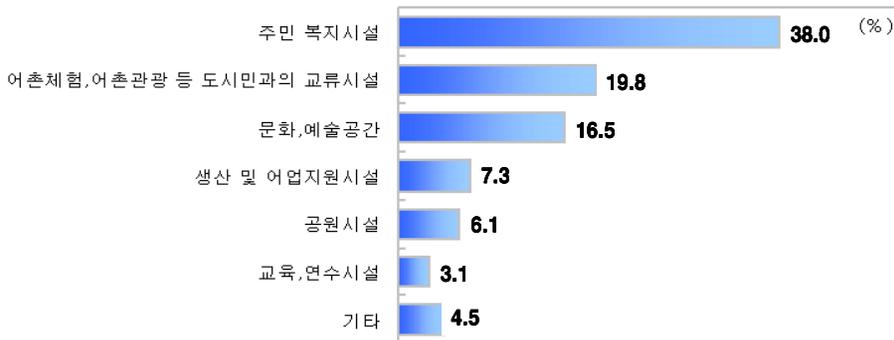
구분	유형	사례 수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읍·면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인근의 다른 시,군	교통서비스만 제공되면 상관없음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	(358)	70.7	24.9	0.0	0.0	4.5
	도서형(조건불리)	(178)	73.6	19.1	0.0	0.0	7.3
	도시근교	(63)	81.0	19.0	0.0	0.0	0.0
	연륙도서	(24)	79.2	20.8	0.0	0.0	0.0
	연안촌락	(93)	55.9	40.9	0.0	0.0	3.2
초등학교	전체	(358)	69.3	25.7	0.0	0.3	4.7
	도서형(조건불리)	(178)	71.3	20.8	0.0	0.6	7.3
	도시근교	(63)	79.4	20.6	0.0	0.0	0.0
	연륙도서	(24)	83.3	16.7	0.0	0.0	0.0
	연안촌락	(93)	54.8	40.9	0.0	0.0	4.3
중,고등학교	전체	(358)	41.1	50.0	3.4	0.8	4.7
	도서형(조건불리)	(178)	41.6	47.2	2.2	1.7	7.3
	도시근교	(63)	52.4	46.0	1.6	0.0	0.0
	연륙도서	(24)	50.0	41.7	8.3	0.0	0.0
	연안촌락	(93)	30.1	60.2	5.4	0.0	4.3

| 표 4-29 | 교육기관·시설의 적정 위치 (N=358, 단위 : %)(계속)

구분	유형	사례 수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읍·면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인근의 다른 시,군	교통서비스만 제공되면 상관없음
사설학원	전체	(358)	27.7	60.1	6.7	0.3	5.3
	도서형(조건불리)	(178)	23.6	55.6	11.2	0.6	9.0
	도시근교	(63)	44.4	54.0	1.6	0.0	0.0
	연륙도서	(24)	33.3	66.7	0.0	0.0	0.0
	연안촌락	(93)	22.6	71.0	3.2	0.0	3.2
성인대상 교육시설	전체	(358)	27.9	59.8	6.7	0.3	5.3
	도서형(조건불리)	(178)	28.1	55.6	9.0	0.6	6.7
	도시근교	(63)	38.1	57.1	4.8	0.0	0.0
	연륙도서	(24)	25.0	54.2	4.2	0.0	16.7
	연안촌락	(93)	21.5	71.0	4.3	0.0	3.2

### ⑤ 폐교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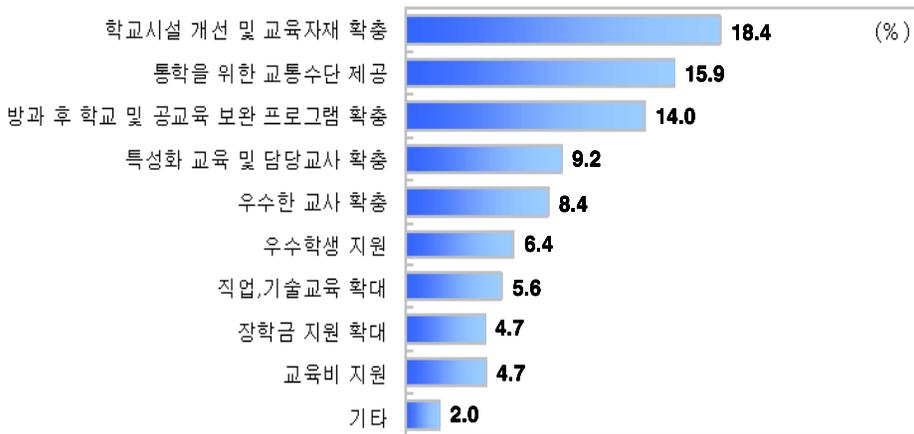
어민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촌마을을 고려할 때 폐교를 주민복지 시설(38%)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폐교의 어촌체험, 어촌관광 등 도시민과의 교류시설(19.8%)과 문화·예술공간(16.5%)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10% 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촌락은 폐교를 주민복지시설(46.2%)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 그림 4-33 | 폐교 활용방안 (N=358, 단위 : %)

### ⑥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확충·개선 사항

어촌마을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에서 물적, 인적 자원의 확충 및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적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자재 확충(18.4%)과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15.9%)이 필요하였고, 인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특성화 교육 및 담당교사 확충(9.2%)과 우수한 교사 확충(8.4%)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 후 학교 및 공교육 보안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14%로 나타났다.



| 그림 4-34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시급히 확충·개선해야 할 사항 (N=358, 단위 : %)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수단 확충(21.9%)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시근교 어민들은 시설과 교통수단 제공 같은 기본적 사항보다 더 나아가 방과 후 학교 및 공교육보안 프로그램과 특성화 교육 확충과 담당교사 확충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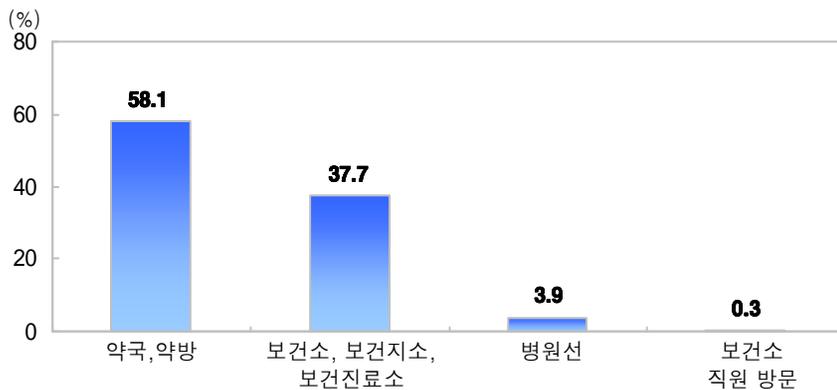
| 표 4-30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시급히 확충·개선해야 할 사항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자재 확충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방과 후 학교 및 공교육 보완 프로그램 확충	특성화 교육 및 담당교사 확충	우수한 교사 확충	우수 학생 지원	직업, 기술 교육 확대	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비 지원
전체	(358)	18.4	15.9	14.0	9.2	8.4	6.4	5.6	4.7	4.7
도서형(조건불리)	(178)	18.5	21.9	9.6	5.1	3.9	6.2	4.5	7.9	7.3
도시근교	(63)	12.7	4.8	22.2	19.0	12.7	7.9	4.8	1.6	3.2
연륙도서	(24)	25.0	16.7	16.7	0.0	12.5	0.0	12.5	0.0	4.2
연안촌락	(93)	20.4	11.8	16.1	12.9	12.9	7.5	6.5	2.2	1.1

### (5) 의료 서비스 이용실태와 수요 조사

#### ① 의약품 구입처

어민들은 일반 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을 약국, 약방(58.1%)을 이용해서 구입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와 함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37.7%)를 통한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그림 4-35 | 의약품 구입처 (N=358, 단위 : %)

도시근교(98.4%)와 연안촌락(82.8%) 어민의 경우 대부분 약국, 약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약국이나 약방의 근접성이 떨어지는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61.2%)가 어민의 의약품 구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 어촌유형별 의약품 구입처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약국, 약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선	보건소직원 방문
전체	(358)	58.1	37.7	3.9	0.3
도서형(조건불리)	(178)	30.3	61.2	7.9	0.6
도시근교	(63)	98.4	1.6	0.0	0.0
연륙도서	(24)	62.5	37.5	0.0	0.0
연안촌락	(93)	82.8	17.2	0.0	0.0

### ②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

어민들은 일반 지역 주민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증상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일반적인 건강관리 등을 위해서 병·의원(50.8%)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와 함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39.9%)를 이용한다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고, 병원선(3.1%)의 역할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6 |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 (N=358, 단위 : %)

도시근교(82.5%), 연륙도서(58.3%), 연안촌락(75.3%) 어민은 병·의원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62.9%)를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비율이 높은 전남(52.5%)과 전북(47.6%) 지역 주민의 절반가량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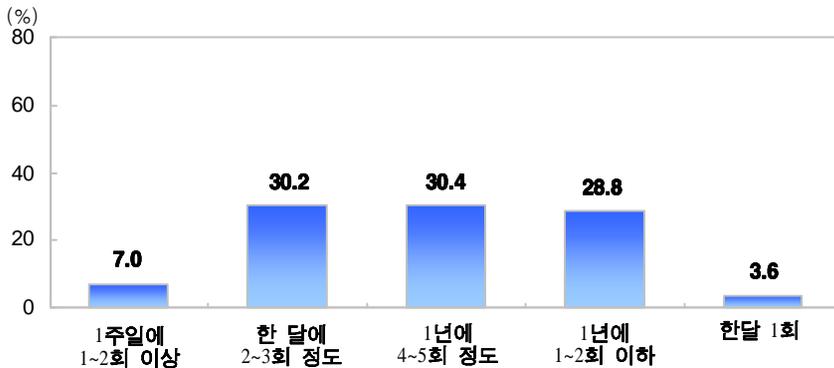
연령별로 의료기관 이용패턴을 살펴보면, 20,30대는 병·의원(57.4%)을 이용하는 비율이 타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자주 찾기 때문으로 보인다.

| 표 4-32 | 어촌유형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병·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약방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선
전체		(358)	50.8	39.9	3.1	3.1	3.1
어촌 유형	도서형(조건불리)	(178)	25.8	62.9	1.7	3.4	6.2
	도시근교	(63)	82.5	7.9	3.2	6.3	0.0
	연륙도서	(24)	58.3	33.3	8.3	0.0	0.0
	연안촌락	(93)	75.3	19.4	4.3	1.1	0.0
지역	강원	(7)	85.7	0.0	0.0	14.3	0.0
	경기/인천	(63)	42.9	42.9	1.6	1.6	11.1
	부산/경남/울산	(54)	70.4	24.1	5.6	0.0	0.0
	경북	(14)	71.4	14.3	0.0	14.3	0.0
	전남	(160)	40.0	52.5	2.5	3.1	1.9
	전북	(21)	42.9	47.6	9.5	0.0	0.0
	제주	(16)	75.0	18.8	0.0	6.3	0.0
	충남	(23)	69.6	17.4	4.3	4.3	4.3

### ③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 이용 빈도

어민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빈도에는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2~3회(30.2%), 1년에 4~5회(30.4%), 1년에 1~2회 이하(28.8%)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그림 4-37〉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 이용 빈도 (N=358, 단위 : %)

연륙도서와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이 도시근교와 연안촌락 어민보다 의료시설 이용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빈도를 입지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근교(33.3%)와 연안촌락(41.9%) 어민은 1년에 2~3회 정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륙도서 어민은 1년에 4~5회 정도(58.3%),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은 한 달에 2~3회(38.2%)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어민일수록 의료시설을 더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어민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빈도는 1달에 1~2회 정도(41.5%)가 가장 많았고, 40~59세 어민은 1년에 4~5회 정도(58.3%)를, 20~39세 어민은 1년에 1~2회 정도(36.6%)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33 | 어촌유형, 연령별 의료시설 사용 빈도 (N=35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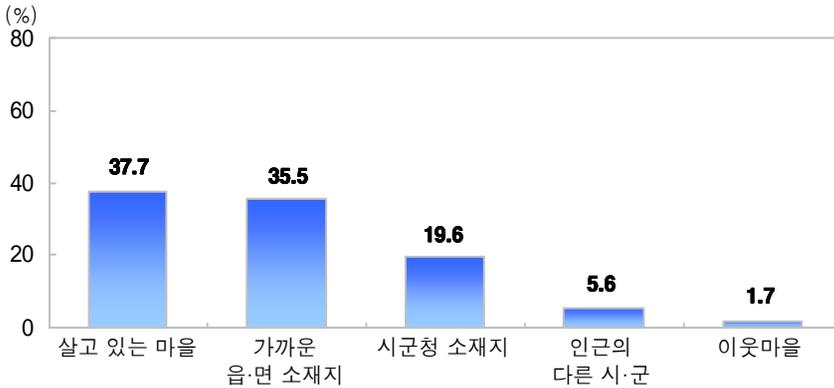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1주일에 1~2회 이상	한 달에 2~3회 정도	1년에 4~5회 정도	1년에 1~2회 이하	한 달 1회
전체		(358)	7.0	30.2	30.4	28.8	3.6
어촌 유형	도서형(조건불리)	(178)	7.9	38.2	28.1	23.0	2.8
	도시근교	(63)	9.5	25.4	28.6	33.3	3.2
	연륙도서	(24)	4.2	25.0	58.3	8.3	4.2
	연안촌락	(93)	4.3	19.4	29.0	41.9	5.4
연령	20~39세	(101)	2.0	30.7	29.7	36.6	1.0
	40~59세	(139)	4.3	20.1	41.0	32.4	2.2
	60세 이상	(118)	14.4	41.5	18.6	17.8	7.6

**표 4-34 |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별 사용 빈도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1주일에 1~2회 이상	한 달에 2~3회 정도	1년에 4~5회 정도	1년에 1~2회 이하	한 달 1회
전체	(358)	7.0	30.2	30.4	28.8	3.6
약국, 약방	(11)	9.1	45.5	18.2	27.3	0.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43)	9.1	32.9	32.2	25.2	0.7
병, 의원	(182)	6.0	25.8	30.8	32.4	4.9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11)	0.0	18.2	36.4	36.4	9.1
병원선	(11)	0.0	63.6	9.1	9.1	18.2

#### ④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 위치

어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은 살고 있는 마을(37.7%)과 가까운 읍·면 소재지(35.5%)에 위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군청 소재지라는 응답도 19.6% 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4-38]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 위치(N=358, 단위 : %)

어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62.9%)와 병원선(72.7%)은 살고 있는 마을에 위치하여 접근성 때문에 주로 찾는 것으로 보이고, 어민들이 이용하는 병·의원은 살고 있는 마을(19.2%)에 있는 비율보다 가까운 읍·면 소재지(37.4%) 또는 시·군청 소재지(33.5%)에 위치하는 비율이 더 높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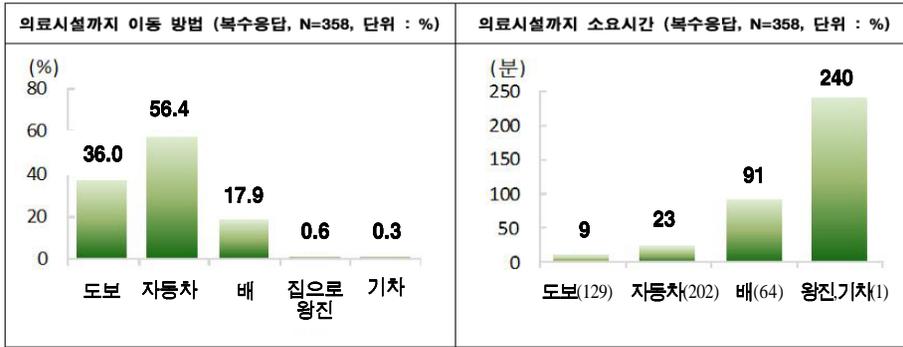
[표 4-35] 의료시설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의 위치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읍·면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인근의 다른 시, 군	이웃 마을
전체	(358)	37.7	35.5	19.6	5.6	1.7
약국, 약방	(11)	18.2	45.5	36.4	0.0	0.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43)	62.9	35.0	1.4	0.7	0.0
병, 의원	(182)	19.2	37.4	33.5	6.6	3.3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11)	0.0	9.1	27.3	63.6	0.0
병원선	(11)	72.7	27.3	0.0	0.0	0.0

### ⑤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까지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까지는 주로 자동차(56.4%)를 이용하거나 도보(36%)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시설의 이용을 위해 배를 이용한다는 응답도 17.9%로 나타났다.

의료시설까지는 자동차로는 23분, 배로는 91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39 | 의료시설까지 이동방법 및 소요시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64.3%)에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병·의원과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가는 주민은 대부분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36 |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별 이동 방법 (복수응답,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자동차	도보	배	집으로 왕진	기차
전체	(358)	56.4	36.0	17.9	0.6	0.3
약국, 약방	(11)	54.5	27.3	27.3	0.0	0.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43)	31.5	64.3	9.8	0.7	0.0
병, 의원	(182)	77.5	14.8	20.3	0.0	0.0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	(11)	90.9	9.1	54.5	0.0	9.1
병원선	(11)	0.0	54.5	36.4	9.1	0.0

보건소의 이용이 가장 많았던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어민들은 도보로 의료시설까지 이동한다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34.8%)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근교(71.4%), 연륙도서(95.8%), 연안촌락(79.6%) 거주 주민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 표 4-37 】 어촌유형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시설까지 이동 방법  
(복수응답,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자동차	도보	배	집으로 왕진	기차
전체	(358)	56.4	36.0	17.9	0.6	0.3
도서형(조건불리)	(178)	33.7	50.0	34.8	1.1	0.6
도시근교	(63)	71.4	30.2	0.0	0.0	0.0
연륙도서	(24)	95.8	4.2	0.0	0.0	0.0
연안촌락	(93)	79.6	21.5	2.2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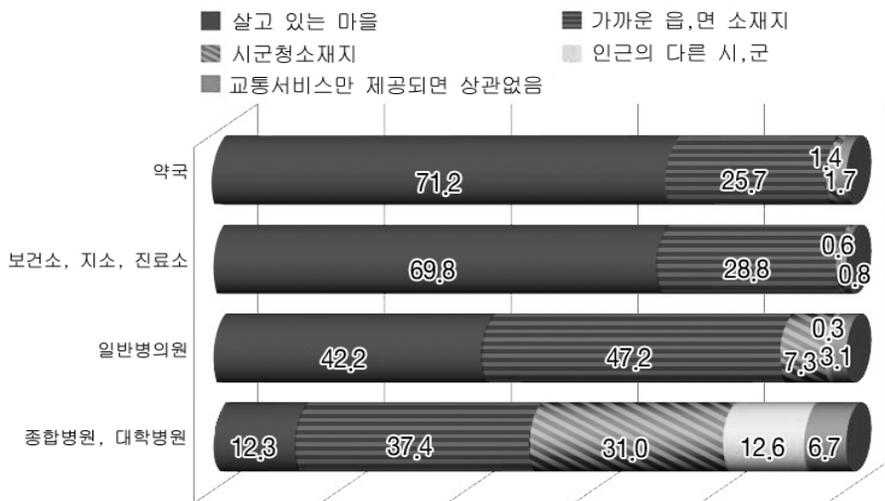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배를 사용하는 경우 평균 93분이 소요되어 연안촌락 어민이 배로 이동할 때보다 3.7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건불리 지역의 육지와와의 거리를 고려할 경우 육지와와의 이격거리가 0~30km 떨어진 지역은 배로 이동시 60분이 소요된 반면, 30~100km 떨어진 경우는 95분, 100km 이상 떨어진 경우는 153분이 소요되어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주민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이동 시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38 】 어촌유형별 의료시설까지 배로 이동 시 소요시간  
(복수응답, N=64, 단위 : %)

구분	명	단위(분)	
전체	(64)	91	
어촌유형	도서형(조건불리)	(62)	93
	도시근교	(0)	.
	연륙도서	(0)	.
	연안촌락	(2)	25
육지와와의 거리	0~30km미만	(23)	60
	30~100km미만	(53)	95
	100km 이상	(13)	153

### ⑥ 적정 의료시설의 위치

어민들은 기본적인 의료 치료가 가능한 약국(71.2%)과 보건소, 지소, 진료소(69.8%)는 살고 있는 마을 내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겼으며, 조금 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반 병·의원은 살고 있는 마을(42.2%) 또는 가까운 읍면 소재지(47.2%)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가까운 읍·면소재지(37.4%)나 시·군청 소재지(31.0%)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겼다. 즉 최소한 약국 또는 보건소는 마을 내에 설치해주는 것이 어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그림 4-40] 적정 의료시설의 위치 (N=358, 단위 : %)

약국과 보건소는 살고 있는 마을 내에 있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어촌유형에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가까운 읍·면 소재지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연륙도서(33.3%)와 연안촌락(39.8%)은 약국과 의료시설은 가까운 읍면에 있어도 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들은 육지까지의 이동이 어려운 만큼 살고

있는 마을 내(78.7%)에 있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일반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도시근교 어민은 일반 병의원도 살고 있는 마을(57.1%) 내에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외 어촌 유형에 거주하는 어민들은 살고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가까운 읍·면 소재지도 괜찮다는 의견을 보였다.

어촌유형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병원·대학병원은 살고 있는 마을을 벗어난 지역에 위치하여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39 】 어촌유형별 적정 의료시설의 위치 (N=358, 단위 : %)

구분	유형	사례 수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인근의 다른 시·군	교통서비스만 제공되면 상관없음
약국	전체	(358)	71.2	25.7	1.4	0.0	1.7
	도서형(조건불리)	(178)	78.7	18.5	1.1	0.0	1.7
	도시근교	(63)	76.2	22.2	0.0	0.0	1.6
	연륙도서	(24)	58.3	33.3	4.2	0.0	4.2
	연안촌락	(93)	57.0	39.8	2.2	0.0	1.1
보건소·지소·진료소	전체	(358)	69.8	28.8	0.6	0.0	0.8
	도서형(조건불리)	(178)	77.5	20.8	0.6	0.0	1.1
	도시근교	(63)	73.0	27.0	0.0	0.0	0.0
	연륙도서	(24)	66.7	29.2	0.0	0.0	4.2
	연안촌락	(93)	53.8	45.2	1.1	0.0	0.0
일반 병의원	전체	(358)	42.2	47.2	7.3	0.3	3.1
	도서형(조건불리)	(178)	43.8	42.1	7.3	0.6	6.2
	도시근교	(63)	57.1	41.3	1.6	0.0	0.0
	연륙도서	(24)	25.0	62.5	12.5	0.0	0.0
	연안촌락	(93)	33.3	57.0	9.7	0.0	0.0
종합병원·대학병원	전체	(358)	12.3	37.4	31.0	12.6	6.7
	도서형(조건불리)	(178)	13.5	43.3	30.9	2.8	9.6
	도시근교	(63)	11.1	30.2	31.7	22.2	4.8
	연륙도서	(24)	8.3	70.8	20.8	0.0	0.0
	연안촌락	(93)	11.8	22.6	33.3	28.0	4.3

### ⑦ 가장 시급한 의료시설 관련 개선사항

어민들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병원과 약국 및 장비를 개선·설치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의료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개선 또는 순회진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들은 불편 없이 건강관리, 병의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설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42.2%)을 꼽아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의료시설 및 장비의 개선(31.3%), 해당 의료기관까지 가는 교통수단 확충(22.9%), 전문의들의 순회진료 확대(21.5%), 수술 가능한 전문의료인 확충(20.1%)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 그림 4-41 | 가장 시급한 의료시설 관련 개선사항(복수응답, N=358, 단위 : %)

어촌유형에 상관없이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가능한 병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경우 인근 병원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병원을 설치하는 것보다 간접적 지원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어민들은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가 가능한 병원(37.1%)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까지 가는 교통수단 확충(32.6%), 전문의들의 순회진료 확대(28.1%)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 다른 어촌유형의 지원필요사항과 약간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한편, 연안촌락 어민(50.5%)은 응급환자를 위한 병원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0 】 어촌유형별 시급한 의료시설 관련 개선사항 (복수응답,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응급 환자 발생시 응급 조치 가능한 병원	의료 시설 및 장비의 개선	해당 의료기관까지 가는 교통 수단 확충	전문의들의 순회 진료 확대	수술 가능한 전문의료인 확충	약국 이라도 마을마다 설치	보건소 방문 보건 담당자의 방문 진료 확대	입원 할수 있는 의료 시설	의료 시설 신설	의약품 지원
전체	(358)	42.2	31.3	22.9	21.5	20.1	14.0	11.5	4.7	2.2	0.6
도서형 (조건불리)	(178)	37.1	27.5	32.6	28.1	14.6	10.7	12.9	5.1	3.4	1.1
도시근교	(63)	42.9	34.9	9.5	22.2	27.0	9.5	9.5	6.3	1.6	0.0
연륙도서	(24)	45.8	20.8	4.2	12.5	29.2	20.8	20.8	4.2	4.2	0.0
연안촌락	(93)	50.5	38.7	18.3	10.8	23.7	21.5	7.5	3.2	0.0	0.0

주 : 없음/잘모름 미제시

## (6) 응급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 조사

### ① 응급 서비스 이용 소요시간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들은 각종 응급 서비스를 이용함에 다른 어촌유형보다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직후부터 응급 서비스를 받기까지 경찰은 약 28분이 소요되어 가장 빨랐고, 소방은 약 31분, 구급/구조는 약 36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응급서비스를 받기까지 20분대 후반에서 30분대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이 긴급을 요하는 응급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른 어촌 유형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비율이 높은 전남과 전북 지역이 대체로 응급 서비스를 받는 데까지 더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1 | 응급 서비스별 이용 소요시간 (사용 경험자, 단위 : %)

구분		경찰		소방		구급/구조	
		명	단위(분)	명	단위(분)	명	단위(분)
전체		(21)	28	(23)	31	(74)	36
어촌유형	도서형(조건불리)	(11)	43	(12)	51	(38)	55
	도시근교	(2)	9	(1)	10	(14)	12
	연륙도서	(2)	8	(4)	13	(4)	25
	연안촌락	(6)	15	(6)	8	(18)	14
지역	강원	(0)	-	(0)	-	(3)	13
	경기/인천	(4)	10	(4)	9	(14)	49
	부산/경남/울산	(3)	55	(3)	14	(8)	23
	경북	(1)	5	(1)	10	(4)	13
	전남	(10)	27	(9)	48	(33)	42
	전북	(1)	60	(2)	50	(2)	60
	제주	(0)	-	(0)	-	(7)	14
	충남	(2)	30	(4)	25	(3)	20
육지와와의 거리	0~30km 미만	(3)	55	(4)	48	(7)	36
	30~100km 미만	(7)	40	(5)	46	(26)	60
	100km 이상	(1)	30	(3)	65	(5)	56

## ② 응급 서비스 만족도

응급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점대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시근교 어촌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면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주민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급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신속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의 접근성 때문에 도착까지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서형의 경우 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2.83점으로 서비스의 수준이 매우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 구급·구조 서비스의 경우 연륙도서(3.00점)의 만족도는 도서형(3.15점)보다 낮았다.

표 4-42 | 응급 서비스별 만족도 (사용경험자, 단위 : 점)

구분		경찰		소방		구급·구조	
		사례 수	평균(점)	사례 수	평균(점)	사례 수	평균(점)
전체		(22)	3.27	(23)	3.61	(75)	3.43
어촌 유형	도서형(조건불리)	(12)	2.83	(12)	3.08	(39)	3.15
	도시근교	(2)	4.50	(1)	5.00	(14)	3.71
	연륙도서	(2)	4.00	(4)	4.00	(4)	3.00
	연안촌락	(6)	3.50	(6)	4.17	(18)	3.89
지역	강원	(0)	-	(0)	-	(3)	3.33
	경기/인천	(4)	3.50	(4)	4.00	(14)	3.00
	부산/경남/울산	(3)	3.33	(3)	4.67	(8)	3.75
	경북	(1)	4.00	(1)	4.00	(4)	4.00
	전남	(11)	3.27	(9)	3.33	(34)	3.41
	전북	(1)	3.00	(2)	3.00	(2)	2.50
	제주	(0)	-	(0)	-	(7)	3.71
	충남	(2)	2.50	(4)	3.25	(3)	4.00

### ③ 응급 서비스 개선사항

모든 응급 서비스에서 공통적으로 신속성이 가장 필요한 개선으로 나타났다. 경찰 응급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 서비스 지원의 신속성(63.6%)으로 나타났다.

| 표 4-43 | 경찰 응급 서비스 개선사항 (복수응답, N=11 단위 : %)

내용	사례 수	응답률
신속한 응급 서비스 지원 필요	7	63.6%
치안유지 강화	2	18.2%
형식적 조사에 급급하지 말아야 함	1	9.1%
공무원 권위의식 근절	1	9.1%
계	11	100.0%

소방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한 응급 서비스 지원(58.3%)으로 나타났고, 그 외 전문요원 확보(25%)와 응급 서비스 차량의 확충(16.7%)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4 | 소방 응급 서비스 개선사항 (복수응답, N=12 단위 : %)

내용	사례 수	응답률
신속한 응급 서비스 지원 필요	7	58.3%
전문요원 확보	3	25.0%
응급서비스 차량 확충	2	16.7%
계	12	100.0%

구급·구조 서비스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속한 응급 서비스 지원(69.5%)이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전문요원 확보(25%)와 응급서비스 절차 간소화(10.2%), 야간에도 서비스 실시 요망(6.8%), 응급환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6.8%)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5 | 구급·구조 응급서비스 개선사항 (복수응답, N=52, 단위 : %)

내용	사례 수	응답률
신속한 응급 서비스 지원 필요	41	69.5%
응급 서비스 절차 간소화	6	10.2%
야간에도 서비스 실시 요망	4	6.8%
응급환자를 위한 교통수단 확충	4	6.8%
응급환자 수송 시 의료진 동행 필요	1	1.7%
응급환자를 위한 장비 확충	1	1.7%
응급 서비스 차량 확충	1	1.7%
민간자원 봉사 조직에 장비 지원	1	1.7%
계	52	88.1%

## (7)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 조사

### ① 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어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복지 서비스 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민의 복지 서비스 시설 및 활용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복지 서비스 시설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복지시설 유형별로 모두 40% 이상으로 조사됐다. 1년에 1회라도 복지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종합복지시설만이 3.4%로 나타났을 뿐 나머지 시설 이용 빈도는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4-46 | 복지 서비스 시설별 이용 빈도 (N=358, 단위 : %)

구분	1주 2~3회	1달 2~3회	1년 4~5회	1년 1~2회 이하	1년 1회 이상	이용하지 않음	관련시설 없음
종합복지시설	0.8	1.7	0.6	0.6	3.4	42.5	53.9
노인복지시설	0.3	0.3	0.0	0.3	0.8	48.0	51.1
아동복지시설	0.0	0.0	0.3	0.0	0.3	41.6	58.1
청소년복지시설	0.0	0.0	0.3	0.3	0.6	40.5	58.9
여성복지시설	0.3	0.3	0.3	0.0	0.8	41.3	57.8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례 수가 매우 불충분한 가운데, 노인복지시설만이 도보로 이용하는 비율이 약간 높을 뿐 나머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두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47 | 복지 서비스 시설별 이동방법 (단위 : %)

구분	사례 수	도보	자동차	배
종합복지시설	(13)	23.1	76.9	0.0
노인복지시설	(3)	66.7	33.3	0.0
아동복지시설	(1)	0.0	100.0	0.0
청소년복지시설	(2)	0.0	100.0	0.0
여성복지시설	(3)	33.3	66.7	0.0

사례 수가 매우 불충분한 가운데, 복지시설은 도보로 이동할 경우 10분 내에,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25분 내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응답은 참여한 사람의 응답만을 참고한 것이고 대부분의 어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 수준의 접근성을 가져야 어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표 4-48 | 복지 서비스 시설별 소요시간 (단위 : %)

구분	도보		자동차		배	
	명	단위(분)	명	단위(분)	명	단위(분)
종합복지시설	(3)	10	(10)	14	(0)	-
노인복지시설	(2)	8	(1)	15	(0)	-
아동복지시설	(0)	-	(1)	20	(0)	-
청소년복지시설	(0)	-	(2)	25	(0)	-
여성복지시설	(1)	5	(2)	13	(0)	-

사례 수가 매우 불충분한 가운데, 복지시설은 종합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은 살고 있는 마을이나 가까운 읍면 소재지 내에 있어 이용한 비율

이 높았고, 나머지 복지시설은 가까운 읍면 소재지나 시군청 소재지까지 나가야만 복지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수불가결한 내용이 아니며 살고 있는 마을 외부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복지시설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4-49 | 복지 서비스 시설별 위치 (단위 : %)

구분	사례 수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읍면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인근 다른 시군
종합복지시설	(13)	30.8	46.2	23.1	-
노인복지시설	(3)	66.7	33.3	-	-
아동복지시설	(1)	-	-	100.0	-
청소년복지시설	(2)	-	-	100.0	-
여성복지시설	(3)	-	66.7	33.3	-

## ② 복지시설 및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

사례 수가 매우 불충분한 가운데, 복지시설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어민들은 관련 서비스가 어촌, 어업인 여건에 맞지 않는다(33.3%), 교통이 불편하다(22.2%), 전문인력이 부족하다(22.2%)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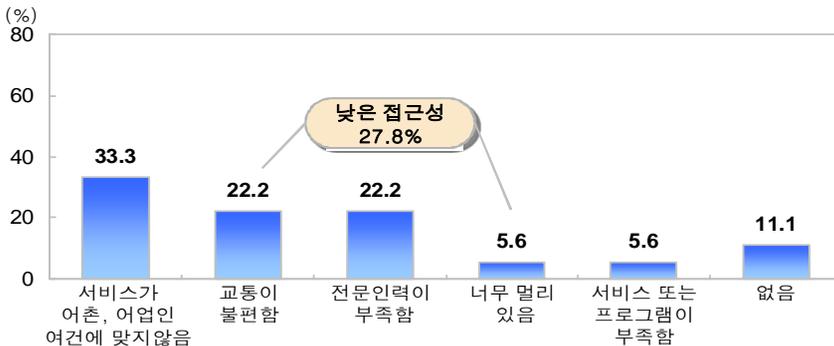


그림 4-42 | 사회 복지시설 및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 (N=18, 단위 : %)

### ③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제공받기 희망하는 서비스/프로그램

어민들은 본인과 가족들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건강관리 및 재활 활동(47.2%)과 체육, 레저활동(24.9%)처럼 건강유지를 위한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거동불편 주민대상 재가 및 돌보미 서비스(20.9%), 취미, 사교활동(19.6%), 교양, 교육활동(15.6%),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10.1%)을 희망한다는 비율도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62.7%)은 건강관리 및 재활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3] 희망 사회복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복수응답, N=358, 단위 : %)

## (8)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 조사

### ① 문화·여가 시설 이용 빈도

어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문화·여가 시설이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민의 문화·여가 시설 및 활용 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문화·여가 시설이 없는 경우가 시설별로 약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시설별로 30%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1년에 1회라도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영화관·공연장(11.2%)과 실내외 체육시설(11.5%)만

이 10% 이상으로 나타났을 뿐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8.7%), 도서관(3.9%),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4.2%)의 시설 이용 빈도는 1년 1회 이상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표 4-50 】 문화·여가 시설 이용 빈도 (N=358, 단위 : %)

구분	1주 1~2회 이상	1달 2~3회	1년 4~5회	1년 1~2회 이하	1년 1회 이상	이용하지 않음	관련시설 없음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0.6	1.4	1.7	5.0	8.7	37.7	53.6
도서관	1.4	1.4	1.4	3.9	8.1	47.5	44.4
영화관, 공연장	0.6	2.8	3.4	4.5	11.2	35.5	53.4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0.6	0.0	0.6	3.1	4.2	38.5	57.3
실내의 체육시설	4.5	3.4	1.4	2.2	11.5	49.4	39.1

도서형(조건불리) 지역에는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외의 문화·여가 시설이 없는 비율이 대체로 높아 주민들이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근교와 연륙도서 어민들은 시설이 있어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시설의 유무와 상관없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교와 연안촌락 어촌 주민들이 1년 1회 이상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도서형(조건불리) 지역과 연륙도서 주민의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 4-51 】 어촌유형별 문화·여가 시설 이용 빈도 (N=35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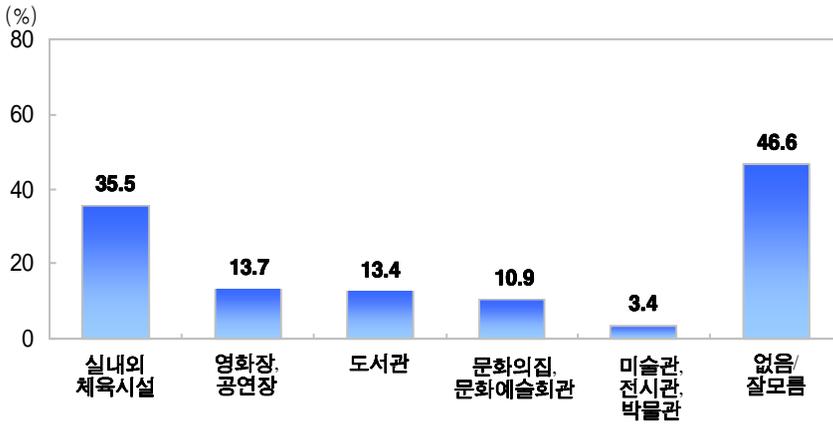
구분	유형	사례 수	1주 1~2회 이상	1달 2~3회	1년 4~5회	1년 1~2회 이하	1년 1회 이상	이용하지 않음	관련시설 없음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전체	(358)	0.6	1.4	1.7	5.0	8.7	37.7	53.6
	도서형(조건불리)	(178)	1.4	1.4	1.4	3.9	8.1	47.5	44.4
	도시근교	(63)	0.6	2.8	3.4	4.5	11.2	35.5	53.4
	연륙도서	(24)	0.6	0.0	0.6	3.1	4.2	38.5	57.3
	연안촌락	(93)	4.5	3.4	1.4	2.2	11.5	49.4	39.1

| 표 4-51 | 어촌유형별 문화·여가 시설 이용 빈도 (N=358, 단위 : %)(계속)

구분	유형	사례 수	1주 1~2회 이상	1달 2~3회	1년 4~5회	1년 1~2회 이하	1년 1회 이상	이용하지 않음	관련시설 없음
도서관	전체	(358)	0.6	1.4	1.7	5.0	8.7	37.7	53.6
	도서형(조건불리)	(178)	0.0	0.0	0.0	1.1	1.1	36.5	62.4
	도시근교	(63)	1.6	4.8	3.2	7.9	17.5	42.9	39.7
	연륙도서	(24)	0.0	4.2	0.0	0.0	4.2	54.2	41.7
	연안촌락	(93)	1.1	1.1	4.3	11.8	18.3	32.3	49.5
영화관, 공연장	전체	(358)	1.4	1.4	1.4	3.9	8.1	47.5	44.4
	도서형(조건불리)	(178)	0.0	0.6	0.6	2.8	3.9	39.3	56.7
	도시근교	(63)	4.8	3.2	3.2	9.5	20.6	57.1	22.2
	연륙도서	(24)	0.0	0.0	0.0	0.0	0.0	66.7	33.3
	연안촌락	(93)	2.2	2.2	2.2	3.2	9.7	51.6	38.7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전체	(358)	0.6	2.8	3.4	4.5	11.2	35.5	53.4
	도서형(조건불리)	(178)	0.0	0.6	2.2	2.2	5.1	33.1	61.8
	도시근교	(63)	1.6	6.3	7.9	4.8	20.6	47.6	31.7
	연륙도서	(24)	0.0	4.2	0.0	4.2	8.3	50.0	41.7
	연안촌락	(93)	1.1	4.3	3.2	8.6	17.2	28.0	54.8
실내외 체육시설	전체	(358)	0.6	0.0	0.6	3.1	4.2	38.5	57.3
	도서형(조건불리)	(178)	0.0	0.0	0.0	0.0	0.0	32.6	67.4
	도시근교	(63)	3.2	0.0	0.0	7.9	11.1	52.4	36.5
	연륙도서	(24)	0.0	0.0	0.0	0.0	0.0	58.3	41.7
	연안촌락	(93)	0.0	0.0	2.2	6.5	8.6	35.5	55.9

## ② 필요 문화·여가 시설

어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여가 시설은 실내외 체육시설(35.5%)로 나타났고, 그 외 영화관, 공연장(13.7%), 도서관(13.4%),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10.9%)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 그림 4-44 | 필요 문화·여가 시설 (복수응답, N=358, 단위 : %)

전반적으로 없다/잘모름 응답이 많았는데 이것은 어민들이 지리적 위치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응답을 회피하거나 문화·여가 생활 향유에 대한 경험이 적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들은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이 63.5%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30km 이상 떨어진 경우는 무응답이 더욱 높았다. 반면 도시근교 어민들과 연안촌락 어민들은 각종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서형(조건불리) 지역과 연륙도서 어민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연안촌락 어민들은 실내외 체육시설(50.5%)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났고, 도시근교와 연안촌락 어민들은 실내외 체육시설 외에도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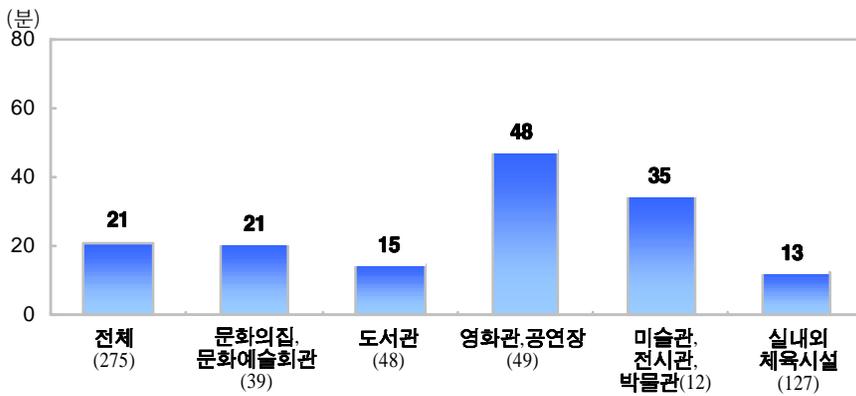
20~30대의 어민은 체육시설과 함께 영화관, 공연장(26.7%), 도서관(29.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40~50대 어민은 체육시설(40.3%)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특히 높았다.

| 표 4-52 | 필요 문화·여가 시설 (복수응답,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실내외 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예술 회관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없음/ 잘모름
전체		(358)	35.5	13.7	13.4	10.9	3.4	46.6
어촌 유형	도서형(조건불리)	(178)	25.3	9.0	9.0	4.5	1.1	63.5
	도시근교	(63)	39.7	20.6	19.0	15.9	4.8	33.3
	연륙도서	(24)	41.7	8.3	16.7	16.7	0.0	45.8
	연안촌락	(93)	50.5	19.4	17.2	18.3	7.5	23.7
연령	20~39세	(101)	36.6	26.7	29.7	12.9	5.9	28.7
	40~59세	(139)	40.3	12.2	8.6	10.8	2.9	46.8
	60세 이상	(118)	28.8	4.2	5.1	9.3	1.7	61.9
지역	강원	(7)	14.3	42.9	28.6	28.6	14.3	28.6
	경기/인천	(63)	23.8	9.5	14.3	7.9	3.2	61.9
	부산/경남/울산	(54)	48.1	20.4	13.0	7.4	5.6	35.2
	경북	(14)	57.1	14.3	14.3	14.3	0.0	21.4
	전남	(160)	33.1	11.3	10.0	11.3	1.9	50.6
	전북	(21)	28.6	9.5	14.3	9.5	4.8	52.4
	제주	(16)	37.5	18.8	25.0	6.3	6.3	37.5
	충남	(23)	52.2	17.4	21.7	21.7	4.3	26.1
육지 와의 거리	0~30km미만	(49)	40.8	4.1	10.2	4.1	0.0	53.1
	30~100km미만	(108)	21.3	9.3	5.6	5.6	0.0	68.5
	100km 이상	(21)	9.5	19.0	23.8	0.0	9.5	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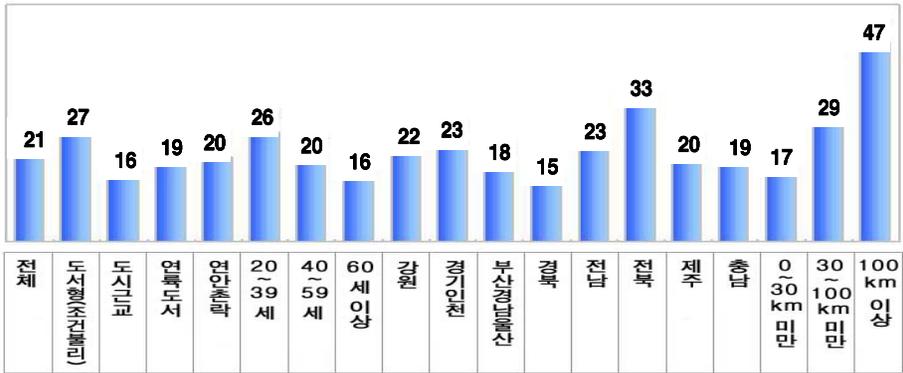
### ③ 도달소요시간

어민들이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균 21분 정도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관, 공연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48분으로 가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설로 나타났고, 도서관과 실내외 체육시설은 각각 15분, 13분 정도면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45 | 필요 문화·여가 시설까지 도달 소요시간 (N=275개 응답, 단위 : 분)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이 소요하는 시간은 약 27분으로 다른 어촌유형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전북지역(33분)과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서형(47분) 지역은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46 | 문화·예술 시설까지의 소요시간(N=275개 응답, 단위 : 분)

#### ④ 문화·여가 시설 만족도

어민들의 문화·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3.00점)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보통으로 평가한 비율(41.6%)이 가장 높은 가운데 불만족(31.2%)하는 비율과 만족(27.2%)하는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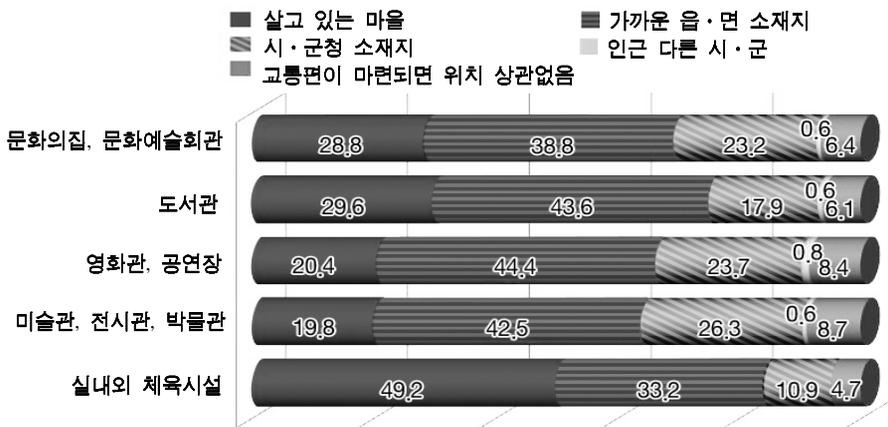
문화·여가 시설별로는 사례 수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3.09점)과 영화관, 공연장(3.11점)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외 도서관(2.96점),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2.63점), 실내의 체육시설(2.95점)은 3점 미만의 미흡한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 표 4-53 | 문화·여가 시설별 만족도 (N=125, 단위 : %)

구분	종합평가(3점)				만족도(5점)					평균 (점)
	사례 수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25)	31.2	41.6	27.2	3.1	25.8	45.3	19.5	6.3	3.00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22)	22.7	50.0	27.3	0.0	18.2	54.5	27.3	0.0	3.09
도서관	(23)	34.8	34.8	30.4	3.8	30.8	34.6	26.9	3.8	2.96
영화관, 공연장	(34)	29.4	47.1	23.5	0.0	20.0	57.1	14.3	8.6	3.11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8)	50.0	37.5	12.5	0.0	50.0	37.5	12.5	0.0	2.63
실내의 체육시설	(38)	31.6	36.8	31.6	8.1	27.0	37.8	16.2	10.8	2.95

### ⑤ 문화여가시설의 적정 위치

어민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실내외 체육시설은 살고 있는 마을(49.2%)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외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은 가까운 읍면 소재지 내에 있는 것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 : 잘모름 미제시

[그림 4-47] 문화·여가 시설의 적정 위치 (N=358, 단위 : %)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들은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교통수단의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꼭 필요한 시설은 마을 내에 있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내외 체육시설(47.2%)은 마을 내에, 도서관(35.4%)과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34.3%)의 경우 마을 내나 가까운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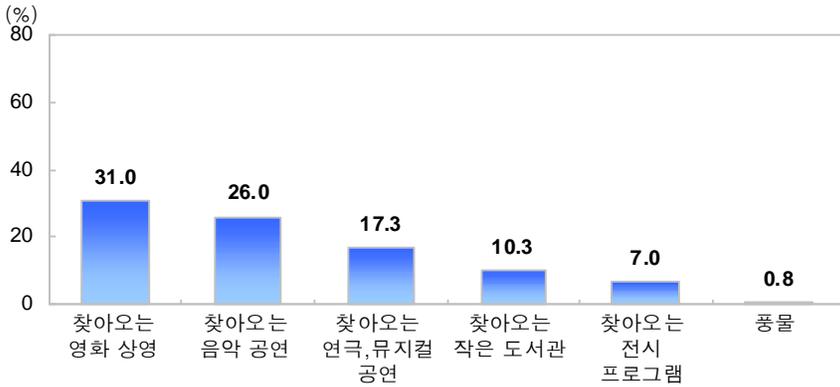
연륙도서의 어민들은 실내외 체육시설이 살고 있는 마을(70.8%) 내에 위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특히 높게 나타났고, 연안촌락은 대체로 살고 있는 마을이나 가까운 읍면 소재지에 문화·여가 시설이 있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표 4-54 | 여촌유형별 문화·여가 시설의 적정 위치 (N=358, 단위 : %)

구분	유형	사례 수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인근 다른 시군	교통편이 마련되면 위치 상관없음	잘모름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전체	(358)	28.8	38.8	23.2	0.6	6.4	2.2
	도서형(조건불리)	(178)	34.3	33.1	18.5	0.6	9.6	3.9
	도시근교	(63)	23.8	41.3	31.7	1.6	1.6	0.0
	연륙도서	(24)	37.5	41.7	16.7	0.0	4.2	0.0
	연안촌락	(93)	19.4	47.3	28.0	0.0	4.3	1.1
도서관	전체	(358)	29.6	43.6	17.9	0.6	6.1	2.2
	도서형(조건불리)	(178)	35.4	33.7	16.3	0.6	10.1	3.9
	도시근교	(63)	27.0	49.2	22.2	1.6	0.0	0.0
	연륙도서	(24)	41.7	45.8	12.5	0.0	0.0	0.0
	연안촌락	(93)	17.2	58.1	19.4	0.0	4.3	1.1
영화관, 공연장	전체	(358)	20.4	44.4	23.7	0.8	8.4	2.2
	도서형(조건불리)	(178)	23.0	40.4	18.5	1.1	12.9	3.9
	도시근교	(63)	20.6	50.8	25.4	1.6	1.6	0.0
	연륙도서	(24)	25.0	41.7	25.0	0.0	8.3	0.0
	연안촌락	(93)	14.0	48.4	32.3	0.0	4.3	1.1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전체	(358)	19.8	42.5	26.3	0.6	8.7	2.2
	도서형(조건불리)	(178)	22.5	39.3	20.8	0.6	12.9	3.9
	도시근교	(63)	20.6	46.0	30.2	1.6	1.6	0.0
	연륙도서	(24)	25.0	37.5	29.2	0.0	8.3	0.0
	연안촌락	(93)	12.9	47.3	33.3	0.0	5.4	1.1
실내외 체육시설	전체	(358)	49.2	33.2	10.9	0.0	4.7	2.0
	도서형(조건불리)	(178)	47.2	28.1	12.9	0.0	8.4	3.4
	도시근교	(63)	47.6	38.1	14.3	0.0	0.0	0.0
	연륙도서	(24)	70.8	29.2	0.0	0.0	0.0	0.0
	연안촌락	(93)	48.4	40.9	7.5	0.0	2.2	1.1

### ⑥ 희망 찾아오는 문화서비스

‘찾아오는 문화 서비스’로 찾아오는 영화 상영(31%) 서비스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찾아오는 음악 공연(26%), 찾아오는 연극, 뮤지컬 공연(17.3%), 찾아오는 작은 도서관(10.3%)에 대한 필요도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4-48】 희망 찾아오는 문화서비스 (N=385, 단위 : %)

‘찾아오는 문화 서비스’로 도서형(조건불리) 지역 어민은 찾아오는 영화 상영(33.7%)과 음악공연(33.1%)처럼 기본적인 서비스를 희망하였고, 기타 어촌유형의 어민은 찾아오는 전시 프로그램, 연극, 뮤지컬 공연, 찾아오는 작은 도서관 등 그 외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5】 어촌유형별 희망 찾아오는 문화 서비스 (N=358, 단위 : %)

구분	사례 수	찾아오는 영화 상영	찾아오는 음악 공연	찾아오는 연극, 뮤지컬 공연	찾아오는 작은 도서관	찾아오는 전시 프로그램	풍물
전체	(358)	31.0	26.0	17.3	10.3	7.0	0.8
도서형(조건불리)	(178)	33.7	33.1	13.5	7.3	3.9	0.6
도시근교	(63)	27.0	27.0	15.9	6.3	15.9	0.0
연륙도서	(24)	20.8	4.2	33.3	12.5	16.7	0.0
연안촌락	(93)	31.2	17.2	21.5	18.3	4.3	2.2

### (9) 실태조사 결과의 요약

어촌 공공서비스 실태조사의 결과를 주거, 교통, 교육, 의료, 응급, 문화여가 서비스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4-56 | 실태조사 결과 요약

구분	항목		실태 및 문제점	비고
주거 서비스	상수도		상수도 평균 46.1% 도서어촌 13.5%	
	폐기물	음식물	도서어촌 매립 61.2%	
		쓰레기	도서어촌 소각 44.4%	
		폐자재	연안촌락 소각 17.2%	
	오수 처리	생활오수	도서어촌 방류 44.9%	
분뇨		도서어촌 방류 16.3%		
	마을공동시설		프로그램 운영 전반적 미흡	입지유형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남
교통 서비스	시군청 소재지		도서어촌 1시간 이상 90.4%	
	버스 주행 빈도		도서어촌 미운행 59.6%	
	배(여객) 운항 빈도		도서어촌 1일 2회 이하 50.0%	도서어촌 희망빈도는 하루 최소 3~5회(56.2%)
교육 서비스	교육 기관	유초등	거주지 소재 52.6% 도서어촌 46.8%	폐교(원) > 통학거리 > 교육의 질 문제 순
		중학교	거주지 소재 31.3%	
		고등학교	거주지 소재 6.7%	
	평생·성인교육		경험 없음 89.4%	
의료 서비스	의료시설 소요시간		도서어촌 평균 93분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시설 이동방법		도서어촌 도보 50% 도서어촌 선박 34.8%	
	의료시설 시급히 개선사항		응급조치 가능한 병원 42.2% 의료장비 개선 31.3% 의료시설까지 교통수단 확충 22.9% 순회진료 확대 21.5%	
응급 서비스	소요 시간	경찰	도서어촌 43분(평균 28분)	
		소방	도서어촌 51분(평균 31분)	
		구급	도서어촌 55분(평균 36분)	
문화여가 서비스	문화여가시설		거주지 부재 40% 도서어촌 47분(평균 21분)	영화관, 공연장 48분

## 2. 어촌 공공서비스 실태의 분야별 사례 분석

### 1) 개요

어촌공공서비스 실태조사에서 주거, 교통, 교육, 의료, 응급, 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 실태 중에서 의료시설, 문화·체육시설, 교육시설에 대해서 울릉군과 신안군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어촌 공공서비스 분야별 실태

#### (1) 의료시설

울릉군과 신안군 의료시설의 변화를 보면, 울릉군 병원 수 증감률은 -80.0%인 반면 신안군의 경우 433.3%로 나타났다.

울릉군의 경우에는 병원수가 96년 5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하였고, 의료인력의 경우에도 치과 의사 1명을 제외하고 의사가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지역으로 나가 의료서비스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안군의 경우에는 96년에 비해 병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료인력은 38% 감소하였고, 또한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인구수가 590명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신안군의 경우는 3,549명으로 여전히 의사가 부족한 상태로 인근 중심도시인 목포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4-57 | 울릉군, 신안군의 의료시설 실태

단위 : 개소, %

시설	지역명	울릉군			신안군		
	연도	1996	2007	증가율	1996	2007	증가율
의료시설	병원	5	1	<u>-80.0</u>	3	16	<u>433.3</u>
	보건의료원	1	1	0.0	-	-	0.0
	보건소	1	-	-100.0	1	1	0.0
	보건지소	2	2	0.0	13	14	7.7
	보건진료소	3	3	0.0	22	23	4.5
	합계	8	7	<u>-41.7</u>	39	54	<u>38.5</u>
의료인력	상근의사	13	1	-92.3	14	13	-7.1
	비상근의사	0	0	0.0	0	0	0.0
	간호사	13	0	-100.0	29	3	-89.6
	간호조무사	13	1	<u>-92.3</u>	15	28	<u>86.7</u>
	약사	5	1	-80	13	0	-100
	합계	44	3	<u>-93.2</u>	71	44	<u>-38.0</u>

자료 : 울릉군 및 신안군, 통계연보, 각 연도

## (2) 문화·체육시설

어촌의 기초서비스 가운데 문화·체육시설은 96년과 비교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릉군의 경우 공연시설, 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문화원) 등 문화시설이 증가하였으나 체육시설은 오히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안군의 경우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시설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 표 4-58 】 울릉군, 신안군의 문화·체육시설 실태

단위 : 개소, %

시설	지역명 연도	울릉군			신안군		
		1996	2007	증가율	1996	2007	증가율
문화 시설	공연시설	0	1	100.0	0	0	0.0
	전시설	0	0	0.0	0	0	0.0
	문화복지시설	0	2	100.0	0	0	0.0
	기타시설	0	1	100.0	0	2	100.0
	합계	1	4	300.0	0	2	100.0
체 육 시 설	실내체육관	0	0	0.0	0	1	100.0
	종합경기장	0	0	0.0	0	0	0.0
	테니스장	0	2	100.0	0	1	100.0
	수영장	0	0	0.0	0	0	0.0
	등록체육시설	0	0	0.0	0	0	0.0
	신고체육시설	8	3	-62.5	17	26	52.9
	합계	8	5	-37.5	17	28	64.7

자료 : 전계서

### (3) 교육시설

어촌지역의 교육시설은 농촌과 마찬가지로 학교수, 학생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어촌의 과소화, 고령화와 같은 맥락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젊은 연령층이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취학아동이 줄어들고, 이는 폐교에 따른 학교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어촌의 경우에는 부모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자식은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며 학업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표 4-59 | 울릉군, 신안군의 교육시설 실태

단위 : 개소, %

구분 \ 연도별		1999		2007		증가율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울릉군	유치원	8	226	7	125	-12.5	-44.7
	초등학교	7	812	4	446	-42.9	-45.1
	중학교	5	378	4	232	-20.0	-38.6
	고등학교	1	241	1	181	0.0	-24.9
	합계	21	1,657	16	984	-23.8	-40.6
신안군	유치원	36	435	27	209	-25.0	-52.0
	초등학교	63	2,821	20	1,631	-68.3	-42.2
	중학교	15	1,444	14	829	-6.7	-42.6
	고등학교	7	1,022	7	587	0.0	-42.6
	합계	121	5722	68	3256	-43.8	-43.1

자료 : 전계서

# 제 5 장 외국의 공공서비스 사례 조사

## 1. 일본 : 어촌 생활환경 고도화

### 1) 개요

도시와 비교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일본의 경우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어촌이 정주생활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국가적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경과를 국가가 직접 점검함으로써 도시와 어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촌 리프레쉬 운동을 10년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운동은 어촌의 상수도, 오수처리, 도로, 광장 및 공원, 소방, 정보화 등 6개의 공공서비스 지표를 설정하고 어촌의 주민들이 삶의 질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공공서비스기준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2) 어촌 리프레쉬 운동의 목표

어촌 리프레쉬 운동은 수산청이 지자체, 관계단체(JF 전어련 등)와 협력하여 도시와 어촌의 정주환경(공공서비스 측면) 간의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며, 인구 5천 명 이하의 어촌 약 4,7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운동은 지난 2004년 말 6개 공공서비스 지표를 통해 어촌의 생활환경의 개선상황을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방재·안전에 기여하는 소방수리충족률과 정보전달시설 정비율, 상수도 보급률 등은 목표치에 근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주기반환경과 관련된 우수처리인구보급률 및 자동차교통 불능 도로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도로 및 공공위생 등 생활환경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5-1 | 어촌 리프레쉬 운동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효과

구분	전국평균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소방	72%	78%	79%	82%
 광장공원	42%	45%	46%	50%
 정보전달시설	84%	87%	90%	89%
 상수도	96%	97%	97%	98%
 도로율	76%	77%	77%	78%
 우수처리시설	25%	44%	53%	61%

자료 : 일본 수산청 내부자료를 토대로 제작성

### 3) 개별 공공서비스 기준별 목표

#### (1) 상수도보급률

어촌에 있어서 상수도보급률의 향상은 위생적인 물의 공급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수산물을 생산하는 데도 없어서는 안된다. 1999년 95.5%에서 2010년 98%로 약 2%정도 개선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어촌의 경우 도서지역 등 식수원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여전히 물 부족이 생기는 등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생활양식의 변화, 하수도 정비의 향상 등과 맞물려 현 상황보다 더 많은 물수요가 발생해 새로운 수원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2) 오수처리시설 보급률

하수도보급률의 향상은 어촌에 있어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 공중위생의 향상, 어장환경의 보전, 어항 등의 수역의 수질보전, 도시와의 교류 촉진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1999년 25%에서 2010년 61%로 약 36% 가량 대폭 개선될 것으로 목표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의 하수도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도시지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어촌의 하수도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어촌의 입지여건상 시가지로부터 멀리 이격되어 소규모로 해안에 점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정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또한 어촌의 주거가 밀집해 있더라도 취락도로도 좁고, 하수관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개별의 정화조 설치도 별로 진전이 없다.

향후 하수도 보급의 특징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낙도의 소규모 고령어가의 비율이 높은 어촌의 보급률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러한 이유는 하수도보급과 관련된 자기부담이 수반되는데 어업후계자가 없는 어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자택을 개수해 정주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동일한 현 내에서도 시정촌에 의해 정비가 착실하게 진행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합의하에 어촌의 입지적 여건에 적합한 하수도 정비의 수법을 채용해 목표치에 부합하는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3) 자동차도로 정비율

자동차 교통 불능도 비율이란 공적 관리하에 있는 취락 내 도로에 있어서 최대 적재량 4t의 보통트럭이 통행할 수 없는 도로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능도 비율의 개선은 어업자의 취업환경이나 어촌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와 더불어 협소한 어촌에 있어서의 긴급·재해 시 구조활동, 피난로의 확보 등 안전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24%에서 22%로 큰 개선이 전망되지 못하였다. 이는 어촌의 전면이 바다, 배후는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의 확장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어항정비, 어업취락배수시설의 정비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 (4) 광장·공원이 없는 어촌의 비율

광장·공원이 없는 어촌의 비율이란 공원·광장 등이 취락 내에 없는 어촌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촌 내 광장과 공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고, 고령자들이 부담 없이 모이는 공간 등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전통 제례, 지역의 이벤트 개최 등 어촌주민 상호 간 또는 도시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재해 발생 시에 피난하는 장소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어촌의 진흥·활성화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1999년 말부터 2010년까지 58%에서 50%로 약 8%가량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의 어촌은 광장·공원이 없다. 이것은 협소한 어촌의 입지적 특성상 녹지, 광장 등의 용지확보가 어려운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생활환경의 개선, 도시민과의 교류 기회 증대, 어촌의 활성화나 방재에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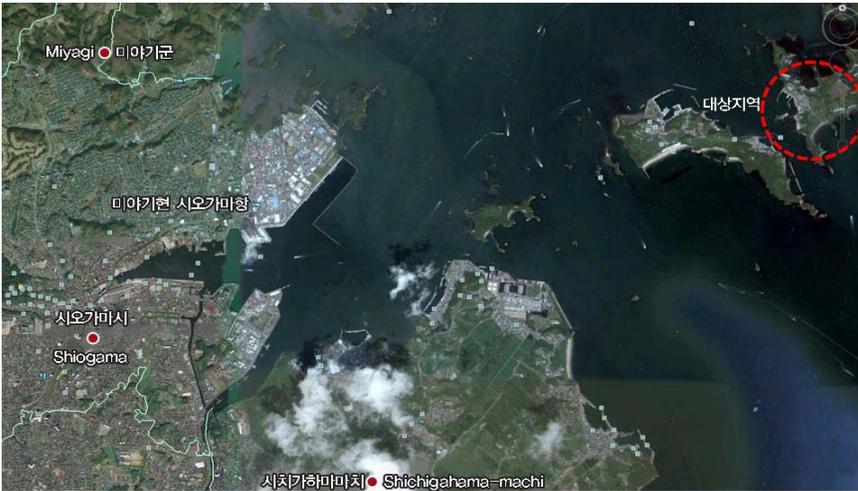
#### (5) 소방수리 충족률, 방재안전 및 정보전달 시설 정비율

어촌은 협소한 토지에서 비교적 고밀도의 가옥이 집중되어 있고, 급경사, 좋은 취락도로로 인해 긴급자동차가 진입하거나 소방용수원이 부족한 곳이 많아 화재, 해일 등 재해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재해 시에는 신속·적절한 대응이 중요하고, 화재 시에는 소방수리 시설이나 적절한 피난유도가 가능하게 하는 방재·안전 등 정보전달 시설이 적절하게 갖추어져야 한다.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소방수리 충족률, 방재안전 등 정보전달 시설 정비율은 각각 72%에서 82%, 84%에서 89%로 개선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향후 방재시설의 정비와 더불어 위험지역 지도작성, 신속한 피난체계의 정비 등 소프트 체제에 충실하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미야기현 시오가마시 사례

시오가마시 사례지역은 100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도서형 어촌으로 이 가운데 50%가 어가이고, 나머지는 은퇴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지역의 어가들은 김, 전복 양식어업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이 어장들은 섬을 중심으로 인접한 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도서어촌의 오수처리는 단순히 집락환경을 위생적이고 쾌적하게 만드는 목적도 있지만 이보다는 주변

어장의 위생과 식품안전성 확보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시오가마시는 어촌 리프레쉬 운동으로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에 3년 간 총 286백만 엔을 투입하여 오수처리 관로(1,400m), 중계펌프시설, 오수처리시설(처리용량 53.1m<sup>3</sup>/일)을 조성하였다(<그림 5-2> 참조).



| 그림 5-1 | 시오가마시 어촌 리프레쉬 운동 사례지역



| 그림 5-2 | 사례지역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 추진내용

## 5) 시사점

### (1) 수산청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과 가시적인 성과 도출

일본의 ‘어촌 리프레쉬 운동’은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어장환경 및 식품안전 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어촌 리프레쉬 운동에서 중요한 점은 수산청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6개 지표만을 설정하고, 사업추진이 필요한 지자체에 지원함으로써 어촌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데 있다.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성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표가 설정되었는데, 이는 어업집락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은 삶의 질 전반에 걸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으나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부처별로 정책목표와 정책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어촌의 특수성과 상대적 낙후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의 발굴과 그 지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어촌지역에서 농촌, 소도시, 전국평균에 비하여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부문의 도출과 사업추진에 있어서 우선순위 즉,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지표가 무엇이며, 예상되는 성과를 예측·제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 (2) 어촌-어항-어장을 연계시키는 정책의 추진

대부분의 어촌은 어장이 바로 인접해 있지만 우리나라 어촌지역의 생활오수는 대부분 바다에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장의 위생환경과 수산물 먹거리 안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어촌·어항 그리고 어장관리 정책은 상호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어촌정책은 어장진입로, 물양장 확보 등 어업생산 시설 확대와 어업외소득 창출이라는 요구에 한정하여 지금까지 대응해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장관리는 생산공간으로서 생산성 증대와 어장구역 내 저질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정화사업 등에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어촌 리프레쉬 운동은 단순히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어촌과 어항, 어장을 상호 연계하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오수배출이 이루어지는 어촌, 오수처리시설이 입지한 어항, 그 주변의 양식어장을 연계하여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도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특히, 어업생산기반시설 확대와 어업외소득 창출에 한정된 어촌개발에서 과감히 벗어나 어항과 어장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의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어촌-어항-어장을 연계시켜 정책을 추진하는 전환점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2. 영국의 농촌 서비스기준

### 1) 개요

1986년 영국에서 이상한 소들이 발견되고 이는 광우병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농어촌의 소득과 일자리 감소, 인구의 과소화 등으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0년부터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마련·운용하기 시작되었다.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주거, 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핵심분야 서비스 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영국의 농촌지역 공공서비스 기준(RSS)은 2000년 농촌백서에서 교육, 이동 서비스, 광대역 통신, 우체국 서비스, 보건, 긴급서비스, 교통 등 8개 분야, 13개 서비스를 기준으로 시작하였고, 현재는 교육, 통신, 교통, 도서관, 보건, 사회보호, 긴급서비스, 법률서비스, 복지, 고용, 세금으로 세분되었다 (<표 5-2> 참조). RSS는 정부, 지자체, 사회단체, 서비스공급자 등 운영주체가 모여 협의와 자체 및 외부평가, 내각의 농촌쇄신위원회 자문을 거쳐 매년 기준을 개정·확대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지역에 넓게 퍼져있는 우체국, 교회,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영국은 DEFRA(농식품부) 산하의 CRC(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를 별도로 두어 CRC가 농촌 서비스기준을 직접 제정, 운용,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DFT(교통부)는 접근성, 도달시간 등 지표설정을 담당, Cabinet Committee on Rural Affairs(농촌문제 분과위원회)에서는 농촌 서비스기준 운영실태를 검토하는 등 그 역할과 기능이 체계적으로 분리되어 시행해오고 있다. 2006년부터는 서비스기준 설정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지자체의 역할과 자율성에 맡기고 있다.

| 표 5-2 | 영국의 농촌 서비스기준

서비스 종류		공급기관	최소 요건 또는 목표치
대구분	세구분	모든 정부 부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의 허용
교육	초등·중학교	교육청	농촌학교의 폐쇄를 최대한으로 억제함 도보 통학거리(2~3마일) 초과 학생에 대한 무상 통학 수단 제공
	정보통신망	교육청	모든 학교에 광대역 통신망 구축
	상급학교 교육 기회	해당 교육 기관	교통비 보조
	통합교육	교육청	통합교육기관을 모든 농촌교육청에 배치 보건·사회복지, 육아, 학습지원, 성인교육, 정보화 교육, 예술교육, 스포츠 등 교육
	온라인센터	부처별	인터넷 접근 보장 및 정보화 교육 실시
	육아	교육청, 공사립	육아 정보망 구축 및 활용

| 표 5-2 | 영국의 농촌의 서비스 기준(계속)

서비스 종류		공급기관	최소 요건 또는 목표치
통신	우체국	우체국	농촌네트워크 유지 및 우체국 폐쇄의 억제
	금융시설	-	ATM 구축
	우편배달	-	전국적으로 동일한 배달 시스템 유지
교통	버스	지자체	인구 50% 이상 1시간 간격 버스 운행, 10분 내 접근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버스요금 50% 감면
	열차	철도 당국	최소 열차 서비스 유지
도서관	-	지자체	· 공공도서관 온라인 연결 · 정보통신기술의 공공 이용 지원
보건	1차 진료	보건 당국 등	24시간 내 1차 진료 기관 도달 48시간 내 의사 진료
	치과 진료	1차 진료 기금	10마일 내 치과 진료 기관 입지
	건강 상담	보건 당국	주 7일 24시간 전화상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예약	-	2005년까지 모든 외래 환자 예약 서비스
사회 보호	사회보호	지자체 사회서비스국	· 주택, 보건, 사회서비스, 기타 장애 등에 대한 장기적 보호 · 보건부의 서비스 제공 지표 준수
	학교과일급식	-	4~6세 어린이의 등교일마다 과일 제공
긴급 서비스	앰블런스 서비스	NHS 기금	· 긴급 응급전화 8분 내 도착 · 기타 응급전화 도시 14분내, 농촌 19분내 도착
	경찰긴급출동	경찰관서	10~15분 내 도달
	소방	소방대	20분 내 도달
법률 서비스	법률 서비스	지자체 등	법률 서비스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법원 접근	법원 등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법원 통행 축소
복지	급여 접근	고용센터, 연금기관	· 교통비 지급 · 독자적 통신망 체계 확립
	온라인 정보	"	일반 및 기술 정보 제공
	급여 지급	"	우체국 계좌를 통한 서비스 보장
	상담	"	· 인터넷 상담체제 구축 · 교통비 지원
고용	고용센터	고용센터	통신망을 통한 고용정보 제공
	온라인 정보	"	채용 일자리 정보 제공
	뉴딜계획	"	구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 교통비, 보육비 보조
	기타	"	고용센터 방문 시 교통비 지원
세금	세무상담	내국세 서비스	통신망을 통한 세금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자료 : Defra, Rural Service Standard 2003

## 2) 주요 서비스기준

### (1) 지방 기초 서비스 지원

1970년대 이후 농촌의 상점, 학교, 우체국, 자동차 정비소, 주점 등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그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 인근 도시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에 대응하여 햄프셔의 하팅 마을 상점은 지역의 상점연합회와 상점 임대인들 간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소매업자들과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지역 내 서비스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을 회관, 주점, 교회 등 광범위한 자산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교회에 일정 기금을 제공하고 대신 교회의 공간을 운동장, 방과 후 클럽 활동, 유아 놀이장, 지역주민 교육센터, 도서관 등의 서비스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보안 활동을 수행하거나 상점을 운영하거나 기본적인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 (2) 농촌 우체국의 유지와 현대화

영국 농촌지역 우체국들의 네트워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한 우편 업무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정보통신, 금융, 보험, 세무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다목적 기관으로서 우체국을 현대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특히 은행 업무는 우체국 발전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분야이다. 인터넷, 텔레뱅킹, 캐쉬 포인트 등의 설치를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 (3) 지방 학교 지원

학교는 농촌 지역사회의 심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 학교들은 대부분 폐교 직전에 놓여있기 쉽다. 따라서 농촌 학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학습 및 교육 기회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농촌 학교의 정보·컴퓨터 기술 역량 강화가 대안으로 등장한다.

학교와 인근 지역사회의 여러 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학교를 방과 후에 지역 주민을 위한 클럽 활동의 장, 도서관, 보건소, 연금생활자에 대한 점심 식사 제공, 근린교육센터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 (4) 탁아 및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농촌의 유아들이 다른 유아들과 만나고 학교 교육을 준비할 수 있게 하며 유아의 부모(특히 어머니)가 일을 하거나 훈련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탁아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영국 정부는 ‘국가 보육 전략(The National Childcare Strategy)’에 따라 영국 정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 사회들이 적절한 탁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 3) 시사점

### (1) 지속적으로 추가·보완되는 서비스 기준

영국 농촌의 서비스기준은 2000년부터 시행한 이후 1~2년 간격으로 계속 추가·보완되는 등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정책시행 이후 여건변화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교육, 우편서비스 등의 핵심서비스를 다루게 되면서 매년 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해 서비스 추가 또는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 (2) 적극적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

농촌주민들에게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용도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서비스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우체국, 교회, 자선봉사단체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함으로써 효과를 높이고 있다.

### (3) 각 부처의 성과평가 근거로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 고양

영국은 삶의 질 위원회의 위원장인 총리가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각 부처의 사업을 종합·조정·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과 관련된 복지, 교육, 교통, 문화 등 각 부처의 농어촌 정책의 추진목표와 성과평가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4) 농어촌 통계정비 및 농어촌 영향평가제도 병행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제정,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로 설정된 항목들에 대해 통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기준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할 수 있는 ‘농촌영향평가제도(rural proofing)’를 운용하고 있다.

## 제 6 장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 1. 어촌 공공서비스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1) 목표

어촌은 국토의 가장자리에 자리 잡아 바다와 접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어촌의 특성으로 어촌은 바다의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이다. 생활공간으로서 어촌은 친환경 먹거리가 풍부하고, 어메니티가 뛰어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촌인구는 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도시보다 노령화 속도가 빠르다. 도시와 어촌의 소득격차가 크고, 어촌의 생활환경이 도시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어촌소득 향상과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수산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전자보다 후자의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즉 어촌의 주요한 소득인 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한 관련 부서와 담당자에 비하여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담당자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어촌 생활환경 개선 정책이 수산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어촌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어촌 생활여건을 포함한 어촌복지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때 어촌 생활공간의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과 의료 등의 복지는 어촌의 노령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의료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업무이지만, 열악한 교육과 의료의 개선을 이들 부처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어촌의 교육과 의료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련 부처에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어촌복지 정책을 추진할 때 어촌복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촌 활성화의 두 축은 어촌소득 향상과 어촌복지 개선이다. 즉 어촌이 살맛 나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어업소득 및 어업 외 소득을 높이는 정책뿐만 아니라 어촌 복지 개선을 통해 어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여야 한다. 후자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어촌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농어촌의 공공서비스는 범부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기준의 설정과 함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방안의 목표를 ‘어촌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로 설정한다.

## 2) 기본방향

어촌 공공서비스의 개선은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즉 공공서비스의 수혜 대상의 범위, 공공서비스의 개선 범위, 공공서비스의 운영주체, 공공서비스의 지속성 등은 어촌 공공서비스의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면 어촌 공공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현재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어촌 공공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 프로그램, 인적 자원 등이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서비스는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 휴먼웨어(Humanware) 등을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투자 효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어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공서비스의 원천인 공간조성, 공간조성의 목적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러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적자원이 충족될 경우에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어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공서비스 기준의 설정도 중요하지만, 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서비스 기준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의 도출도 중요하다. 따라서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이 현재 어촌복지와 관련한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국한하지 않고, 어촌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즉 도시와 어촌 복지의 차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어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투자형 어촌복지를 이끌 수 있도록 어촌 공공서비스를 활용하여야 한다.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어촌주민에게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어촌으로 인적자원의 유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이 어촌주민의 복지 향상에 국한하지 않고,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촌을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국토의 가장자리에 바다와 접하고 있는 어촌은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의 휴양·레저 공간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어촌을 국민 휴양·레저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셋째, 어촌 공공서비스의 개선 사업은 어촌과 바다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여야 한다. 바다는 농촌의 전답과 다르게 공유재로서 수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보호가 개인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어촌생활환경 중 쓰레기 처리와 불량한 하수처리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은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산공간인 어장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어촌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간, 시설, 프로그램, 인적자원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운영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의 특성으로 어촌 공공서비스는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다. 즉 어촌 복지는 농림수산식품부 뿐

만 아니라 교육 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 문화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사회간접자본은 국토해양부, 환경 분야는 환경부 등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어촌복지를 구성하는 각 분야를 소관부처별로 추진할 경우에 공간과 인적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복지의 정책수립과 집행이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어촌의 생활특성과 어촌주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어촌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도시와 격차가 나는 어촌 공공서비스를 즐긴다는 차원에서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어촌주민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촌주민의 노동 스케줄과 어촌주민의 복지에 대한 중요도 인식 등을 기초로 어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의 내용 및 고려사항

### 1)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의 추진배경 및 내용

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의 서비스 수준이 낮다. 중앙정부가 개별 사안별로 농어촌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계획 체계하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또한 농어촌 서비스 정책의 성과 측정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의 서비스에 대한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 인구 노령화, 다문화 가정 등 농어촌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서비스 정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의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

에 따른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의 포괄보조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준거로 삼을 수 있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농어촌 서비스를 설정하였다. 즉 도시와 농어촌간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농어촌 정책 수립 및 추진 시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였다.

농어촌 서비스는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의 8개 분야 31개 기준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농어촌 서비스 항목을 농어촌 주민의 삶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일 것, 측정이 가능하고 비교가 용이할 것, 정책 집행에 적합한 대상일 것 등의 세 가지 선정 원칙에 따라 정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유형을 시설 관련 서비스, 공급 빈도가 중요한 서비스, 신속성이 요구되는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프로그램 확충 등으로 나누어 기준을 유형화하였다. 즉 서비스 기준을 주택, 상하수도 등은 보급률, 교통 등은 횃수, 응급은 대응 시간 등으로 유형화하여 설정하였다.

농어촌 서비스의 8개 분야 중 주거분야는 거주가능 주택, 난방, 공동시설 프로그램, 안전한 마실 물, 오폐수 처리 등의 5개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즉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 시설 기준으로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 높이는 서비스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도서지역은 안전한 마실 물의 공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 도서지역은 지형적 여건상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안전한 마실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서지역은 안전한 마실 물 공급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어촌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어촌의 주 소득원인 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수산생물의 서식지이자 산란지인 연안어장 환경은 어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산물의 안전한 위생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의 제고가 시급하다.

교통 서비스 분야는 대중교통 운행, 여객선 운행, 인도 설치 등 3개 관련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에 본도와 1일 생활권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교통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본도와 인근 육지 중·소도시와 1일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객선 운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촌주민이 인근 육지의 중·소도시에 나갈 경우에 당일로 귀가하지 못할 경우에 지출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조수간만을 이용한 어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 서비스 분야는 유치원·초·중학교, 고등학교, 폐교요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교육발전위원회, 평생교육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가 없는 도서에 사는 학생은 인근 육지의 고등학교로 진학한다. 따라서 도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육지로 진학할 경우에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촌의 특성상 부부가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조업 중에 부모가 집에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1차 진료 서비스, 순회방문, 의약품 구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벽지의 경우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 건강진단이 필요하다. 병이 발생한 경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도 필요하지만, 사전 건강체크를 위한 영상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다문화 가족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등은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도서의 경우에 사회복지 시설이 부족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의 이용에 불리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의 복합공간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응급 서비스 분야는 응급환자 서비스, 도서·벽지 서비스, 소방 서비스, 도난방지, 경찰 서비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급 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 화재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 112 신고 시 5분 내 도착 등의 응급 서비스 기준은 도서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에 적합한 응급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독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여가 서비스 분야는 어촌주민의 이해가 부족한 분야이다. 그리고 도시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과 어촌주민이 인식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차이를 이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는 모든 농어촌에서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80% 이상 가구에서 IPTV 시청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기준을 달성함과 동시에 이러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어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 2)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사업을 추진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위원회 사무국에서 총괄 조정·점검을 통하여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의 지리적 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서비스 시설의 건립 및 관리·운영의 투자 효율성이 도시보다 낮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많이 지출될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설정한 서비스 기준을

달성함에 있어서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개선 계획과 사업의 연계가 필요하다. 도서의 여건과 농촌의 여건이 다른 서비스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과 함께 도서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기준과 관련된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평가하여 5년마다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어촌, 특히 도서와 관련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재설정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나타내면 <표 6-1>과 같다.

【 표 6-1 】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의 고려사항

부문	고려사항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온난화에 의한 태풍·해일 등 재해 대비</li> <li>· 지하수의 해수 유입으로 인한 안전한 식수 공급부족</li> <li>·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오폐수 및 쓰레기 처리문제</li> </ul>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도와 인근 중소도시의 1일 생활권 보장</li> <li>· 도서의 학생 통학수단 제공</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 통학이 곤란한 상급학교 진학 시 기숙문제 해결이 필요</li> <li>· 부부조업으로 인한 방과 후 자녀관리 문제의 해결이 필요</li> </ul>
보건의료	응급환자 대응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
사회복지	도서여건상 노인, 청소년, 아동, 영유아 등의 사회복지시설 독립적 건립 및 운영 곤란
응급서비스	응급서비스 취약지역인 도서의 특성에 적합한 대안이 필요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여가에 대한 어촌주민의 인식부족 문제 해결
정보통신	정보통신 시설 활용자질 부족문제 해결

농어촌 서비스의 주거분야는 농어촌의 생활공간으로서 농어촌 주민의 생활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특히 어촌주민의 생활환경의 수준은 어촌주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어촌주민의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공간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어장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 오폐수와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촌의 불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한 위험인 기후 온난화에 따른 태풍·해일 등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 또는 지방 상수도 시설이 어려운 도서는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하수는 염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안전하고 풍부한 마실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따라서 도서주민이 안전한 마실 물을 마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승용차 소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어촌의 교통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도서의 경우에 생활 중심지인 인근 육지의 중·소도시로의 이동은 도서주민의 불편 사항 중의 하나다. 도서와 인근 육지를 왕래하는 여객선의 운항횟수가 적어 1일 생활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서주민이 인근 육지에서 업무를 보고 도서로 돌아오는 배편이 없어 육지에서 숙박을 함으로써 생활비 지출뿐만 아니라 어장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없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서의 청소년 감소로 인하여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있는 도서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선박운영이 필요하다.

도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경우에 자가에서 통학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러한 학생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기숙형 학교 혹은 기숙사가 필요하다.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시기에 부모 대신에 사감의 보호·감독을 통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부부가 조업하는 연안어업의 특성으로 낮에 부모가 집을 비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어촌의 여건으로 방과 후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

보건의료와 응급 서비스는 농어촌 주민의 재산 혹은 생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지형적 여건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도서의 경우에 보건의료와 응급 서비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의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

도서는 건축부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을 관리·운영할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정보통신 관련 교육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3)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육지에 위치한 어촌의 대부분은 농촌과 분리되는 지역보다 어촌주민과 농촌주민이 혼재하여 거주하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촌의 공공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과 뚜렷하게 구분하여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도서어촌 경우에 농어촌 공공서비스를 적용하면, 도서어촌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한 <표 6-2>는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에서 어촌의 특성, 특히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할 여지가 있는 항목과 서비스 기준을 나타낸다.

주거 서비스 분야 중 수정·보완한 항목은 안전한 마실 물, 생활쓰레기, 오폐수처리 등으로 생활쓰레기는 추가된 항목이다. 안전한 마실 물 항목의 서비스 기준의 경우에 어촌지역 중 식수가 부족한 곳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마실 물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인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증대'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식수가 부족한 곳을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서의 자연경관과 도서 주

변 수산자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에 추가된 쓰레기 항목의 기준으로 ‘도서지역의 쓰레기 처리선 월 1회 이상 운행률 75%’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서지역의 낮은 오폐수 처리율은 수산자원의 서식과 산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의 오폐수 처리 기준인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으로 증대’를 달성함에 있어서 수산자원보전기구는 우선적으로 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교통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 여객선 운행 항목은 ‘도서지역은 모든 본도와 인근 육지 간의 1일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여객선 운행횟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여객선의 1일 1왕복으로 1일 생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본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 서비스 분야의 항목에 학생기숙사와 통학수단을 추가하였다. 도서 지역 중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가 없는 곳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서지역의 학생이 육지에서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를 다닐 경우에 자취 혹은 하숙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 아직 절제가 부족한 학생을 지도하는 사감이 있는 기숙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주하는 도서지역 인근의 도서로 통학하는 학생을 위한 통학선 운영을 교육 서비스 기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 표 6-2 |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구분	항목	서비스 기준
주거 서비스	안전한 마실 물	· 먼지역 상수도 보급률 75% 이상 증대 · 마실 물 부족 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상수도 보급
	생활쓰레기	도서지역의 쓰레기 처리선 월 1회 이상 운행률 75% 이상 증대
	오폐수처리	· 하수도 보급률 71% 이상으로 증대 · 수산자원보전기구는 우선적으로 하수도 보급
교통 서비스	여객선운행	도서지역은 모든 본도와 인근 육지 간의 1일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객선 운행 횟수 확보

| 표 6-2 |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계속)

구분	항목	서비스 기준
교육 서비스	학생 기숙사	도서지역 학생을 위한 육지에 기숙사 설립
	통학수단	도서지역의 학생을 위한 통학선 운행
보건의료 서비스	병원선	보건소가 없는 도서지역에 2개월에 1회 이상 병원선 운행
	진료	도서지역에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 서비스	청소년, 아동, 영유아	도서지역 청소년, 아동, 영유아 복지 서비스 통합 센터의 도우미 배치
응급 서비스	소방서비스	도서에 헬기를 이용한 소방체계 구축
여가문화 서비스	문화프로그램	지역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병원선과 진료항목을 추가하였다. ‘보건소가 없는 도서지역에 2개월에 1회 이상 병원선 운행’의 서비스 기준과 ‘도서지역에 화상진료 시스템 구축’의 서비스 기준을 추가하여 낙도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은 청소년, 아동, 그리고 영유아의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이다. 그러나 도서지역의 경우에 이러한 청소년, 아동, 영유아 사회복지시설의 독립적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낙도의 경우에 교통수단의 운행여건이 나쁜 곳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 아동, 영유아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준으로 ‘도서지역 청소년, 아동, 영유아 복지 서비스 통합센터 설치와 도우미 배치’가 필요하다.

응급 서비스 분야의 소방 서비스 항목에 ‘도서의 경우에 헬기를 이용한 소방체계 구축’의 서비스 기준을 추가하였다. 화재는 인명뿐만 아니라 도서의 생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도서에 헬기를 이용한 소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가 서비스 분야의 문화 프로그램 항목에 ‘지역 주민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였다. 어촌주민의 경우에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문화욕구가 도시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어촌주민의 정서에 맞고, 어촌주민에게 익숙한 전통문화예술을 직접 배우고 공연하는 참여형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3. 어촌 공공서비스의 정책방향

#### 1) 수산정책 사업과 어촌 공공서비스와 연계

농림수산식품부를 포함한 중앙부처가 어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직접사업과 간접사업이 있다. 즉 어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예산항목이 선정되고 집행되는 직접사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중 본래 사업목적에 추가하여 어촌 공공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간접사업이 있다.

예를 들어 어촌의 어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서 어촌문화와 어구어법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노인층을 체험관광의 가이드로서 활용함으로써 노인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어촌 전통문화를 발굴·계승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추진된 어촌민속전시관 사업을 어촌주민의 전통문화를 공연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어촌 문화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어촌체험관광객에게 어촌의 인정과 어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민박사업은 어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산정책 사업을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과 연계시킬 경우에 사업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수산정책사업을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과 연계함으로써 어촌주민이 공공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어촌주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어촌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경우에 어촌주민에게 자긍심을 고양시킬 수 있어 어촌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 2) 어촌 공공서비스 공간의 통합적 운영

다른 공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어촌 공공서비스도 서비스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시설투자비를 포함한 고정비(fixed cost)와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리·운영 등의 운영비(operating cost) 등이 지출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기반시설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의 절감이 요구된다. 그러나 어촌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여러 부처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기반시설의 건립과 운영이 부처별로 독립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건립하여 운영하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건립하여 운영하며, 여가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회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에 따라 각각 다른 공간에 시설이 건립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할 경우보다 고정비와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어 투자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독립적으로 건립·운영함으로써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각 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건립·운영할 경우에 건물의 시계설비를 담당하는 직원과 건물의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 등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학생에게 방과 후 교육을 담당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학생들의 양호교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공서비스

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복합공간화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비용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 3) 바다 환경보전과 어촌 공공서비스의 연계

어촌주민의 생산공간으로서 바다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해양생태계다. 어촌주민은 바다에서 해양생태계를 구성하는 수산자원을 채취하고 어획하여 어업소득을 얻고 있다. 해양생태계는 먹이사슬(food chain)로 유지되고 있다. 어촌이 바다와 접하는 연안 수역은 수산자원의 산란지로서 해양생태계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또한 바다는 생산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어촌관광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즉 마을어장을 포함한 바다는 다양한 수산자원의 관찰체험, 채취체험, 어선어업체험 등이 가능하며, 해양레저 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어촌과 바다는 어메니티가 뛰어나고, 계절 수산물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촌관광의 공간으로서 수산물 생산이외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바다는 국민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해양생태계의 관찰을 통한 생태계의 특징과 구성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육공간의 역할도 한다. 즉, 바다는 학교 교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실험과 관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생태환경의 교육장이다. 그리고 다양한 해양생태자원은 바이오 산업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바이오 산업의 중요한 자원이 있는 바다는 어촌주민의 소득공간인 동시에 국토의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다환경은 보전하여 바다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즉 해양생태자원의 남획을 방지하여야 하며, 해양생태자

원의 서식공간으로서 바다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해양생태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그 일환으로서 어촌의 쓰레기 처리와 생활 오폐수의 정화처리시스템 구축 등은 어촌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바다오염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수산물은 위생과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바다오염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을 열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먹거리로서 품질과 위생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 어촌의 쓰레기 처리와 생활 오폐수의 정화처리는 위생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쓰레기와 생활 오폐수 처리를 통한 어촌 생활환경의 개선은 어촌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 4) 투자형 공공서비스로의 인식 전환

어촌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어장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이다. 어촌복지의 개선은 어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촌의 유지·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어촌복지의 향상은 어촌의 생활수준을 개선하여 어촌주민에게 어촌에서 생활과 생산의욕을 증진할 수 있다. 따라서 어촌 복지를 향상시키는 공공서비스를 도시와 어촌의 복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소극적 수단이 아니라 어촌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투자형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어촌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층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도시로부터 청장년층이 어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의 한 부분으로서 바다를 접하는 고유한 지리적 특성이 있는 어촌은

바다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국토의 전진기지이다. 어촌은 국토의 미래 잠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어촌의 공공서비스가 도시보다 생활여건과 수준이 낮은 낙후된 공간인 어촌을 지원한다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미래 국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투자되어야 한다.

어촌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투자가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소비형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미래의 투자라는 인식하에 어촌 공공서비스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단지 현재 어촌에 거주하는 어촌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공공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임기응변적인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은 오히려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비형 어촌 공공서비스 투자는 어촌의 낙후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견고하게 함으로써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본과 인적자원의 유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한 어촌 공공서비스의 개선

기업이 계속기업(going-concern)으로 유지·성장하기 위한 조건 중에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즉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사회·경제적 수요를 예측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함으로써 기업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다국적 기업도 사회·경제적 트렌드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거나 무시할 경우에 기업의 성장은 물론이고 유지가 곤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 필름시장의 점유율이 가장 높아 성장기업의 가도를 달려왔던 코닥도 디지털에 대한 사회·경제적 트렌드를 무시하여 기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 사례는 기업의 사회·경제적 수요의 예측과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어촌 경제 활성화도 어촌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다음은 생태학(ecology)이다.”라고 한 바와 같이 생태계는 미래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임에 틀림 없다. 바다와 육지에 접하고 있는 어촌은 생태계의 중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어촌은 사회·경제적 수요인 건강, 친환경, 레저, 어메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국토공간이다. 따라서 어촌을 이러한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촌 공공서비스의 개선은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응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 6) 어촌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계획수립 및 추진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연안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 감소율을 낮추고 나아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개선도 이러한 수단 중의 하나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도서가 많은 연안 시·군은 상수도 보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송시간이 도서가 없는 연안 시·군보다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안 시·군의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어촌 공공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중앙부처가 서로 다른 어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기반시설, 프로그램, 인적자원의 통합계획과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함으로써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방자

치단체장은 지역여건과 자원을 토대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경영자로서 지역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사업과 지역 소득향상 사업을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공공투자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처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역에 적합한 공공서비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즉 상향식 복지사업계획 및 추진으로 중앙정부의 복지 관련 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통합 복지사업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복지사업계획과 관련된 중앙정부가 동시에 동 계획을 검토·조정하기 위한 통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복지사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프로그램, 인적자원을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4. 어촌 공공서비스 제고 방안

### 1)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어촌 공공서비스 제고

어촌을 중심으로 어항과 어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은 생산공간과 생활공간으로서 수산정책의 대상 공간이다. 즉 어촌은 어항과 어장을 이용하는 어촌주민이 생활하는 공간이며, 어장은 어촌주민의 생산공간이다. 그리고 어항은 생활공간과 생산공간을 연결하는 생산기반공간이다. 이러한 세 공간과 그 곳에 있는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정립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통합적 수산정책은 어촌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어촌 공공서비스의 향상도 동시

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정책의 사업이 독립사업으로서 여러 형태로 수행되고 있지만,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그다지 많지 않다. 특히 각 사업이 생산성 향상과 어촌소득 창출의 수단으로서 역할은 하고 있지만, 어촌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사업의 추진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하여 어촌 공공서비스를 높일 필요가 있다.

어항개발과 어촌개발사업을 통합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어촌 공공서비스를 높여야 한다. 어촌의 생활 오폐수와 어항의 기능시설과 편익시설의 오폐수 처리를 통합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장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서식과 산란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장정화사업을 하수처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어장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어항은 어장과 어촌을 연결하는 공간으로서 어촌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어항의 편익시설을 어촌의 여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운영하여야 한다. 즉 어촌주민의 편익시설을 어항을 중심으로 건립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편익시설이 아닌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인적자원의 공급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 투자계획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계절에 관계없이 인공시설이 아닌 자연환경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편익시설은 겨울에 미역, 다시마, 김, 메생이, 굴 등을 수확한 어촌주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겨울철 수산물의 위생적 가공과 함께 겨울의 한파에도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는 수산물 가공처리장을 건립·운영하면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이고 어촌주민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 어촌 관광사업을 통한 어촌 공공서비스 제고

국민의 관광행태가 바뀔에 따라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있다. 따라서 어촌관광은 수산자원 중심의 활용에서 벗어나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기회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어촌주민과 도시주민의 교류의 빈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의 어촌에서 체류기간을 높이고 있다. 어촌이 단순한 어촌주민의 주거공간이 아니라 도시주민의 여가를 보내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어업 외 소득원의 다양한 개발을 촉진시키고,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왜냐하면 도시주민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어업 외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주민의 관광 성향에 적합한 어촌 공간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촌관광사업은 어촌소득을 높이고,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어촌체험관광의 가이드로서 어촌 노인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어구·어법은 다년간 어업에 종사한 노인은 어구·어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촌체험관광의 가이드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다. 어촌체험관광객과 만나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어 노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어촌체험관광객의 숙박시설에 대한 선호도는 다양하다. 관광객 중에 어촌생활문화를 느끼고, 어촌의 인정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어촌 민박을 선호한다. 이러한 민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어촌 주택의 개선은 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어촌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어촌에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을 수리하여 소설가, 시인, 예술가, 사진작가 등에게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면 어촌관광 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주민의 여가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촌과 바다의 우수한 어메니티는 레저·보양공간으로 적합하여 해변

에 바다 리조트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리조트는 어촌관광객의 현대적 숙박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양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해수 스파와 한방의 결합한 보양기능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어촌주민의 치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리조트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촌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마을어장은 생태계의 보고다. 이러한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어촌 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학생에게 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나아가 도시의 학생과 교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어촌생태학교를 개설하여 지역 학생들에게 생태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어촌민속전시관은 어촌 고유의 민속을 전시하여 어촌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전시공간으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촌주민이 직접 전통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어촌민속전시관에 생명을 불어일으키고, 수동적인 어촌주민의 여가문화가 아닌 능동적이고 참여하는 여가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 3)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표 6-3>은 어촌의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나타낸다. 즉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촌의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추진사업을 제시하였다.

주거 서비스 중 어장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오수처리와 폐기물은 시급하게 개선하여야 할 공공서비스 분야다. 도서어촌 주민 중 61.2%가 음식

물을 매립하고 있으며, 44.4%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연안촌락 어촌주민의 17.2%는 폐자재를 소각하고 있어 바다환경 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도서 어촌 주민의 44.9%는 생활오수를 방류하고, 16.3%는 분뇨를 방류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생활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

| 표 6-3 | 어촌 공공서비스 정책대안

구분	항목	실태 및 문제점	정책대안	
주거 서비스	상수도(식수)	상수도 평균 46.1% 도서어촌 13.5%	어촌종합개발사업 확대추진	
	폐기물	음식물		도서어촌 매립 61.2%
		쓰레기		도서어촌 소각 44.4%
		폐자재		연락촌락 소각 17.2%
	오수 처리	생활오수		도서어촌 방류 44.9%
		분뇨		도서어촌 방류 16.3%
	마을공동시설	프로그램운영 미흡 (입지유형무관)		
교통 서비스	도서 1일 생활권	도서와 인근 중·소도시 1일 생활권 미확보 많음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추가지원사업	
교육 서비스	기숙사	고등학생 외지유학(43.3%) 중학생 외지유학(25.0%)	도서학생 기숙사 건립 및 운영 사업(도서종합개발사업의 추가지원 사업)	
	통학거리	통학거리멀다(37.6%)		
보건의료 서비스	진료소	거주마을에 위치(62.9%) 가까운 읍·면소재(35.0%)	원격진료장비지원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및 위치	서비스가 어촌여건에 부적합(33.3%), 접근성 나쁨(27.8%)	어촌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사업(신규)	
응급 서비스	구급구조, 응급수송	신속한 구급·구조 응급 서비스 지원(69.5%)	헬기착륙장조성(도서종합 개발사업의 추가지원사업)	
여가문화 서비스	여가문화수요	여가문화시설 없음·잘모름(46.6%)	어촌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사업	

1일 3회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고 어촌주민이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로부터 도서와 인근 중·소도시가 1일 생활권역으로 조정이 필요한 도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통 서비스 분야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선박운항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서와 인근 중·소도시를 1일 생활권역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도서의 경우에 중학생의 25.0%, 고등학생의 43.3%가 외지로 유학을 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37.6%가 통학거리가 멀다고 응답한 결과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면학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 학생 기숙사 건립 및 운영사업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은 어촌주민의 약품구입과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의 경우에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응급수송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응급환자 발생비율을 낮추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원격진단장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서의 응급수송 수단인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헬기 착륙장 조성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의 부적합성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어촌주민이 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촌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어촌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다른 서비스 분야와 통합하여 개발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가문화, 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어촌의 여건에 적합하게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육성도 어촌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 7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 결 론

어촌은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 중의 하나인 수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주체인 어업인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수산물 생산으로부터 얻는 어업소득이 증가하지 않아 어촌소득은 도시 평균 소득과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촌 복지 수준도 도시의 복지 수준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소득과 복지수준의 격차로 어촌은 생활공간으로서 매력이 매우 낮다.

삶의 질 향상위원회는 어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서비스 기준의 목표를 달성하면, 농어촌 복지 수준은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어촌을 매력 있는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복지 관련 공공투자가 경제 관련 투자와 달리 경제성이 아닌 균등배분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어촌의 과소화에 따른 복지 투자의 효율성이 낮다. 따라서 어촌 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가 다른 지역의 투자보다 우선순위를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국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어촌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어촌의 지리적 단점이 오히려 미래 국토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어촌은 국토의 4.5배인 해양영토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이다. 해양영토가 동북아시아에서 국제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촌, 나아가 도서는 국토의 중요한 공간이다.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 러시아와 일본의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국토의 가장자리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의 복지 개선을 위하여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목

표 달성을 통하여 어촌과 도시의 복지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아울러 해양 영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어촌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어촌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반영한 어촌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여러 부처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어촌 복지사업은 연안 및 해양영토의 공간과 자원의 활용, 그리고 이들 공간과 자원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어촌공간과 자원의 지속적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공공투자사업을 어촌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연계하여 공공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 2. 정책 제언

어촌소득과 도시소득의 격차가 크고, 어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어촌주민은 어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도시주민보다 낮은 편이다. 어촌 복지 향상보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어촌 노인의 대부분은 낮은 어촌 복지수준에 대하여 불평하기보다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도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추진보다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공공투자의 비중이 높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생산부문의 공공투자에 비하여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부문에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촌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일 뿐만 아니라 타 부처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산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어촌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정책방향

첫째, 이와 같이 수산정책 사업을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과 연계시킬 경우에 사업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수산정책사업을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과 연계함으로써 어촌주민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어촌 공공서비스가 어촌주민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제공되기 때문에 어촌주민의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어 어촌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어촌 공공서비스 공간, 프로그램, 인적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통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독립적으로 건립·운영함으로써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각 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건립·운영할 경우에 건물의 시계설비를 담당하는 직원과 건물의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 등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바다환경과 어촌 공공서비스를 연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어촌의 쓰레기 처리와 생활 오폐수의 정화처리는 위생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쓰레기와 생활 오폐수 처리를 통한 어촌 생활환경의 개선은 어촌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넷째, 어촌 공공서비스가 투자형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을 새롭게 할 필

요가 있다. 어촌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어장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이다. 어촌복지의 개선은 어촌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촌의 유지·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하여 어촌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어촌은 사회·경제적 수요인 건강, 친환경, 레저, 어메니티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국토공간이다. 따라서 어촌을 이러한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촌 공공서비스의 개선은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응한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어촌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여건과 자원을 토대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경영자로서 지역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사업과 지역 소득향상 사업을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러한 공공투자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2) 정책대안

첫째, 어촌, 어항, 어장과 관련이 있는 어촌 공공서비스의 보급률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atabase system)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은 어촌의 공공서비스가 어장과 어항 등과 연계의 필요성, 연계방안 등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어촌특성을 고려한 어촌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촌 공공서비스의 통합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어촌은 국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간 이격거리가 길 뿐만 아니라 마을의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어촌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항목을 관할하는 부처별로 어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타 지역보다 투자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어촌 공공서비스 시설, 프로그램, 인적자원을 통합할 수 있도록 어촌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은 국민의 여가공간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어촌체험관광, 레저보양 등의 수요에 적합한 시설, 상품과 서비스를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과 연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어촌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폐쇄적인 어촌공간을 개방적 공간으로 전환시켜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수산시설 중 어촌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은 프로그램 개발 투자와 어촌주민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시설건립 목적을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과 연계함으로써 시설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형 복지가 아닌 생산형 복지를 달성할 수 있는 수산시설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섯째,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달성하는 데 제약요인이 있는 도서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이동식 복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이동병원선, 이동 도서관, 이동 문화선 등을 소관 부처별로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합 도서이동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투자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서 공공서비스 횡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종합개발사업의 확대추진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김창현 외,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국토연구원, 2007.
- 김현호 외, 「영국의 지방공공서비스 협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4.
- 김현호 외, 「지역생활여건개선 사업추진 기본계획 마련연구」, 행정안전부, 2008.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 방안 연구」, 2009.
- 농림수산식품부, 「삶의 질 향상 기본·실행계획 추진 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9.
- \_\_\_\_\_, 「2010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2010.
- \_\_\_\_\_, 「2009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보고서」, 2010.
- 박대식 외,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지수 측정방안 연구」, 2005.
- 박성복, “삶의 질 개념과 비교방법”,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3.
- 송미령 외,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안병철 외, “공공서비스의 역사적 변천과 특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2호
- 윤경숙,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은재호, “공공성 개념 연구, 프랑스식 공공서비스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거

- 버년스학회보」, 제15권 제3호.
- 최성애 외, 「어촌사회 양극화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 한인섭 외, “공공서비스 연구동향 분석, 한국과 미국의 주요 학술지 비교 (1995-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1호.

<국외 문헌>

- Defra(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Rural services standard*, 2003.
- Rutland County Council, *A Study of Rural Service Standards*, 2009.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부 록

<b>어촌 서비스 기준 설문조사</b>	ID		
-----------------------	----	--	--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의뢰로 『어촌 서비스 기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어촌지역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수치화되어 통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 자료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

주관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기관 :

.....

### [응답자 인적사항]

응답자 성명		연령	세
성별	남, 여	어촌거주기간	년      개월
소속 어촌계	군(시)	어촌계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거하고 있는 총 가족 수 : 본인 포함 총 (      )명</li> <li>• 동거 가족 중 65세 이상 (      )명</li> <li>• 동거 가족 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까지 다니는 학생 (      )명</li> </ul>		

## 1. 공공서비스의 전반적인 여건

문1. 귀하가 살고 있는 어촌에서 현재 가장 취약한 공공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주거 서비스(주택, 마을회관, 경로당,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자연재해, 전력공급 등)
- ② 교통 서비스(대중교통, 도로, 여객선 등)
- ③ 교육 서비스(학교교육, 사교육, 평생교육 등)
- ④ 의료 서비스(약국, 보건소, 병원 등)
- ⑤ 사회복지 서비스(아동보육,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
- ⑥ 응급 서비스(구급차·구급선, 소방, 치안 등)
- ⑦ 문화·여가 서비스(도서관, 공연장, 영화관, 체육시설 등)
- ⑧ 정보통신 서비스(인터넷, 초고속망, 택배 등)
- ⑨ 금융·행정 서비스(은행, 민원처리 등)
- ⑩ 기타 ( )

문2. 문1에서 선택하신 공공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었다
- ② 시설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 ③ 필요한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못한다
- ④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수준이 매우 낮다
- ⑤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방문하기 힘들다
- ⑥ '찾아오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⑦ 기타 ( )

## 2. 주거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 조사

문3. 귀하의 댁은 식수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 ① 상수도 (⇒ 문9로 이동)
- ② 암반관정 지하수
- ③ 지표수 이용 간이 상수도
- ④ 기타 ( )

**문4. 귀하의 택에 상수도를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마시는 식수로도 만족한다
- ② 마을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관로가 없다
- ③ 상수도 설치비용이 부담된다
- ④ 상수도 요금이 부담된다
- ⑤ 기타 ( )

**문5. 귀하는 택에서 마시는 식수의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식수로서 매우 안전하다
- ② 수질오염(염분기 포함)에 대한 걱정으로 항상 걱정된다
- ③ 상수도에 비해 안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신다
- ④ 가끔은 불안할 때가 있다
- ⑤ 기타 ( )

**문6. 귀하는 택에서 다음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항목	분리수거 (자체 처리)	매립	소각	쓰레기 운반선을 통해 처리	기타
음식물 쓰레기	1	2	3	4	5
생활쓰레기	1	2	3	4	5
폐자재	1	2	3	4	5

**문7. 귀하는 택에서 오수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항목	하수종말 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재래식	바다에 방류	기타
생활오수	1	2	3	4	5
분뇨	1	2	3	4	5

**문8. 귀하는 택에서 전력공급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 ① 한전을 통한 전력공급
- ② 자가발전(디젤)
- ③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력, 조력 등)
- ④ 전기가 전혀 없음
- ⑤ 기타 ( )













문27. 귀하는 다음의 각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인근의 다른 시·군	교통 서비스만 제공되면 상관없음
약국					
보건소 · 지소 · 진료소					
일반 병의원					
종합병원 · 대학병원					

문28. 귀하는 불편 없이 건강관리, 병의 진료와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두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 ① 해당 의료기관까지 가는 교통수단 확충
- ② 수술 가능한 전문의료인 확충
- ③ 의료시설 및 장비의 개선
- ④ 입원할 수 있는 의료시설
- ⑤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 가능한 병원
- ⑥ 약국이라도 마을마다 설치
- ⑦ 보건소 방문 보건담당자의 방문진료 확대
- ⑧ 전문의들의 순회진료 확대
- ⑨ 기타 ( )

## 6. 응급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 조사

문29. 귀하의 경우 신고 직후부터 응급 서비스(경찰, 소방, 구급 등)를 받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또한, 해당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소요시간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경찰	( )시간 ( )분	1	2	3	4	5
소방	( )시간 ( )분	1	2	3	4	5
구급 · 구조	( )시간 ( )분	1	2	3	4	5

문30. 귀하가 생각하는 응급 서비스와 관련한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 경찰 ( )
- 소방 ( )
- 구급·구조 ( )

**7.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 조사**

문31. 귀하는 다음의 복지 서비스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항 목	1주 2~3회 이상	1달 2~3회	1년 4~5회	1년 1~2회 이하	이용하지 않음
종합복지시설 (지역종합사회복지관 등)	1	2	3	4	5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등)	1	2	3	4	5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1	2	3	4	5
청소년복지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1	2	3	4	5
여성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여성발전센터 등)	1	2	3	4	5

문32. 귀하가 다음 사회복지 시설까지 이동하는 방법, 소요시간, 해당시설의 위치를 적어 주십시오.

항 목	이동방법	소요시간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인근 다른 시군
종합복지시설	도보 ( )	( )시간 ( )분	1	2	3	4
	자동차 ( )					
	배 ( )					
노인복지시설	도보 ( )	( )시간 ( )분	1	2	3	4
	자동차 ( )					
	배 ( )					
아동복지시설	도보 ( )	( )시간 ( )분	1	2	3	4
	자동차 ( )					
	배 ( )					
청소년복지 시설	도보 ( )	( )시간 ( )분	1	2	3	4
	자동차 ( )					
	배 ( )					
여성복지시설	도보 ( )	( )시간 ( )분	1	2	3	4
	자동차 ( )					
	배 ( )					

문33. 귀하는 이용 경험이 있으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 ① 너무 멀리 있음
- ② 교통이 불편함
- ③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 ④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음
- ⑤ 전문인력이 부족함
- ⑥ 시설이 낙후함
- ⑦ 시설 및 서비스 이용부담이 큼
- ⑧ 전화·인터넷 등 온라인 서비스가 부족함
- ⑨ 재가 및 방문 복지서비스가 부족함
- ⑩ 서비스가 어촌·어업인 여건에 맞지 않음
- ⑪ 기타 ( )

문34. 귀하 또는 가족들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제공받기를 원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두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 |                  |                          |
|------------------|--------------------------|
| ① 취미·사회활동        | ② 교양·교육활동                |
| ③ 건강관리 및 재활활동    | ④ 가정문제 상담과 해결            |
| ⑤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 ⑥ 직업 및 기술교육              |
| ⑦ 체육·레저활동        | ⑧ 학교교육 보안을 위한 청소년 교육     |
| ⑨ 유아의 보육         | ⑩ 거동불편 주민대상 재가 및 돌보미 서비스 |
| ⑪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⑫ 기타 ( )                 |

**8. 문화·여가 서비스 이용실태 및 수요 조사**

문35. 귀하는 다음과 같은 문화·여가 시설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항 목	1주 1~2회 이상	1달 2~3회	1년 4~5회	1년 1~2회 이하	이용하지 않음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문화회관, 시군민회관 등)	1	2	3	4	5
도서관	1	2	3	4	5
영화관·공연장	1	2	3	4	5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1	2	3	4	5
실내외 체육시설	1	2	3	4	5

문36. 문항35에서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두 개 선택하시고, 그 시설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시설의 만족도를 기입해 주십시오.

항목	소요시간	매우 불만족	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 )시간 ( )분	1	2	3	4	5
	( )시간 ( )분	1	2	3	4	5

문37. 귀하는 다음의 문화·여가시설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적당하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살고 있는 마을	가까운 읍면 소재지	시군청 소재지	인근 다른 시군	교통편이 마련되면 위치 상관없음
문화의집, 문화예술회관 (문화회관, 시군민회관 등)	1	2	3	4	5
도서관	1	2	3	4	5
영화관·공연장	1	2	3	4	5
미술관, 전시관, 박물관	1	2	3	4	5
실내외 체육시설	1	2	3	4	5

문38. 귀하의 어촌마을에 '찾아오는 문화 서비스'가 실현되기 바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 |               |                  |
|---------------|------------------|
| ① 찾아오는 음악 공연  | ② 찾아오는 연극·뮤지컬 공연 |
| ③ 찾아오는 영화 상영  | ④ 찾아오는 전시 프로그램   |
| ⑤ 찾아오는 작은 도서관 | ⑥ 기타 ( )         |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

2010年 12月 29日 印刷

2010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金 學 韶  
發行人  
發行處 韓國海洋水產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

組版 · 印刷 / 한성애드컴 2266-6559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